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포괄적협의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 받은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굿네이버스는 해외 35개국에서 지역개발사업(CDP)을 중심으로 아동권리보호 및 지역사회 자립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28개 아동보호전문기관, 18개 학대피해아동그룹홈 운영을 통한 아동권리보호사업, 20개 좋은마음센터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지원사업, 52개 지부와 협력시설 지원을 통한 빈곤가정아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1개 시도본부와 16개 나눔인성교육센터를 주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개발교육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적 대북협력사업을 비롯하여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전세계 곳곳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이봉주 · 신원영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 연구기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책임자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신원영(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연구보조원 길보라(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원)
 박주나(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대리)
연구자문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선숙(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중실(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미정(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최명민(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2016

이봉주 · 신원영

발간사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아동권리의 진전상황을 국제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되었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의 기관과 학계,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되어 아동 관련 법·제도 마련,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독립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 설치 등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일련의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와 달리 우리나라 아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차원의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거나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 일어나는 가정과 학교, 사회 곳곳의 폭력, 빈곤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평등, 심화된 학업경쟁과 부담으로 고유한 아동기의 상실 등이 아동이 처한 현실이고, OECD 국가 중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라는 조사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제도 및 정책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동이 처한 현실 앞에서 아동의 권리가 과연 잘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주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의 권리 보장 실태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2차 권고 이후 국가차원의 아동권리 관련 자료수집 체계 개발 및 수집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 법, 제도 등 객관적인 지표 뿐 아니라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인 아동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권리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굿네이버스에서는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아동권리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아동권리지표는 협약에서 보장하는 주요한 아동권리 경험과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환경과 아동권리 경험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발달의 결과를 맥락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종합적인 아동권리지수가 제시되었고, 지역별, 학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수행해 주신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소장 이신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님과, 신원영 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과 전문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주신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님, 김선숙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 전종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진미정 서울대학교 교수님, 최명민 백석대학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가 아동들의 삶을 권리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았다는 데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부 및 민간의 활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굿네이버스에서도 연구를 기반으로 전문가 및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처음 실시한 이번 연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아동권리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아동권리 실현 정도를 점검하는 연구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과 실천적 노력이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굿네이버스 회장 양진욱

머리말

인권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출생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천부의 권리다. 인류는 역사 발전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보편적인 인권뿐이 아니라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히 그러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왔다. 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이 그러한 대표적 집단들이다.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장치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 보장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협약에 가입했으니 올해로 협약 가입 26년이 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제시하고 국가와 사회가 아동권리 보호에 최선의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사회도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그에 따른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온 것도 사실이다.

아동권리 보장의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아동권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수준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일이다. 아동권리의 수준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아동권리 신장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할 수 있다. 또 그러한 노력이 실제적으로 아동권리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그 노력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그동안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있어 왔지만,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수준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은 미흡했다. 국내외 아동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굿네이버스가 이번에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시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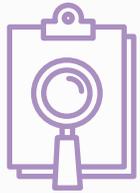
이번 연구는 전국 대표성을 가진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아동권리 연구 역사에서 하나는 큰 획을 그은 역할을 했다. 특히 아동권리의 상태를 개별적인 지표들로만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표들을 포괄해서 하나의 지수로 묶는 작업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을 지수로 파악하고 실제로 그 지수를 이용해서 16개 시도 비교연구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전국 수준의 아동권리 보장 노력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는 아동권리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해서 시간에 따른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권리보장 노력을 새롭게 촉구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이번 굿네이버스의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연구가 그러한 노력의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적인 아동권리지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들의 권리가 더욱 신장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봉 주

목차 Contents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12



II. 아동권리지표 연구

015

1. 아동권리지표 개발 016

- 1) 지표의 개념과 기능 016
- 2) 선행 권리지표 검토 018
- 3) 아동권리지표 개발 원칙 020
- 4) 아동권리지표 체계 구성 021

2. 조사방법 032

- 1) 설문문항의 구성 032
- 2) 조사과정 037
- 3) 유효 데이터 추출 방법 041
- 4) 가중치 적용 044

3. 조사결과 045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045
-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046
- 3)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048
- 4) 16개 시도 및 학년 비교 049



III. 아동권리지수 연구

158

1. 아동권리지수 개발 과정 159

- 1) 지수의 개념과 기능 159
- 2) 아동권리지수 구성 160
- 3) 아동권리지수 산출 방법 160

2. 조사결과 162

- 1)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162
- 2)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174



IV.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맥락

176

1.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177

2.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환경 178

- 1) 경제적 환경 178
- 2) 인프라 환경 181
- 3) 인식적 환경 182



V. 합의

183

190 참고문헌

195 Appendix 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권리지표 결과

210 Appendix 2 설문지

표 목차



[표II-1] 국내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 현황	019	[표IV-1]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177
[표II-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2011)에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문제	022	[표IV-2]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178
[표II-3]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제기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문제	023	[표IV-3]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181
[표II-4] 권리보장환경의 영역, 요소, 세부지표	025	[표IV-4]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182
[표II-5]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주요 내용	027		
[표II-6] 권리경험의 영역, 요소, 세부지표	029		
[표II-7] 발달결과의 영역, 요소, 세부지표	031		
[표II-8] 전체 조사항목	034		
[표II-9] 아동 조사항목의 출처	035		
[표II-10] 부모(보호자) 조사항목의 출처	037		
[표II-11] 조사개요	038		
[표II-12] 모집단에 근거한 학교표본 수	039		
[표II-13] 지역별 학교표본 수	039		
[표II-14] 초 4학년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	042		
[표II-15] 초 6학년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	043		
[표II-16] 중 2학년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	044		
[표II-1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046		
[표II-18] 부모(보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047		
[표II-19]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048		
[표II-20] 권리보장환경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085		
[표II-21] 권리경험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125		
[표II-22] 발달결과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157		
[표III-1]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종합결과	163		
[표III-2]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종합결과	174		

그림 목차



[그림II-1] 설문문항 구성 과정	033	[그림II-27] 아동학대 신고인식: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073
[그림II-2] 표본추출 과정	040	[그림II-28] 아동학대 신고인식: 학대감소 효과 기대	074
[그림II-3] 본 조사 과정	041	[그림II-29]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075
[그림II-4] 가구소득	050	[그림II-30]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 인식	076
[그림II-5] 주거 안전성	051	[그림II-31] 심각한 신체 학대 인식	077
[그림II-6] 주거 쾌적성	052	[그림II-32] 정서 학대 인식	078
[그림II-7]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	053	[그림II-33] 방임 인식	079
[그림II-8] 부모(보호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054	[그림II-34]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부모)	080
[그림II-9]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055	[그림II-35]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아동)	081
[그림II-10]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056	[그림II-36] 아동권리 인식(부모)	082
[그림II-11] 등·하교 편의성	057	[그림II-37] 아동권리 인식(아동)	083
[그림II-12] 학교시설 쾌적성	058	[그림II-38] 식품미보장	086
[그림II-13]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059	[그림II-39] 규칙적인 식사	087
[그림II-14] 학교내 의견존중 분위기	060	[그림II-40] 신선한 채소의 섭취	088
[그림II-15]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061	[그림II-41] 인스턴트 식품 섭취	089
[그림II-16] 학교내 비차별 문화	062	[그림II-42] 건강검진	090
[그림II-17] 범죄 안전	063	[그림II-43] 격렬한 신체활동	091
[그림II-18] 교통사고 안전	064	[그림II-44] 가벼운 신체활동	092
[그림II-19] 식품 안전	065	[그림II-45] 수면시간이 부족한 아동	093
[그림II-20] 물리적 무질서	066	[그림II-46] 학교생활 만족도	094
[그림II-21] 사회적 무질서	067	[그림II-47]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095
[그림II-22] 병원 이용 편의성	068	[그림II-48]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096
[그림II-23] 도서관 이용 편의성	069	[그림II-49]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097
[그림II-24] 놀이터 이용 편의성	070	[그림II-50] 놀이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098
[그림II-25] 공원 이용 편의성	071	[그림II-51] 가족과의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정도	099
[그림II-26] 아동학대 신고인식: 아동의 장래 도움	072	[그림II-52]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100

그림 목차



[그림II-53]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101	[그림II-79] 전반적인 학업성취: 초등	130	[그림III-1] 아동권리지수 구성	160	[그림III-27] 초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175
[그림II-54]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102	[그림II-80] 전반적인 학업성취: 중등	131	[그림III-2] 아동권리지수 산출 절차	162	[그림III-28] 중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175
[그림II-55]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103	[그림II-81] 국어 학업성취: 중등	132	[그림III-3]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163	[그림IV-1]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교육복지지원비율과의 관계	179
[그림II-56]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04	[그림II-82] 수학 학업성취: 중등	133	[그림III-4]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하위영역 결과	164	[그림IV-2]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교육재정자립도와의 관계	179
[그림II-57]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05	[그림II-83] 영어 학업성취: 중등	134	[그림III-5] 지역별 생존권 지수	165	[그림IV-3]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사회복지예산비율과의 관계	180
[그림II-58] 심각한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06	[그림II-84] 자아존중감	135	[그림III-6] 지역별 발달권 지수	166	[그림IV-4]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180
[그림II-59] 정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107	[그림II-85] 우울 정서	136	[그림III-7] 지역별 보호권 지수	167	[그림 appendix-1] 권리보장환경: 가정	196
[그림II-60] 방임을 경험한 아동	108	[그림II-86] 불안 정서	137	[그림III-8] 지역별 참여권 지수	168	[그림 appendix-2] 권리보장환경: 학교	197
[그림II-61] 나홀로 아동	109	[그림II-87] 공격적 행동	138	[그림III-9] 서울특별시의 아동권리지수	168	[그림 appendix-3] 권리보장환경: 지역사회	198
[그림II-62]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110	[그림II-88] 지위비행 경험	139	[그림III-10] 부산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169	[그림 appendix-4] 권리경험: 생존권	201
[그림II-63] 학교내 체벌 경험	111	[그림II-89] 폭력비행 경험	140	[그림III-11] 대구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169	[그림 appendix-5] 권리경험: 발달권	202
[그림II-64] 학교폭력 가해 경험	112	[그림II-90] 재산비행 경험	141	[그림III-12] 인천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169	[그림 appendix-6] 권리경험: 보호권	203
[그림II-65] 학교폭력 피해 경험	113	[그림II-91] 성비행 경험	142	[그림III-13] 광주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170	[그림 appendix-7] 권리경험: 참여권	205
[그림II-66]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114	[그림II-92] 인터넷 중독 정도	143	[그림III-14] 대전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170	[그림 appendix-8] 발달결과: 건강 및 인지	206
[그림II-67]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115	[그림II-93] 자살 생각	144	[그림III-15] 울산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170	[그림 appendix-9] 발달결과: 사회정서	207
[그림II-68]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116	[그림II-94] 자살시도 계획	145	[그림III-16] 경기도의 아동권리지수	171	[그림 appendix-10] 발달결과: 인성 및 행복	209
[그림II-69] 동아리 활동 참여	117	[그림II-95] 자살 시도	146	[그림III-17] 강원도의 아동권리지수	171		
[그림II-70] 캠페인 활동 참여	118	[그림II-96] 학업 스트레스	147	[그림III-18] 충청북도의 아동권리지수	171		
[그림II-71] 자원봉사 활동 참여	119	[그림II-97] 친구 스트레스	148	[그림III-19] 충청남도의 아동권리지수	172		
[그림II-72]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120	[그림II-98] 가족 스트레스	149	[그림III-20] 전라북도의 아동권리지수	172		
[그림II-73] 정책 활동 참여	121	[그림II-99] 외모 스트레스	150	[그림III-21] 전라남도의 아동권리지수	172		
[그림II-74] 교류 활동 참여	122	[그림II-100] 경제적 스트레스	151	[그림III-22] 경상북도의 아동권리지수	173		
[그림II-75] 아동권리교육 참여	123	[그림II-101] 진로성숙 정도	152	[그림III-23] 경상남도의 아동권리지수	173		
[그림II-76]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27	[그림II-102] 전반적인 인성수준	153	[그림III-24]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권리지수	173		
[그림II-77] 만성질환 유병률	128	[그림II-103] 현재 행복감	154	[그림III-25]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종합결과	174		
[그림II-78] 입원 경험률	129	[그림II-104] 현재 삶의 만족도	155	[그림III-26] 초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17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거시적인 제반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사이버 폭력과 같은 지능화되고 은밀한 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비교 데이터에서도 한국 아동의 권리 보장 환경은 낙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동권리 실현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 자신의 권리 경험 뿐 아니라 권리관련 환경과 발달의 산물 등 총체적인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아동권리 지수로 산출하여 지역별, 학년별 아동권리 보장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여 아동권리 이행 수준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검토의견을 받아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와 아동 인구 감소와 같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 등에 의해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환경이 변화되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와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되었으며,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11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15). 이처럼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거시적인 제반환경은 최근 몇 년 사이 급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의 방임과 학대를 건디다 못해 아동이 탈출한 사건, 학대사망 아동 시신훼손 사건과 같은 심각한 아동학대는 여전히 우리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체적인 학교폭력률은 감소되었다고 하나 사이버 폭력과 같은 지능화되고 은밀한 폭력은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15). 국제비교 데이터에서도 한국아동의 권리보장 환경은 낙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부모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가장 짧으며, 아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5). 이러한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으로 아동의 주관적 행복도는 조사대상국 23개국 중 19위인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염유식·김경미·이은주·이승원, 2015).

이러한 자료들을 근거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들은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동이 실제 삶속에서 체감하는 권리실현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권리 실현 정도는 객관적인 장치의 유무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권리 주체인 아동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삶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 실현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아동권리지표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원이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에서도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 방법의 하나로 아동권리지표 개발 실행을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의 2차 권고 이후 국가적 차원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은 국가적 차원의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처음으로 개발하였는데 의미가 있지만, 개발된 지표를 토대로 실질적인 데이터를 생산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6년 권

리영역별 지표개발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격년으로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 수준을 조사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가보고서 체계에 기초한 도구를 개발하여 초·중고 학생의 권리 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권리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항목들로 구성된 아동권리를 종합적 수준에서 평가하기보다는 개별 지표 항목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 실현의 평가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목표 및 특성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권리지표 및 지수 체계를 개발한다. 아동권리지표 체계는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의 실제적인 권리경험 뿐 아니라 권리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권리경험에 따른 발달결과를 함께 포함하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권리지수 체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기본틀로 하여 생존권에는 영양과 건강 활동을 발달권에는 교육, 여가, 관계를 보호권에는 학대, 폭력을 참여권에는 존중과 참여활동의 요소를 포함한다.

둘째, 개발된 지표를 실질적인 데이터로 생산하기 위하여 지표를 설문문항으로 구성한 후 16개 시·도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그들의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아동권리를 종합적 수준에서 평가하고 지역별·학년별 아동권리 실현 정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동의 개별 지표 데이터를 시·도 단위 및 학년별 지수로 산출하여 이를 비교한다.

넷째, 생산된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과 아동 발달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권리경험이 환경과 아동발달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펴본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아동권리 실현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동 자신의 권리 경험뿐 아니라 권리관련 환경과 발달의 산물 등 총체적인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직접 생산한다. 또한 아동 개인 데이터를 시·도 및 학년별 데이터로 변환하고 지수화하여 지역별 아동권리보장 정도를 비교한다.

II. 아동권리지표 연구



아동권리지표 개발 | 조사방법 | 조사결과

지표는 어떤 현상의 패턴이나 동향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통계적 측정치이다. 지표는 실제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아동 지표는 아동의 삶의 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적 측정치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안전, 보장, 발달, 환경 등의 영역에서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과,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가들에게 아동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아동권리지표 개발

1) 지표의 개념과 기능¹⁾

지표는 어떤 현상의 패턴이나 동향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통계적 측정치이다. 지표는 실제 우리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된다.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지표는 주로 경제 영역에서 쓰이는 것들이다. 경제영역에서의 지표는 재정이나 경제의 동향을 추적 관찰하는데 활용된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의 지표는 일반인들과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며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 상태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경제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면 경제가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지표들은 기업의 투자전략이나 영업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정책을 변경하게 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통계적 지표가 아동이나 가족, 혹은 지역사회의 동향을 표시하는데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동 지표는 아동의 삶의 질의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적 측정치이다. OECD¹⁹⁷⁶의 사회지표의 정의를 차용하면, 아동 지표는 “아동이 사회에서 얼마나 잘 생활하고 발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 관찰하는 직접적이고 타당한 통계적 측정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안전, 보장, 발달, 환경 등의 영역에서 아동들의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일반 대중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아동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표는 크게 1) 상황을 기술(descriptive)하는 기능, 2) 추적관찰하는 기능, 3) 목표를 세우는 기능, 4) 책무성을 부과하는 기능, 5) 평가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Brown and Corbett, 2003}.

아동의 삶의 질과 욕구를 기술함으로써 아동지표는 일반대중과 정책입안자에게 사회에서의 아동 삶의 질의 현황을 알릴 수 있다. 이것은 아동의 상태에 대한 지식을 축적시키는 도구이다. 상황을 기술하는 기능은 활용 가능한 자료를 활용해서 상황을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가령 아동빈곤율 지표를 활용해서 아동빈곤의 시간에 따른 추이와 집단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아동들의 삶의 질 현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빈곤율과 다른 지표들을 함께 사용한다

1) 이 부분은 이봉주(2016)의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의 일정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빈곤율 지표가 단순히 상황을 기술하는 차원에 머문다면 실제로 아동을 돕기 위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추적관찰은 아동의 삶의 질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으로, “아동의 삶이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가?, 변화추세를 유지 또는 역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데 도움을 준다. 추적관찰하는 기능은 지표를 통해 상황을 검토하면서 지표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 정책적 의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국가나 사회에서 아동빈곤율을 모니터링하는 하는 이유는 아동빈곤율의 변화 추이를 검토하면서 아동빈곤율을 낮추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사회적 개입을 통해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이 꼭 필요하다. 계획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 상태와 상황의 과거 궤적을 알아야 한다. 아동지표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지표를 활용한 정책목표는 아주 명확하게 제시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999년 당시 영국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는 2010년까지 영국의 아동빈곤율을 절반으로 낮추고 2020년까지 아동빈곤율 0을 달성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내걸었다. 지표를 활용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목표를 제시한 예이다.

아동 지표는 아동정책을 위한 목표설정의 기반이 된다.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지표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책무성을 부과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아동 정책분야에서 수행 지표들을 사용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은 아동 지표를 책무성 차원에서 사용한 예이다.

아동지표로 제시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보상이나 처벌이 가해진다면 아동지표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보상과 처벌은 일종의 책무성에 대한 추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처벌은 꼭 경제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시도 평가에서 어느 시가 아동빈곤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낮추어 중앙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는다면 이는 경제적인 보상이다. 하지만 꼭 경제적이 보상이나 처벌이 아니더라도 책무성의 추궁은 있을 수 있다. 만약 언론에 아동빈곤율이 최고로 높아진 시도의 명단이 발표된다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시·도들은 질책을 면치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동 복지 분야에서 논리모형을 사용한 프로그램 평가는 평가 분야에서의 아동지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지표를 활용한 평가의 기능은 정책 수단과 지표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지표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수행된 정책이 지표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즉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영향요인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정책의 변화가 지표의 변화로 연결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평가의 기능이다.

2) 선행 권리지표 검토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협약이행 사항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협약이행 사항을 보고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대하여 다각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아동권리지표의 생산에서 획득되어 질 수 있다. 아동권리지표는 그 사회의 아동권리 보장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안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에, 학계를 중심으로 먼저 아동권리지표에 개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한국아동권리학회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아동권리지표 개발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문헌 연구 및 델파이 조사방법 등을 동원하여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였다. 한국아동권리학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권리와 관련한 독자적인 지표를 마련하여 10개의 영역에 227개의 세부지표를 선정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이를 토대로 실제 아동권리지표를 생산하지는 못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협약 이행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신뢰로운 권리지표 개발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권고 이후, 국가적 차원의 권리지표 개발 시도가 이루어졌다^{서문희·안현애·이삼식,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서문희 연구팀²⁰⁰³은 포괄적이고 타당성 있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아울러 개발된 지표에 가용 통계를 시범 적용시켜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권리 수준 및 통계 생산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새롭게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권리경험과 같이 권리주체인 아동이 직접 평가하는 권리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후 2006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종합적인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 인프라의 5개 영역 152개 지표체계를 개발하고, 2009년부터는 통계청의 승인하에 홀수년에 생존권과 보호권을 짝수년에 발달권과 참여권을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

성 기준에 맞추어 기존에 4개 영역으로 조사하던 것을 재구성하여 6개 영역(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130개 지표를 조사하였으며^{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 2014}, 2015년에는 권리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폭력 및 학대^{김영자·김희진·이민희·박선영, 2015} 영역을 추가하여 7개 영역 148개 지표를 조사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있어 객관적 지표 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를 모두 담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여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 기관에서도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동관련 NGO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초·중·고 1,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시간을 관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아동의 권리를 시간 차원으로만 국한시켜 접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차원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나아가 생산된 지표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학년별로 비교함으로써 아동권리지표의 지역격차 및 연령별 격차를 들여다 볼 것이다.

[표 II -1] 국내 아동권리지표 개발 연구 현황

기관	연구과제	조사영역	생산	조사인원
한국 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지표(1999) 한국의 아동지표(2001)	10개 영역(인구, 생명 및 생존, 보건, 보육, 교육, 가족, 사회성 발달, 사회 보장, 경제, 문제행동과 사회적 환경) 227개 지표	×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2003)	8개 영역(인구, 생존과 건강, 가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교육, 사회복지, 특별보호, 문화와 여가) 112개 지표	×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2013~2015)	7개 영역(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 조치) 148개 지표	○ 1년주기	초·중·고 10,453명 (2015년 기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표(2016)	4개 영역(생존, 보호, 발달, 참여) 관련 생활시간 32개 지표	미정	초·중·고 1,000명

3) 아동권리지표 개발 원칙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Moore와 Theokas²⁰⁰⁸가 제시한 좋은 아동지표의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이해하기 쉬우며 신뢰롭고 타당한 지표를 개발한다. 아동지표 개발의 목적 중 하나는 아동의 현 상태를 수치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대중의 관심은 여론을 형성하게 되어 정책입안자들을 압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동권리지표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문헌을 검토하고 실제 지표개발의 자료를 제공할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둘째, 아동권리 경험의 핵심적인 요소와 그 경험의 맥락과 결과를 대표하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아동의 다양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경험에 도달하게 하는 환경적 상황에 대한 고려와 경험을 통해 아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통찰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맥락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아동권리지표에 환경적인 차원, 경험적인 차원, 결과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셋째,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였다. 비행,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은 아동의 문제 상황을 보여주는 부정적 지표이며, 규칙적인 식사, 사회적 능력, 학교만족감 등은 긍정적 지표이다. 과거에는 부정적 지표 위주로 개발되고 조사되었다면, 최근에는 아동의 긍정적인 발달에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아동권리지표에는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넷째, 현재 상태(well-being)를 나타내는 지표와 미래지향적인(well-becoming) 지표간의 균형을 이룬다. 아동 well-being 지표는 현재 아동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의 경험을 강조한다. 주관적 행복감은 대표적인 well-being 지표이다. 이에 비하여 well-becoming 지표는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지표들이다. 가령, 아동의 학업성취는 미래의 인적자본 형성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학업성취는 well-becoming 지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지표를 통해 지수를 산출한다.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는 여러 개의 지표를 가지고 단일지수로 산출시 여러 집단의 비교가 가능하며, 상황에 대한 변화의 방향성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지수를 가지고 하나의 수치로 보여지는 지수화 작업을 할 것이다.

여섯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자 2년 주기로 지속적인 지표와 지수를 생산하고 분석한다. 지표와 지수가 가치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국의 KIDS COUNTS의 경우 1989년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KIDS COUNTS의 보고서는 오랜 시간 축적되면서 그 해의 아동의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화의 흐름도 추적 가능해졌다.

일곱째, 지표와 지수를 아동권리 옹호 활동에 적극 활용한다. 아동권리 옹호의 대표적인 활동은 정책제안이다. 정책제안을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표와 지수는 아동이 한 사회에서 얼마나 잘 생활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치로 아동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4) 아동권리지표 체계 구성

(1) 아동권리지표 틀(frame) 구성

아동권리지표를 생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미흡하거나 침해적인 상황에 대해 환경의 변화를 촉구하며 나아가 아동발달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권리지표의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발달-맥락주의(Developmental contextualism)를 견지하고자 한다. 발달-맥락주의는 인간 발달이 개인의 삶의 다양한 맥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관점이다(Richardson, 2011). 발달-맥락주의에서 인간은 평생에 걸쳐 변화하는 유기체로 환경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 발달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다(Lerner, 1991; 1995).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을 이해하는 데 있어 사회적 맥락과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역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Lerner & Kauffman, 1985).

아동의 사회적 맥락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실제 생활환경으로 대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과의 역동 속에서 경험이 축적되어지고 발달의 결과가 발생되어 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지표의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발달-맥락주의에 근거하여 아동권리를 중심축에 놓고 아동권리 보장의 토대가 되는 '환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권리경험', 그리고 환경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발달' 상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한다. 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동권리지표 체계의 커다란 틀(frame)은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로 구분되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권리보장환경 | 아동의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 권리경험 |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아동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보는 활동 또는 지각
- 발달결과 | 환경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발달적 산물

(2) 아동권리지표의 영역 및 요소 구성

큰 틀에서 아동권리지표 체계를 세웠다면, 다음으로 체계 속에 포함할 세부영역과 이를 구성하는 요소를 선정해야 한다.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가 아동권리지표체계의 전체적인 골조라면, 이 골조에 의해 구체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와 세부지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아동권리 이슈와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만큼 현재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동관련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영역, 요소, 세부지표의 논리적 연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최근의 아동권리 이슈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참고한 자료는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과 2015년 정부에서 발표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에는 우리나라 아동의 우려되는 권리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그동안 파편적으로 시행되었던 아동정책을 관련부처 합동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구성한 것으로 아동의 환경, 경험, 결과에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문제에 대해 언급한 상황을 본 연구의 지표체계 틀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뽑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II-2].

[표 II-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문(2011)에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문제

영역	우려사항
권리보장 환경	22.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 28. 소외계층(다문화이주노동탈북자난민 가정의 아동)의 아동에 대한 차별적 문화
권리 경험	34.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 당사자인 아동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음 40. 학교내 정치활동의 금지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배제 42. 가정, 학교, 대안돌봄 환경에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 44. 아동학대의 발생의 증가 57.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62. 학업에 대한 극심한 부담과 과도한 사교육 62. 또래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 증가 71 a. 아동 성폭력의 급증과 높은 음란물 소비

영역	우려사항
발달 결과	30. 심각하게 높은 아동 자살률 55. 여아의 우울증 비율 증가 57. 아동비만을 증가 57. 아동과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율 증가 57. 아동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 58. 청소년 임신율과 낙태율이 높음 62. 높은 학업스트레스 수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국가보고서를 검토 한 후 1차, 2차, 3-4차 권고문을 작성하였는데, 이중 가장 최근의 권고문인 3-4차 권고문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비롯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 아동학대 및 체벌, 아동의견 존중, 아동 정신건강 문제, 아동 성문제 등을 우려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아동기가 생애주기 중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 마련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발달주기별, 분야별 아동권리 침해 요인들을 진단하고 해소전략을 마련하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제기된 아동권리 관련 문제를 본 연구의 지표 체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 II-3]와 같다.

[표 II-3]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제기된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문제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
- 빈곤 -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 여성경제활동의 증가 - 청소년유해업소 증가	- 수면시간 부족 - 놀이 및 여가 생활의 박탈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문제 - 나홀로 아동 증가 - 지능화되고 은밀한 학교폭력 증가	- 비만 문제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수준 심각 - 우울/스트레스 위험 수준 - 비행 - 낮은 행복도

이와 같이 요소와 세부지표 선정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공식적인 문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아동권리 이슈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요소와 세부지표의 이론적인 타당성을 담보하고자 선행연구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각 영역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권리보장환경의 영역 및 요소

권리보장환경의 영역은 아동의 실제적인 생활환경이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1970년대 중반, 아동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할 때 생태적 맥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사회적 지표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 이때 Brim¹⁹⁷⁵의 연구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지표들이 소개되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적 지표들을 구분하고 있다(Lippman, 2007).

가정은 가장 근거리에서 아동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환경요인이다(이봉주, 2012). 가정 내 소득이나 자산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가족형태인 구조적 환경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나 양육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환경 역시 아동 발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변호순·최정균, 2016; 이해승·이순형, 2003; 최정미·우희정, 2004). 또한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의’와 ‘식’이 이루어지는 ‘주’ 환경 역시 중요하다(임세희·이봉주, 2009). 불결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신체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Harker, 2006; Vandivere et al., 2006), 주거 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소음, 냉난방, 안전의 측면에서 주거의 질이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스트레스, 우울 수준이 높고 학업성취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이상록, 2011; Bonnefoy, 2007; Evans, 2006; Gomez-Jacinto & Hombrados-Mendieta, 2002).

다음으로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환경이다. 학교생활은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 또래 등 사회적 관계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에 도움을 준다. 이처럼 아동이 학교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의 고유한 분위기나 문화적 특성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 될 수 있다(Cohen, McCabe, Michelli, & Pickeral, 2009). 가령,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학업을 중요시하는 학교 분위기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Lee, Smith, & Croninger, 1997, 협력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동체 의식 형성에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 풍토는 타인을 배려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권대봉·허선주·김재현, 2013). 학교의 문화적 환경 뿐 아니라 학교시설과 같은 물리적 공간 역시 아동의 권리보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사에 의하면, 학교시설의 냉난방 시설, 녹지공간 등 쾌적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시설적 측면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철린·김좌진·신병환·김중수, 2003; 윤용한·박승환·김원태·김정호, 2014). 김혜영과 윤우석의 연구²⁰¹⁵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교환경에 대한 무질서 인식이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흡연, 음주,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 증가와도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통적인 연구는 아동의 최근접 생활환경인 가정과 학교에 주목하였다면, 최근의 연구는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역사회의 교통사고, 범죄관련 안전 정도는 아동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며,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지저분한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이 아동의 정신건강과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강희경·김영미·이은주, 2009; 김영미, 2008; Calvert, 2002). 지역사회의 물리적인 환경과 더불어 인식적 환경 역시 여러 측면에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 아동학대 발견율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 아동학대율이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고 아동학대 신고의 효과성을 신뢰하는 경우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져 학대 발견율이 높아지는 것일 수 있다. 일련의 연구들에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행동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신고인식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정·신혜령, 2013; 강상·유수정, 2014).

이처럼, 가정환경, 학교환경, 지역사회환경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각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요소로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혹은 인식적 환경을 포함되어야 하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의 요소로 경제적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을 비롯하여 물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주거시설, 부모 행복감, 양육스트레스 등의 부모의 심리적 요인들을 가정환경의 요소로 설정하였다. 학교환경의 요소는 학교의 문화적 환경인 학교풍토와 학교시설의 쾌적성 등을 나타내는 학교시설을 포함하였다. 지역사회환경의 요소 역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과 인식적 환경의 요소가 포함 될 수 있도록 안전, 무질서, 시설 및 기관, 아동학대 및 권리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세부지표는 다음의 [표 II-4]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II-4] 권리보장환경의 영역, 요소, 세부지표

영역	요소	지표
가정	소득	- 가구소득
	주거시설	- 주거 안전성 - 주거 쾌적성
	부모(보호자)	-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 - 부모(보호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학교	학교시설	- 등·하교 편의성 - 학교시설 쾌적성 -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영역	요소	지표
학교	학교풍토	- 학교내 의견 존중 분위기 -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 학교내 비차별 문화
지역사회	안전	- 범죄 안전 - 교통사고 안전 - 식품 안전
	무질서	- 물리적 무질서* - 사회적 무질서*
	시설 및 기관	- 병원 이용 편의성 - 도서관 이용 편의성 - 놀이터 이용 편의성 - 공원 이용 편의성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신고인식 : 아동의 장래 도움 - 아동학대 신고인식 :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 아동학대 신고인식 : 학대감소 효과 기대 - 가벼운 신체 학대 인식 -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 인식 - 심각한 신체 학대 인식 - 정서 학대 인식 - 방임 인식
아동권리 인식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부모, 아동) - 아동권리 인식(부모, 아동)	

*는 부정적 지표를 의미함

② 권리경험의 영역 및 요소

아동의 권리경험에 대한 하위영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의 의미에 대하여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부여된 권리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보편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 역시 인간으로 권리 향유의 주체자이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아동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 근대이전의 시대에는 아동을 성인의 소유물이나 노동력 제공자 정도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인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사회는 아동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22년 Save the Children Fund의 애글랜타인 잭 여사(Eglantyne Jabb)에 의해 아동권리선언 발표로 이어졌고, 이는 이후에 1959년 UN 아동권리선언으로 발전하였다(서문화·안현애·이상식, 2003). 그리고 1989년 '세계아동의 해' 선포 10주년을 기념하여 UN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아동권리가 선언적인 차원이 아닌 국제법상 지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의 탄생배경, 가치, 정신을 담은 전문과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책무, 관련절차를 담고 있는 5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40조는 실제적인 아동의 권리를 소개하고 있고 41조는 협약의 법적 효력, 42~45조는 협약의 홍보와 이행, 46~54조는 협약의 비준에 관한 조항들이다. 이중 실제적인 아동권리를 명시한 조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II-5]와 같다.

[표 II-5]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별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조항	내용
1	아동의 정의	21	입양시 고려해 하는 사항
2	비차별 원칙	22	난민아동의 권리
3	아동이익의 최우선적 고려	23	장애아동의 권리
4	국가의 의무	24	건강 및 의료서비스
5	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25	가정의 보호아동의 권리
6	생존과 발달권	26	사회보장 제도의 혜택을 누릴 권리
7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27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
8	신분보장에 대한 권리	28	교육을 받을 권리
9	부모와 함께 살 권리	29	교육의 목표
10	가족 재결합	30	소수민족 아동의 권리
11	아동을 다른 나라로 강제이송 하는 것을 금지	31	여가, 놀이, 문화활동의 권리
12	아동의견에 대한 존중 및 의사표현 기회 제공	32	아동 노동으로부터 보호
13	표현의 자유	33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14	사상, 양심의 자유	34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
1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5	아동에 대한 유괴, 매매로부터 보호
16	사생활 보호	36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
17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37	고문, 구금, 처벌 금지
18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부모의 책임	38	전쟁으로부터 보호
19	모든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39	모든 형태의 폭력, 착취, 무력분쟁의 피해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
20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	40	공정한 재판과 대우를 받을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미국을 제외한 유엔가입국 196개국이 비준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국제조약으로 보편성이 인정되면서 아동권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협약에서는 아동권리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후 1991년에 개최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회의에서 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시 지침이 될 수 있는 영역(cluster)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아동권리 연구가들과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옹호사업을 펼치는 기관들에 의해 아동권리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이를 구분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8개의 영역은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이다. UNICEF는 협약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를 생존권(Survival rights), 발달권(Development rights), 보호권(Protection rights), 참여권(Participation rights)의 4가지로 범주화하였으며, DCI(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공 할 권리(Provision),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Protection),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권리(Participation)의 3Ps를 제안하였다(Lurie, 2003).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이해가 쉽고 직관적인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UNICEF의 권리 분류 방법을 도입하여 권리경험을 생존권 경험, 발달권 경험, 보호권 경험, 참여권 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영양공급, 의료혜택 등의 권리를 말한다. 발달권은 아동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능력과 수준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발달권에는 아동의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해 놀이와 여가를 즐기고 문화활동에 참여 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보호권은 아동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 문화, 상황으로 부터의 보호를 의미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반대하며 모든 아동은 폭력, 학대, 유기, 착취, 전쟁 등에 대한 보호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참여권은 아동이 본인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권리,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참여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유익한 정보에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 과거 아동의 참여권은 인정되지 않거나 부모가 대신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향후 가장 주목받는 권리가 될 것이다(이용교·황옥경·김영자·김형욱·이중섭,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존권 경험으로 영양 및 건강활동을, 발달권 경험으로 교육, 여가 및 관계를, 보호권 영역에는 학대와 폭력을, 그리고 참여권 경험에는 존중과 참여활동의 요소를 설정하였다. 권리경험의 세부영역과 요소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부지표는 다음 [표II-6]와 같다.

[표 II -6] 권리경험의 영역, 요소, 세부지표

영역	요소	지표
생존권	영양	- 식품미보장* - 인스턴트 식품 섭취* - 규칙적인 식사 - 신선한 채소 섭취
	건강 활동	- 건강검진 - 수면 시간이 부족한 아동* - 격렬한 신체활동 - 가벼운 신체활동
발달권	교육	- 학교생활 만족도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여가	- 놀이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 가족과의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정도
	관계	-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보호권	학대	-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중간 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심각한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정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 - 나홀로 아동* -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 학교내 체벌 경험*
	폭력	- 학교폭력 가해 경험* - 학교폭력 피해 경험* -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참여권	존중	-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참여	- 동아리 활동 참여 - 캠페인 활동 참여 - 자원봉사 활동 참여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 정책 활동 참여 - 교류 활동 참여 - 아동권리교육 참여

*는 부정적 지표로 아동권리지수 산출 시 역채점하여 산출함.

③ 발달결과의 영역 및 요소

인간의 발달영역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사회·심리적 영역으로 구분한다(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발달결과는 일반적인 발달 영역의 구분에 따라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 발달과 최근 발달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행복과 인성을 포함하였다[표II-7]. 그리고 이중 신체적 발달은 체중, 키와 같이 발육상태보다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신체적 안녕 상태를 나타내고자 '건강'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Wagsstaff¹⁹⁹¹에 따르면 건강이 개인의 안녕(well-being)에 가장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이광욱·윤희상, 2001, 재인용), 특히, 아동기는 이후 성인기 건강한 삶의 이행에 중

요한 조건이 된다(Khang & Lynch, 2011). 또한 질병이나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단순히 신체적인 불편함과 고통에 그치지 않고 능력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안진상·김희정, 2013). 이처럼 아동기 건강한 발달을 이루는 것은 현재와 미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아동의 건강 상태는 아동의 현재 질병유무, 체질량지수와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동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로도 평가할 수 있다(석민현·오원옥, 2002; 이자형·이기혜, 2015; 안진상·김희정, 2013).

다음으로 아동기 인지발달 역시 개인의 미래의 사회·경제적 복리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이다(김광혁, 2010). 인지발달은 지각, 기억, 사고, 지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통해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기도 한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인지능력의 하나인 지능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높은 예측력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 인지발달은 가구의 소득, 부모의 학력 등 가정내 환경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험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김현숙, 2013).

또한 아동기 사회적 관계는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해결 전략, 문제해결 능력 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아동기는 또래관계의 질과 내용이 사회정서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래의 평가를 통해 자아개념이 형성되기도 하며, 또래와의 갈등, 학교폭력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스트레스, 우울, 비행,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엽·정윤경, 2007; 김지영·이형실, 2010; 우체영·박아청·정현희, 2010; 윤명숙·조혜정, 2008; 최창용·이주연·신유미, 2015). 아동기 사회정서발달은 다른 발달 영역과 마찬가지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가령,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학교생활에 부적응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학업성취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김선숙·고민선, 2007; 박성혜·윤종희, 2013).

사회정서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의 사회정서발달과 부정적 측면의 사회정서발달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 긍정적 측면의 사회정서발달의 대표적인 요인은 자아존중감이다. 그리고 부정적 측면의 사회정서발달은 우울, 불안, 공격성, 스트레스이다. Achenbach 와 Edelbrock¹⁹⁸³의 경우 부정적 측면의 사회정서발달을 내면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s)와 외현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s)로 구분하였다. 내면화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 할 때 외로움, 우울, 두려움, 불안 등의 자기지향적인 문제들을 가져오는 것을 말하며, 외현화 문제는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공격성, 과잉행동, 충

동성, 비행 등 외부로 명확하게 나타난다(김정검·강영석, 2015).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서발달의 나타내는 요소로 자아존중감을 비롯하여 내면화 측면의 우울과 불안, 외현화 측면의 공격성, 비행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3-4차 권고문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우려사항으로 지적한 인터넷 중독, 자살, 스트레스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이를 사회정서발달 영역에 포함하였다.

한편, 우리사회는 아동의 낮은 행복 수준과 진로발달, 인성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이 비교 국가의 아동보다 행복도가 낮음을 문제로 지적하며, 2025년까지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5). 또한 아이들의 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교육환경에 대한 반성으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어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모색하고 있다. 인성의 경우, 학교폭력과 같은 아동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표면화되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2015년에는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발달 상황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진로발달, 행복, 인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II -7] 발달결과의 영역, 요소, 세부지표

영역	요소	지표
건강	주관적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객관적 건강	- 만성질환 유병률* - 입원 경험률*
인지	학업성취	- 전반적인 학업성취 - 국어 학업성취 - 수학 학업성취 - 영어 학업성취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인터넷 중독 자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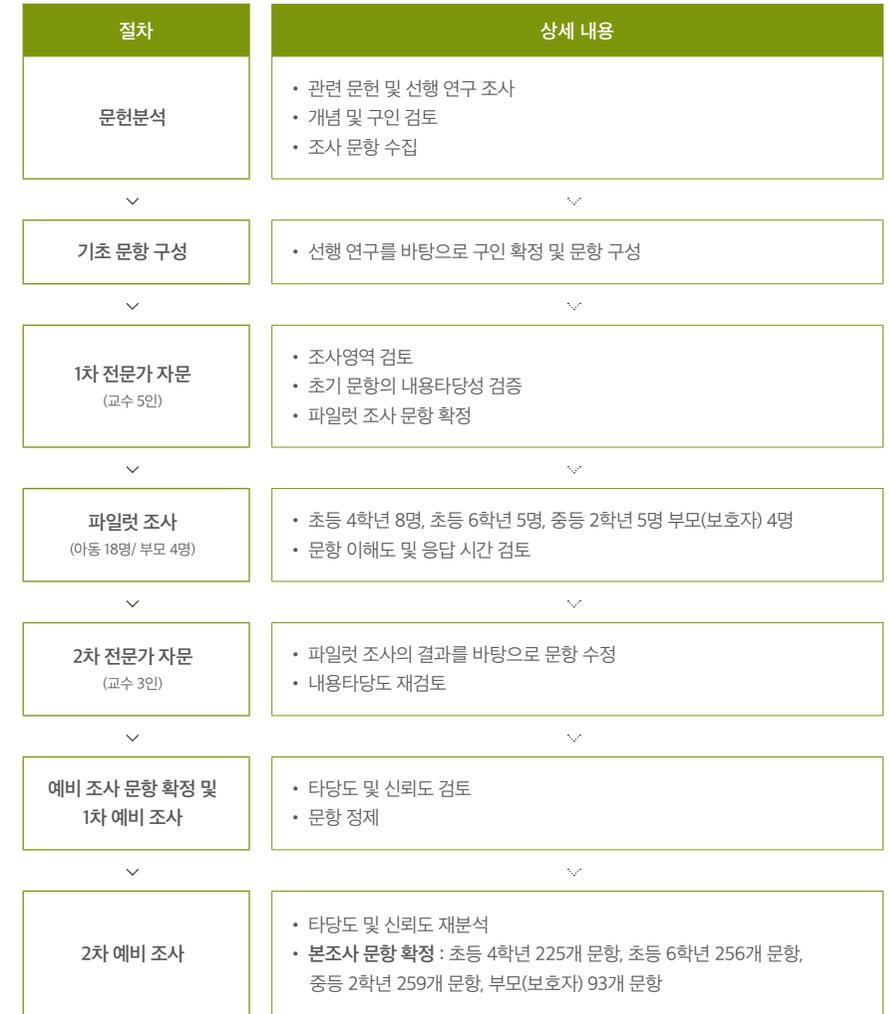
영역	요소	지표
사회정서	스트레스	- 학업 스트레스* - 친구 스트레스* - 가족 스트레스*
	진로발달	- 외모 스트레스* - 경제적 스트레스*
인성	인성	- 진로성숙 정도
행복	주관적 행복감	- 전반적인 인성 수준
	삶의 만족도	- 현재 행복감 - 현재 삶의 만족도

*는 부정적 지표를 의미함

2. 조사방법

1) 설문문항의 구성

아동권리지표 체계 구성을 통해 기본적인 틀과 세부적인 영역, 요소, 지표들이 선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세부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설문문항을 만들어야 한다. 설문문항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규모로 실시되는 조사들과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조사 문항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다양한 자료를 통해 기초문항을 구성하고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1차 사전조사인 파일럿 문항을 확정하였다. 파일럿 조사는 응답시간, 문항의 이해정도, 문항의 모호성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학년별 초 4학년 8명, 초 6학년 5명, 중 2학년 5명 및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파일럿 조사에서 문항의 의미를 다중적으로 이해하거나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문항을 수정하였으며, 문항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는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본 조사의 응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소규모 파일럿 조사 이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재검토 받고 예비 조사문항을 확정하였다. 예비조사는 총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고 문항을 다시 한 번 정제하여 본 조사 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설문문항 확정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II-1]과 같다. 또한 전체 조사 항목을 [표II-8]에 제시하였으며, 각 조사대상별 조사항목과 항목의 출처를 [표II-9]와 [표II-10]에 정리하였다.



[그림 II-1] 설문문항 구성 과정

[표 II -8] 전체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아동 조사항목	부모(보호자) 조사항목
권리보장 환경	가정	-	인구사회학적 배경, 주거시설, 부모(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학교	학교시설, 학교풍토	-
	지역사회	아동학대 신고 인식, 아동권리 인식	안전, 무질서, 시설 및 기관,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 인식, 아동권리 인식
권리 경험	생존권 경험	규칙적인 식사와 양질의 식품섭취, 신체활동, 건강검진, 수면	식품미보장
	발달권 경험	학교생활 만족도, 방과 후 생활, 놀이 및 여가, 부모(보호자)-자녀 관계, 교사관계, 또래관계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및 참여, 가족여가
	보호권 경험	학대(신체, 정서), 방임, 성학대 및 성폭력, 학교내 체벌,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나홀로 아동
	참여권 경험	의사존중, 참여활동, 아동권리교육	-
발달 결과	건강	주관적 건강, 체형인식 및 만족	객관적 건강
	인지	학업성취	-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인터넷 중독, 스트레스, 자살, 진로발달	-
	인성	인성	-
	행복	주관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

[표 II -9] 아동 조사항목의 출처

대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인구사회학적 배경(생년월/성별)	연구자	2	2	
권리보장 환경	학교	학교시설	이재연·홍승애(2014)	3	3	
		학교풍토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7	7	
	지역사회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4	4	
		아동권리 인식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4	4	
권리 경험	생존권	규칙적인 식사와 양질의 식품섭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연구자	3	3	
		신체활동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2	2	
		건강검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1	1	
		수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연구자	2	2	
	발달권	학교생활 만족도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연구자	3	3	
		방과 후 생활	연구자	5	5	
		놀이 및 여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연구자	4	4	
		부모(보호자)-자녀관계	PBI, Parker et al.(1979), 송지영(1992)	10	10	
		교사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3	3	
	보호권	학대(신체, 정서), 방임	학대(신체, 정서), 방임	Straus et al.(1998),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16	16
			성학대 및 성폭력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3	3
			학교내 체벌	연구자	1	1
		학교폭력	서미정(2006)	14	14	
사이버폭력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4	4		
참여권		의사존중	연구자	5	5	
	참여활동	연구자	9	9		
	아동권리교육	연구자	1	1		

대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초4	초6,중2
발달 결과	건강	주관적 건강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	1
		주관적 체형인식 및 만족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연구자	2	2
		객관적 건강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1	1
	인지	학업성취	연구자	1	4*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8	8
		우울	Radloff(1977), 전경구 외(2001)	7	7
		불안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6	6
		공격성	한국아동·청소년패널	6	6
		비행	한국아동·청소년패널	4	14
		인터넷 중독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8	8
		자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0	3
		스트레스	아동종합실태조사	5	5
	인성	진로발달	정익중 외(2011)	0	14
		인성	정창우 외(2013), 이인재 외(2014), 현주 외(2014), 지은림 외(2012), 천세영 외(2011)	49	49
		인성 관련 변수	정창우 외(2013), 연구자	8	8
행복	주관적 행복감	OECD(2013)	1	1	
	삶의 만족도	OECD(2013)	1	1	
문항수				225	259

* 초6과 중2는 설문문항은 학업성취 문항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초6은 학업성취 문항이 1개이며, 중2는 4개이다.

[표 II -10] 부모(보호자) 조사항목의 출처

대영역	소영역	조사 항목	출처	문항수
권리보장 환경	가정	인구사회학적 배경	연구자	6
		주거시설	한국복지패널	5
		부모(보호자)의 삶의 만족도, 행복감	OECD(2013)	2
		양육스트레스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5
		양육효능감	최형상·정옥분(2001)	11
	지역사회	안전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3
		무질서	Ross & Mirowsky(1999), 이재연·홍승애(2014)	9
		시설 및 기관	이재연·홍승애(2014), 연구자	4
		아동학대 및 신고인식	아동학대실태조사(2011), 홍순옥·이옥경(2010)	23
		아동권리 인식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 IV(2014), 연구자	4
권리 경험	생존권	식품미보장	김기량·김미경(2009)	3
	발달권	교육적 관심 및 참여	안우환(2006)	8
		가족여가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5
	보호권	나홀로 아동	아동종합실태조사(2013)	2
발달결과	건강	객관적 건강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3
문항수				93

2) 조사과정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16개 시도²⁾에 거주하는 아동과 부모(보호자)를 표집하기 위해 학교를 기반으로 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표집하고자 하는 조사대상은 10~11세 아동, 12~13세 아동, 14~15세의 아동으로 이는 초 4학년, 초 6학년, 중 2학년 학생에

2) 우리나라 전국 행정구역은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외부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과 기존의 거주민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수집된 표본은 서로 간에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데이터로써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조사 분석에서는 16개 시·도의 데이터만 사용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료는 참고를 위해 부록으로 실었다.

해당한다. 조사규모는 학년별 각 3,000명씩 총 9,000명이며 부모(보호자) 역시 학년별 각 3,000명씩 총 9,000명이다. 표본은 지역별, 학급별에 따른 비례층화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추출하였다. 부모(보호자)는 학생과 동일한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표 II-11]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초등학교 4, 6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부모(보호자)
조사지역	16개 시도
조사방법	우편조사
표본크기	학생 : 9,000명(초 4, 초 6, 중 2 각 3,000명) 부모(보호자) : 9,000명(초 4, 초 6, 중 2 각 3,000명)
표본추출방법	지역별, 학급별에 따른 비례층화 표본추출방법
조사기간	2016년 6월 ~ 2016년 7월

(2) 표본추출

본 연구는 표본을 추출하고자 2015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의 초·중등 학생현황을 토대로 모집단을 파악하였다. 2015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초 4학년 학생 수는 420,031명, 초 6학년 수는 473,120명, 중 2학년 학생 수는 526,890명이다. 모집단 학생 수와 각 학년별 전국 학급수를 고려하면, 초 4학년은 한 학급당 평균 23.5명, 초 6학년은 23.8명, 중 2학년 30.3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목표 샘플 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초 4학년과 6학년 130개 학교, 중 2학년은 100개 학교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표 II-12]). 하지만, 소규모 학교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조사대상 학교 수는 초등학교 139개교, 중학교 119개교로 선정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교 수를 파악한 후 16개 시도 지역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6개 시도 학교의 조사표본 수는 다음 [표 II-13]와 같다.

[표 II-12] 모집단에 근거한 학교표본 수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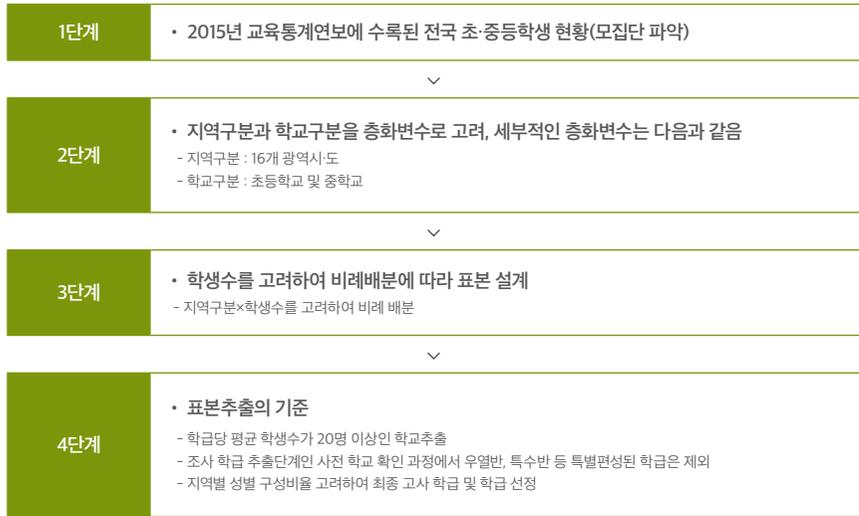
구분	전국 학생 수	학급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조사에 필요한 최소 학교 수
초 4학년	420,031	17,876	23.5	130
초 6학년	473,120	19,890	23.8	130
중 2학년	526,890	197,399	30.3	100

[표 II-13] 지역별 학교표본 수

(단위: 개)

구분	초등학교 조사학교 수	중학교 조사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조사학교 수	중학교 조사학교 수
서울	23	20	강원	4	3
부산	8	7	충북	4	4
대구	7	6	충남	6	5
인천	8	7	전북	5	5
광주	5	4	전남	5	4
대전	5	4	경북	7	6
울산	3	3	경남	10	8
경기	37	31	제주	2	2
강원	4	3	합계	139	119

지역별 학교 샘플링 리스트를 구축하면서 조사학교는 단순무작위로 추출하였다. 단, 무작위로 추출된 학교 중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선정 학교 확인 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 편성된 학급은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성별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최종 조사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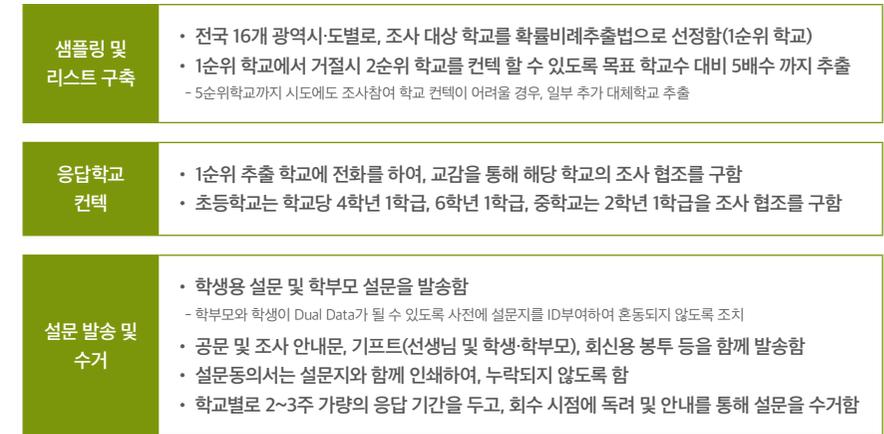
[그림 II-2] 표본추출 과정

(3) 본 조사 과정

최종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의 교감과 담당 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조사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1순위로 선정된 학교에서 조사 참여를 거절할 경우를 대비하여 목표학교 수 대비 5배수 까지 표본을 추출하였다.

학교 연락단계에서 조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이후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학교의 담임교사에 설문지를 우편발송 하였다. 우편조사는 조사원이 현장에 직접방문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가 설문지에 대한 응답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안내문과 보호자용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하여 설문지와 함께 첨부하였다. 또한 아동의 설문지와 부모(보호자)의 설문지가 매칭이 되도록 개별 봉투 사용과 설문지 첫 장에 식별 아이디를 부여하였다. 설문지를 받은 학교의 담임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용과 부모(보호자)용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학생용 설문지는 학교에서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만일 학교에서 설문을 작성하는 시간이 여의치 않은 경우 가정에서 작성한 후 다시 학교로 가져오도록 하였다. 보호자용 설문지는 학생이 보호자에게 전달하면 보호자가 가정에서 작성 한 후 학교에 보내 수거하도록 하였다. 학생용과 부모(보호자)용 설문지가 모두 수거되면, 담임교사가 설문지를 조사기관에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학생용 설문지는 초등용과 중등용의 2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조사 실시결과, 초 4학년과 초 6학년은 총 139개 학교에서 각각

4,331명, 4,13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중학교는 119개 학교 4,46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림 II-3] 본 조사 과정

3) 유효 데이터 추출 방법

수거된 설문은 무응답 문항과 로직 오류 문항 등을 확인하고 아동과 부모가 매칭이 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동의서에 서명이 없는 설문 등은 폐기하였다. 각 지역별 설문지 수거현황을 파악하여 폐기된 설문지가 많은 학교는 대체 표본을 활용하여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외 이상이 없는 설문지는 데이터 편칭 및 코딩을 진행하였다.

초 4학년은 4,331명, 초 6학년은 4,133명, 중 2학년은 4,463명의 설문지가 회수 되었으며(C), 설문지 폐기 과정 후 실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친 설문지는 초 4학년은 3,705명, 초 6학년은 3,813명, 중 2학년은 4,166명이었다(D). 입력 데이터의 권역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서울, 대구 등 특정 지역이 과대표집 되고, 경기, 경북 지역은 과소표집 되었다(E). 따라서 가중치 적용 전 실제 권역별 모집단 비율과 유사한 비율이 되도록 권역별 표집을 조정하였다(F). 이때 불성실한 응답이 많은 샘플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다. 조사 대상 별 설문지 회수 및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는 [표II-14], [표II-15], [표II-16]에 제시하였다.

[표 II -14] 초 4학년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 (단위: 명, %)

구분	A	B	C	D	E	F	G
	예상 학생 수	예상 학생 수 권역별 비율	최종 회수 현황	데이터 처리 현황	데이터 처리 후 권역별 비율	권역별 비율 불성실 응답 샘플 제외 후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541	16.5	1,075	861	23.2	505	17.0
부산	188	5.7	317	229	6.2	185	6.2
대구	165	5.0	295	271	7.3	160	5.4
인천	188	5.7	225	231	6.2	188	6.3
광주	118	3.6	223	145	3.9	118	4.0
대전	118	3.6	218	173	4.7	118	4.0
울산	71	2.2	104	87	2.3	87	2.9
경기	870	26.6	715	688	18.6	688	23.2
강원	94	2.9	134	105	2.8	92	3.1
충북	94	2.9	137	108	2.9	92	3.1
충남	141	4.3	185	175	4.7	141	4.7
전북	118	3.6	216	161	4.3	125	4.2
전남	118	3.6	97	90	2.4	90	3.0
경북	165	5.0	149	144	3.9	144	4.8
경남	235	7.2	205	201	5.4	201	6.8
제주	47	1.4	36	36	1.0	36	1.2
총합	3,271	100.0	4,331	3,705	100.0	2,970	100.0

[표 II -15] 초 6학년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 (단위: 명, %)

구분	A	B	C	D	E	F	G
	예상 학생 수	예상 학생 수 권역별 비율	최종 회수 현황	데이터 처리 현황	데이터 처리 후 권역별 비율	권역별 비율 불성실 응답 샘플 제외 후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547	16.5	891	804	21.1	510	17.2
부산	190	5.7	217	261	6.8	180	6.1
대구	167	5.0	273	256	6.7	160	5.4
인천	190	5.7	221	223	5.8	184	6.2
광주	119	3.6	206	166	4.4	115	3.9
대전	119	3.6	250	185	4.9	115	3.9
울산	71	2.1	113	105	2.8	65	2.2
경기	880	26.6	711	678	17.8	678	22.8
강원	95	2.9	141	102	2.7	92	3.1
충북	95	2.9	154	135	3.5	92	3.1
충남	143	4.3	195	200	5.2	135	4.5
전북	119	3.6	200	141	3.7	110	3.7
전남	119	3.6	121	124	3.3	110	3.7
경북	167	5.0	160	158	4.1	160	5.4
경남	238	7.2	246	241	6.3	230	7.7
제주	48	1.5	34	34	0.9	34	1.1
총합	3,307	100.0	4,133	3,813	100.0	2,970	100.0

[표 II -16] 중 2학년 데이터 처리 현황 결과 (단위: 명, %)

구분	A	B	C	D	E	F	G
	예상 학생 수	예상 학생 수 권역별 비율	최종 회수 현황	데이터 처리 현황	데이터 처리 후 권역별 비율	권역별 비율 불성실 응답 샘플 제외 후 현황	최종 샘플의 권역별 비율
서울	606	16.8	739	738	17.7	500	16.8
부산	212	5.9	429	255	6.1	175	5.9
대구	182	5.0	238	253	6.1	150	5.0
인천	212	5.9	255	241	5.8	175	5.9
광주	121	3.4	114	111	2.7	100	3.4
대전	121	3.4	184	160	33.8	100	3.4
울산	91	2.5	84	83	2.0	75	2.5
경기	939	26.1	1,017	966	23.2	775	26.1
강원	91	2.5	133	128	3.1	75	2.5
충북	121	3.4	180	166	4.0	100	3.4
충남	151	4.2	206	179	4.3	125	4.2
전북	151	4.2	151	148	3.6	125	4.2
전남	121	3.4	148	145	3.5	100	3.4
경북	182	5.0	245	231	5.5	150	5.0
경남	242	6.7	266	289	6.9	200	6.7
제주	61	1.7	74	73	1.8	50	1.7
총합	3,604	100.0	4,463	4,166	100.0	2,975	100.0

4) 가중치 적용

본 연구에서 수집된 샘플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자료가 되기 위해서 조사된 학생의 시도별, 학교별, 성별 비율과 실제 모의 비율간의 간극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광역시·도별 조사된 학생 수를 근거로 모수를 추정한 후 각 학교별 해당 학년 모수만큼 가중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광역시·도별 총 학교 수 만큼 조

사된 학교수를 가중하였다. 학생 수와 학교 수를 토대로 가중치가 적용된 후 추정된 모수가 실제 모수와 차이가 발생하여 그 간극을 보정하는 3단계 작업을 하였다. 예를 들어 예시 A 지역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수가 70,000명이고, 추정된 모수가 69,950명이면, 70,000/69,950 만큼 보정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작업에서 보정된 모수의 성비가 실제 모집단의 성비와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정하였다.

3.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년, 성별, 지역, 부모 설문지의 응답자, 주양육자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I-17]와 같다.

첫째, 설문지에 응답한 아동의 학년은 초 4학년, 초 6학년이 각 33.3%(2,970명), 중 2학년은 33.4%(2,975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성별은 여학생이 53.3%(4,754명), 남학생이 46.7%(4,161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 및 부모(보호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가 25.5%(2,275명), 서울 15.9%(1,417명), 경남 6.9%(618명), 인천 5.8%(515명), 부산 5.6%(501명), 대구 4.9%(434명), 경북 4.7%(423명), 충남 4.6%(414명), 전북 4.0%(353명), 광주 3.9%(347명), 전남 3.6%(319명), 대전 3.5%(315명), 충북 3.4%(300명), 강원 3.3%(295명), 울산 2.4%(210명), 제주 2.0%(178명)로 나타났다.

넷째, 설문지에 응답한 보호자는 어머니가 83.5%(7,4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14.6%(1,298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각 0.6%(52명), 0.2%(20명)으로 나타났고, 기타 응답은 0.5%(42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주양육자는 어머니가 85.7%(7,6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가 10.7%(955명)로 그 뒤를 이었다. 할머니는 2.4%(211명), 할아버지는 0.1%(11명), 기타는 0.3%(30명)으로 나타났다.

[표 II-1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구분	응답자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학년	초 4학년	2,970	33.3	지역	서울	1,417	15.9
	초 6학년	2,970	33.3		부산	501	5.6
	중 2학년	2,975	33.4		대구	434	4.9
성별	남학생	4,161	46.7		인천	515	5.8
	여학생	4,754	53.3		광주	347	3.9
응답자	어머니	7,445	83.5		대전	315	3.5
	아버지	1,298	14.6		울산	210	2.4
	할머니	52	0.6		경기	2,275	25.5
	할아버지	20	0.2		강원	295	3.3
	기타	42	0.5	충북	300	3.4	
	무응답	58	0.7	충남	414	4.6	
	주양육자	어머니	7,636	85.7	전북	353	4.0
		아버지	955	10.7	전남	319	3.6
할머니		211	2.4	경북	423	4.7	
할아버지		11	0.1	경남	618	6.9	
기타		30	0.3	제주	178	2.0	
무응답		72	0.8	전체	8,915	100.0	

2)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연령, 학년, 직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II-18]와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은 40대가 72.1%(6,42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가 17.5%(1,560명), 50대는 5.3%(469명), 60대 이상은 0.1%(112명)이었다.

둘째, 아버지의 연령은 40대가 71.0%(6,326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4.2%(1,265명), 30대 이하 6.0%(540명), 60대 이상이 0.4%(32명)이었다.

셋째,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36.0%(3,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1.8%(2,835명), 전문대학 졸업이 20.3%(1,806명), 대학원 이상이 5.3%(469명), 중학교 졸업이 1.0%(92명), 초등학교 졸업 이하 0.5%(39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35.0%(3,122명), 고등학교 졸업이 30.3%(2,703명), 전문대학 졸업이 14.4%(1,287명), 대학원 이상이 10.4%(929명), 중학교 졸업이 1.0%(94명), 초등학교 졸업이 0.3%(30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가정주부 38.3%(3,409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문직 17.6%(1,573명), 기술직 및 사무직 15.2%(1,353명), 자영업 8.8%(784명), 판매서비스직 6.8%(611명), 단순노무직 3.7%(333명), 기능직 2.0%(176명), 경영관리직 1.4%(1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아버지의 직업은 기술직 및 사무직이 34.0%(3,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 20.8%(1,851명), 전문직 16.8%(1,501명), 기능직 6.2%(548명), 경영관리직 5.4%(481명), 판매서비스직 3.7%(328명), 단순노무직 2.7%(239명), 무직/가정주부 1.1%(10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18] 부모(보호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어머니		아버지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부모(보호자) 연령	30대 이하	1,560	17.5	540	6.0
	40대	6,425	72.1	6,326	71.0
	50대	469	5.3	1,265	14.2
	60대 이상	112	0.1	32	0.4
	무응답	449	5.0	753	8.4
부모(보호자)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39	0.5	30	0.3
	중학교 졸업	92	1.0	94	1.0
	고등학교 졸업	3,205	36.0	2,703	30.3
	전문대학 졸업	1,806	20.3	1,287	14.4
	대학교 졸업	2,835	31.8	3,122	35.0
	대학원 이상	469	5.3	929	10.4
무응답	468	5.3	751	8.4	

구분	어머니		아버지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부모(보호자) 직업	무직/가정주부	3,409	38.3	103	1.1
	단순노무직	333	3.7	239	2.7
	기능직	176	2.0	548	6.2
	판매서비스직	611	6.8	328	3.7
	자영업	784	8.8	1,851	20.8
	기술직 및 사무직	1,353	15.2	3,027	34.0
	전문직	1,573	17.6	1,501	16.8
	경영관리직	129	1.4	481	5.4
	무응답	549	6.2	836	9.4
	전체	8,915	100.0	8,915	100.0

3)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족형태, 다문화 가정 여부,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II-19]와 같다.

첫째, 가족형태는 양부모가정이 88.2%(7,86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이 7.7%(691명)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은 0.8%(67명), 기타는 0.5%(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4.9%(440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은 300만원~400만원이 32.5%(2,899명)으로 가장 많았고, 400~500만원은 20.8%(1,850명), 600만원 이상이 16.9%(1,507명), 500~600만원은 14.6%(1,305명), 100~200만원은 11.0%(978명), 100만원 미만은 1.7%(151명)으로 나타났다.

[표 II -19]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비율	
가족형태	양부모가정	7,864	88.2
	한부모가정	691	7.7

구분	응답자	비율	
조손가정	조손가정	67	0.8
	기타	49	0.5
	무응답	244	2.7
다문화 가정	예	440	4.9
	아니오	8,232	92.3
	무응답	243	2.7
소득	100만원 미만	151	1.7
	100~200만원	978	11.0
	300~400만원	2,899	32.5
	400~500만원	1,850	20.8
	500~600만원	1,305	14.6
	600만원 이상	1,507	16.9
	전체	8,915	100.0

4) 16개 시도 및 학년 비교

다음으로 아동 개인별 응답 데이터를 시도와 학년별 데이터로 변환하여 16개 시도 및 학년별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권리보장환경과 권리경험에 따른 발달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권리보장환경은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지역사회 환경의 32개의 세부 지표 구성되어 있으며, 권리경험은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경험으로 구분하고 38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아동발달의 결과는 건강, 인지, 행복, 사회정서, 인성의 영역을 설정하였으며 2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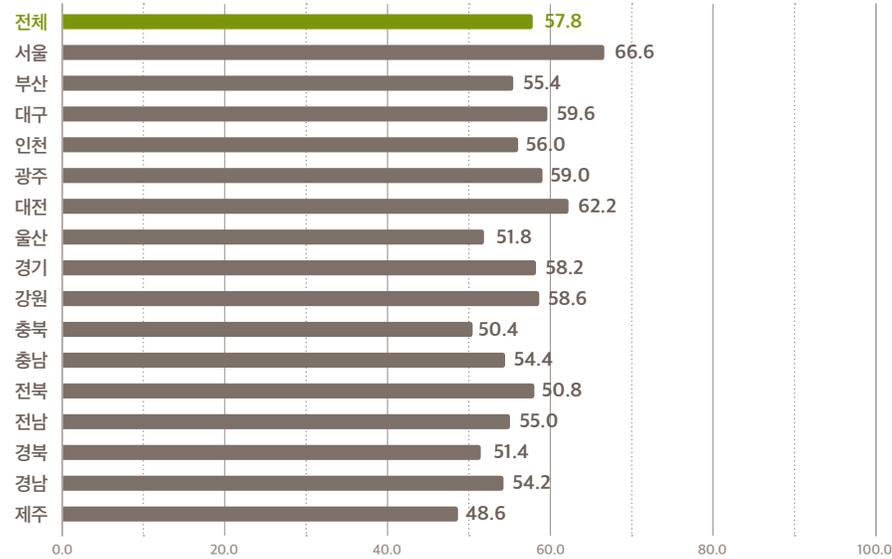
16개 시도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대 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도,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학년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인 초 4학년, 초 6학년, 중 2학년이다. 16개 시도와 학년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고자 각 지표의 지역별·학년별 평균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값을 제시하였다. 비율로 지표 값을 제시한 경우는 비율 값 그대로 제시하였다.

(1) 권리보장환경

① 가정 환경

• 가구소득

가구소득은 현재 가구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보호자)에게 현재 가구의 월평균 소득 정도를 100만원 미만부터 600만원 이상까지 6개의 범주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100만원 미만=1, 100~200만원 미만=2, 300~400만원 미만=3, 400~500만원 미만=4, 500~600만원 미만=5, 600만원 이상=6점의 값을 부여한 후 각 지역별 평균 점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별 평균소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II-4] 가구소득

전체 조사대상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본 결과 전국의 평균은 57.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결과는 서울이 6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62.2점), 대구(59.6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48.6점으로 가구소득 지표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 주거 안전성

주거 안전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총 2문항으로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건물은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다.'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두 개의 값에 대한 평균 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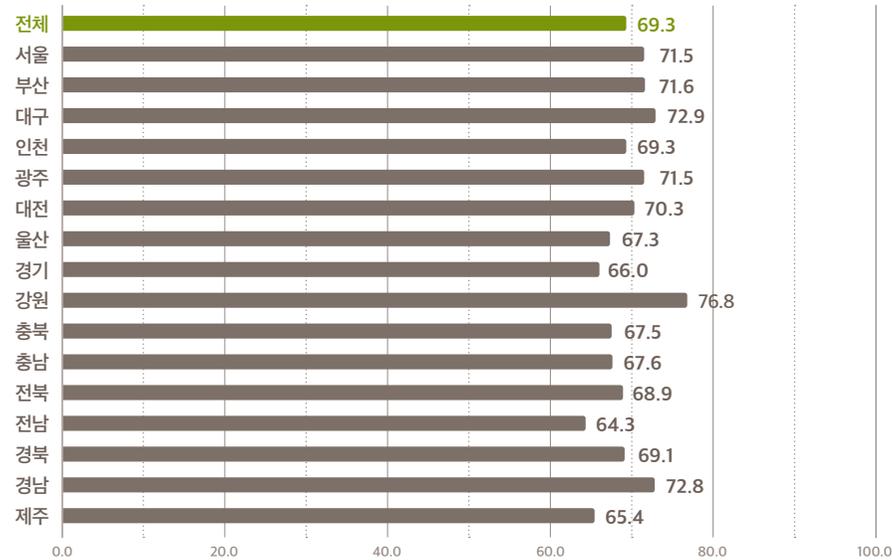


[그림II-5] 주거 안전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86.2%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9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광주 89.8%, 대구 89.6%, 대전 89.4%로 주거 안전성 지표의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에 비해 울산은 80.6%로 주거 안전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 쾌적성

주거 쾌적성을 평가하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우리 집은 방습이 잘 되어 있어 곰팡이 균의 문제가 없다.' '우리 집은 방음이 잘 되어 있어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된다.' '우리 집은 환기와 채광이 잘 된다.'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구한 뒤 세 개 값의 평균 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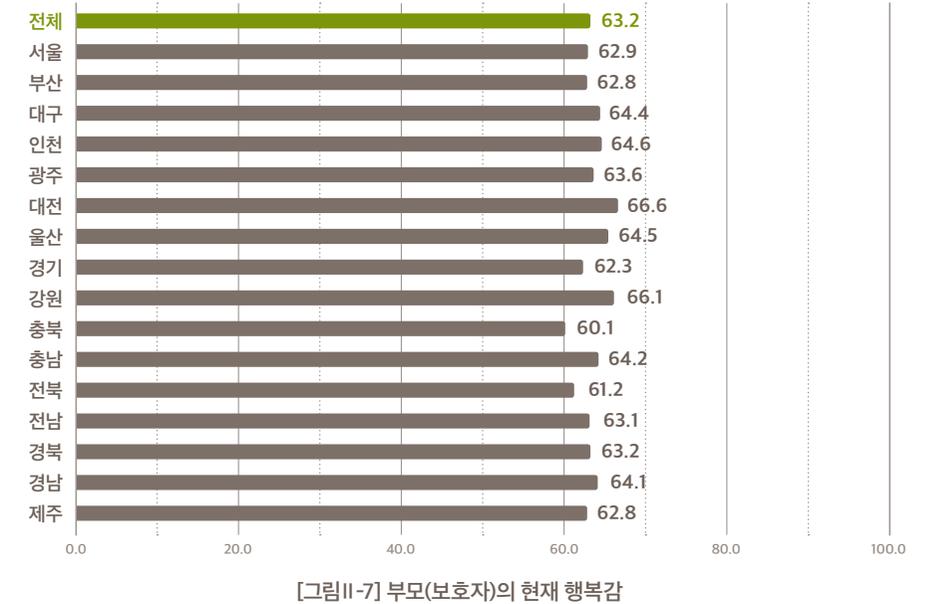


[그림II-6] 주거 쾌적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69.3%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쾌적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76.8%로 타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대구가 72.9%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각 65.4%, 64.3%로 주거 쾌적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

부모(보호자)의 행복감은 조사 대상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0점~10점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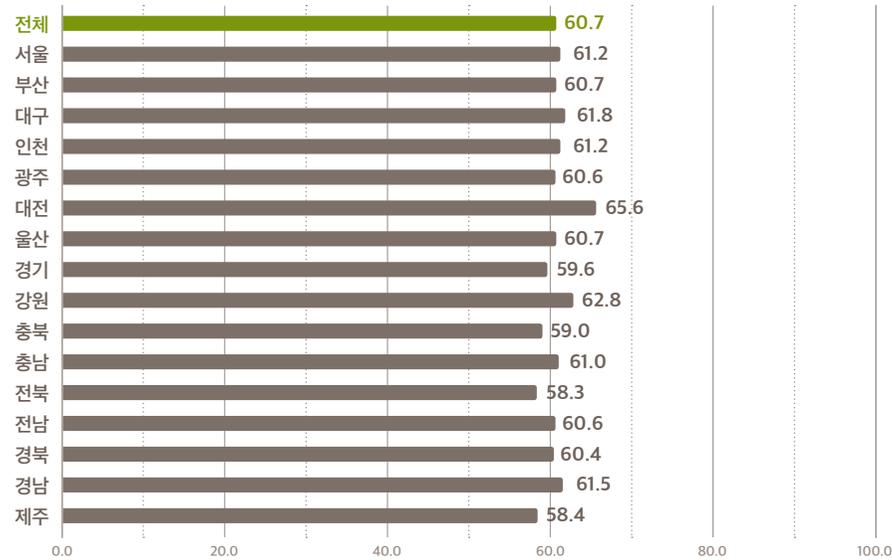


[그림II-7]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현재의 행복감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평균 63.2점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다소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66.6점, 강원이 66.1점으로 부모(보호자) 행복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이 61.2점, 충북이 60.1점으로 부모(보호자) 행복감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보호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부모(보호자)의 삶의 만족도는 조사 대상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지금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0점~10점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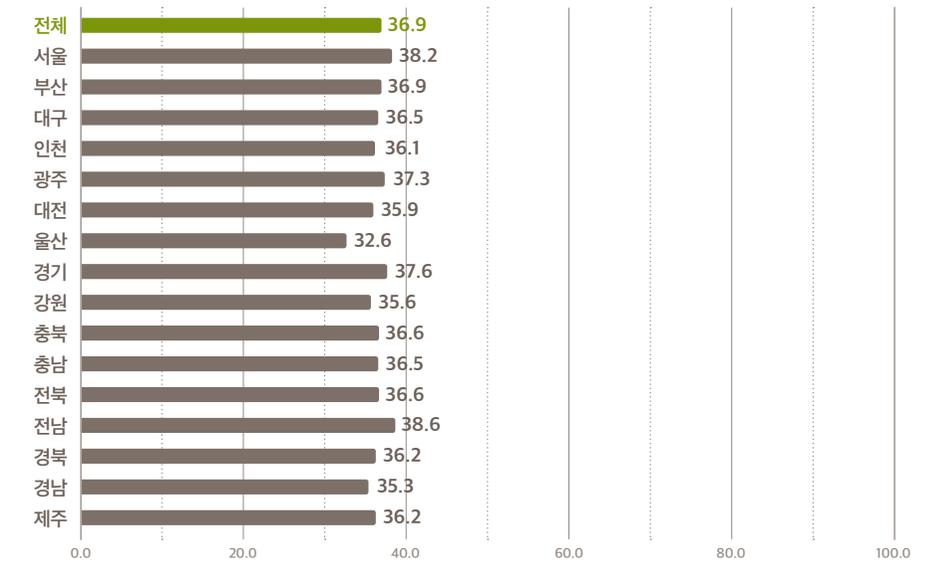


[그림 II-8] 부모(보호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평균 60.7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65.6점으로 16개 시·도중 유일하게 65점 이상을 기록하였다. 강원은 62.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부모(보호자) 삶의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상으로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 '자녀가 생긴 이후로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 한다', '자녀를 위해 나의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의 개별 양육스트레스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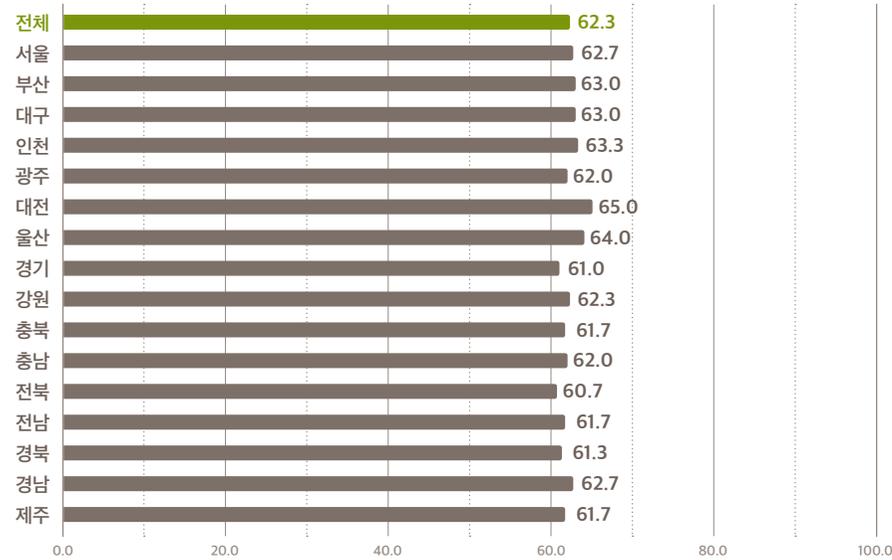


[그림 II-9]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시·도 간 비교하였을 때 전남이 38.6점으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이 32.6점으로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 한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 한다'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등 총 1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의 개별 양육효능감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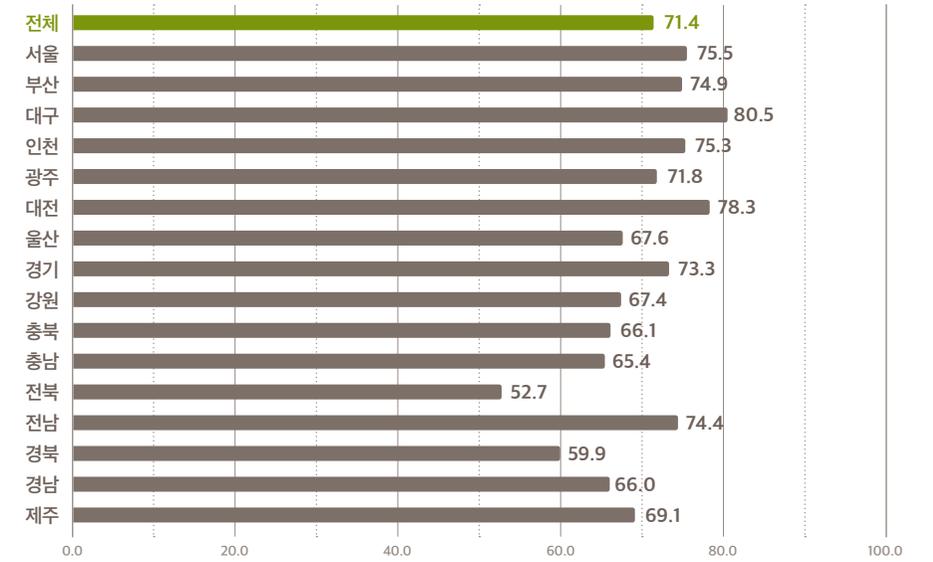
[그림II-10]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양육 효능감에 대하여 응답을 시도 간 비교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대전이 65.0점으로 양육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 64.0점, 인천 63.3점 순이었다. 양육효능감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확인되었다.

② 학교 환경

• 등·하교 편의성

등·하교 편의성은 아동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등·하교 하기에 편한지 여부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한 것을 가지고 나타내었다. 다음은 등·하교 편의성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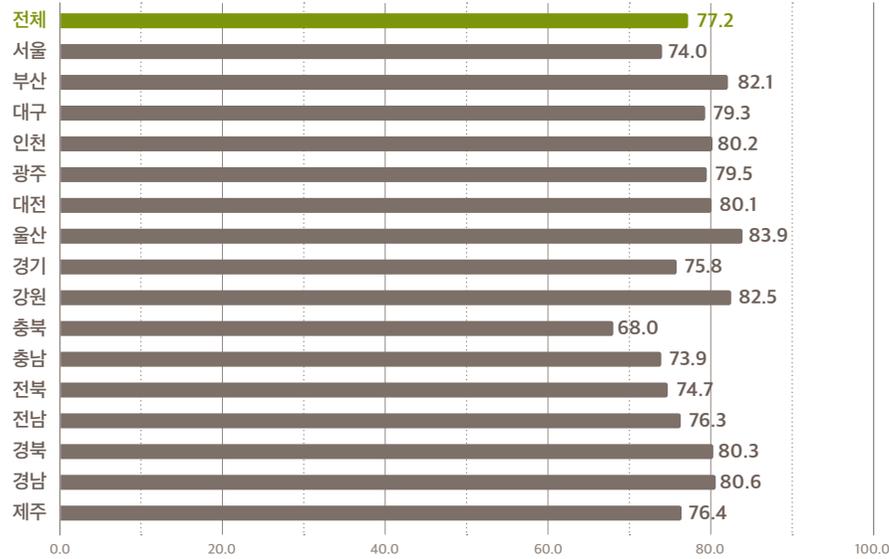


[그림II-11] 등·하교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71.4%가 가정에서 학교까지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대구가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이 5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대구 아동이 10명중 약 8명 이상이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북은 약 5명 정도의 아동만이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고 응답하여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시설 쾌적성

학교시설 쾌적성은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이 깨끗한지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오'로 응답하게 한 후 파악하였다. 다음은 아동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깨끗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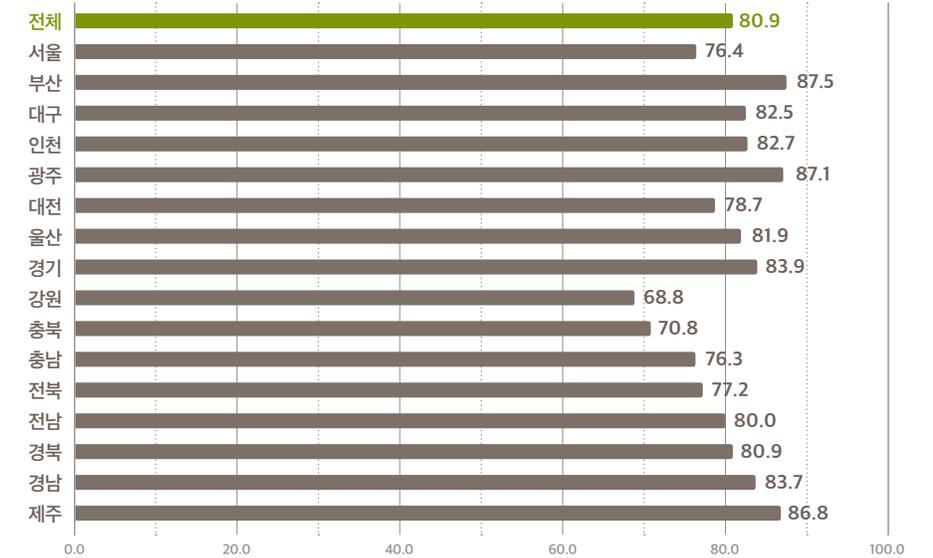


[그림II-12] 학교시설 쾌적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77.2%가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이 깨끗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울산이 8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이 82.5%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지역 아동이 모두 70% 이상 학교 시설이 깨끗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충북은 68.0%의 아동만이 학교시설이 쾌적하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은 학교의 운동장이 활동하기에 편하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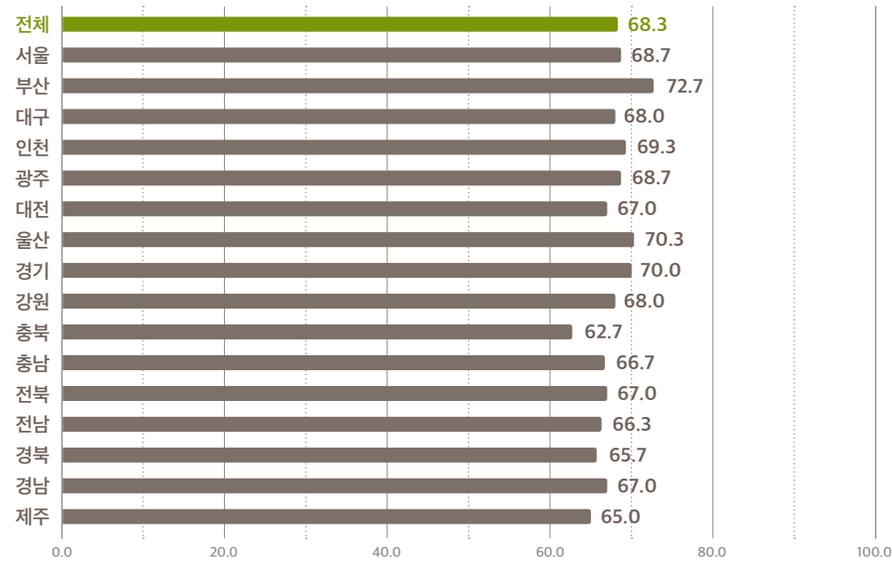


[그림II-13]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80.9%가 학교 운동장이 활동하기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과 광주가 각 87.5%,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가 86.8%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과 강원이 각 70.8%, 68.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광주와 부산 아동의 87% 이상이 운동이 활동하기 편하다고 응답한 반면 강원 아동은 68.8%만이 학교 운동장이 활동하기 편하다고 응답하여 지역 간의 아동이 느끼는 운동장에서의 활동 편의성에 대한 차이가 컸다.

• 학교내 의견존중 분위기

학교에서 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결정하는지를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견 존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별 아동의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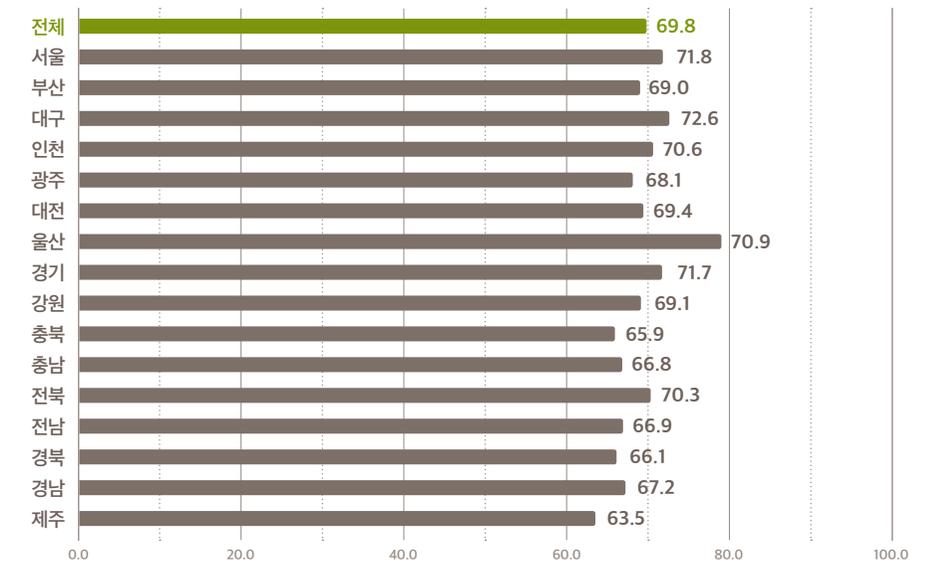


[그림II-14] 학교내 의견존중 분위기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정도에 대한 전국 평균은 68.3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2.7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이 70.3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북이 6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은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생의 징계, 시험성적 등의 비밀이 잘 보장되는지, 규칙이 변경된 경우 학생들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한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보공개의 민주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별 아동의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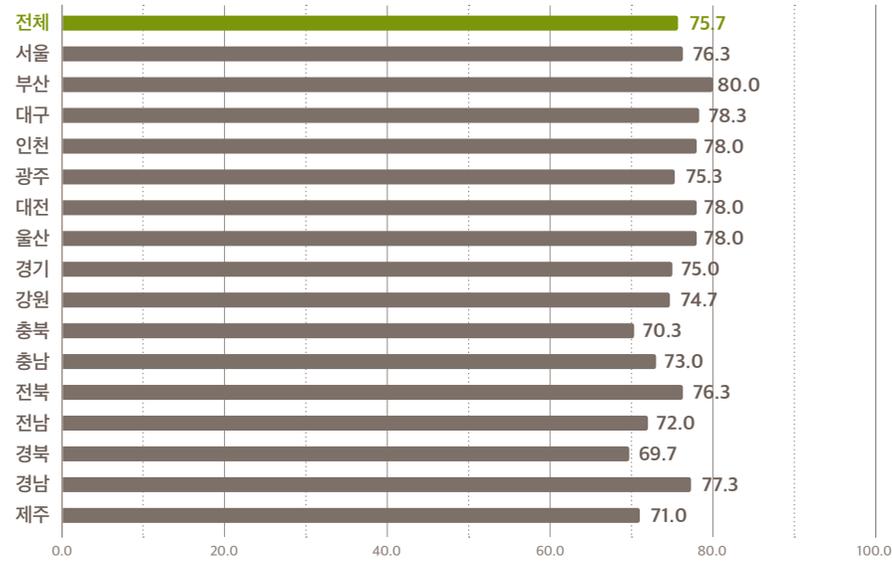


[그림II-15]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학교의 정보공개의 민주성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69.8점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경기, 전북 지역은 평균 점수 이상을 받았으며,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평균 점수 이하를 받았다.

• 학교내 비차별 문화

학교내 비차별 문화는 3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생의 가정환경, 신체적 조건, 성적으로 차별하지 않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의 차별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개별 아동의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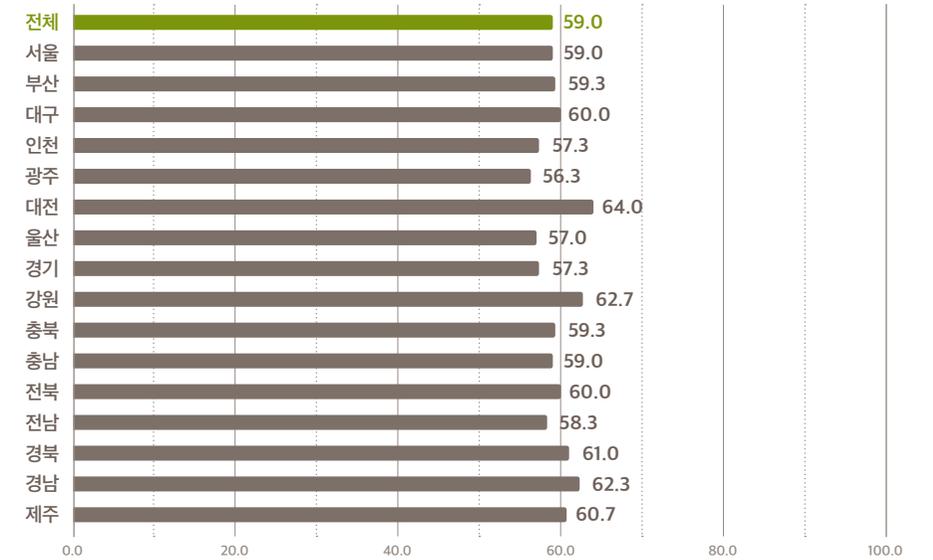
[그림II-16] 학교내 비차별 문화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학교의 비차별 문화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75.7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80.0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학교 내에서 차별 문화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경북은 69.7점으로 학교 내 차별문화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③ 지역사회 환경

• 범죄 안전

범죄 안전은 부모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하여 4점 척도로 평가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값의 개별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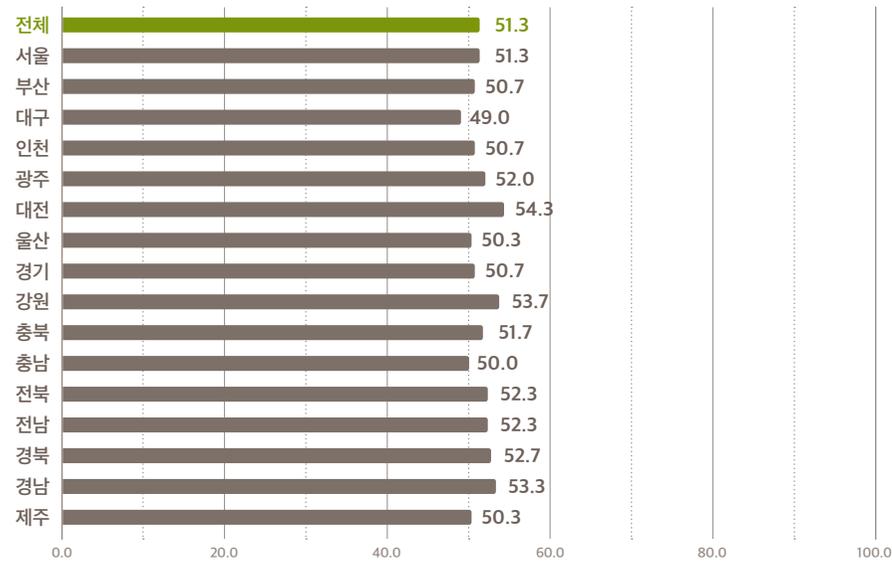


[그림II-17] 범죄 안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지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은 59.0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곳은 대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가 5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교통사고 안전

교통사고 안전은 우리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값의 개별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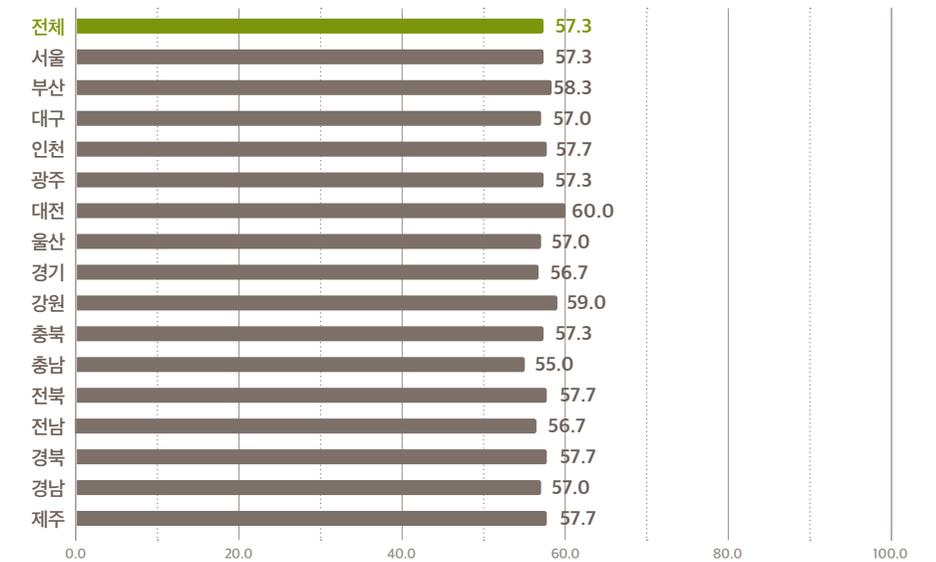


[그림II-18] 교통사고 안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은 51.3점으로 확인되었다. 대구가 49.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50점 이상의 점수 분포를 나타내었다.

• 식품 안전

식품 안전은 우리 동네의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동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값의 개별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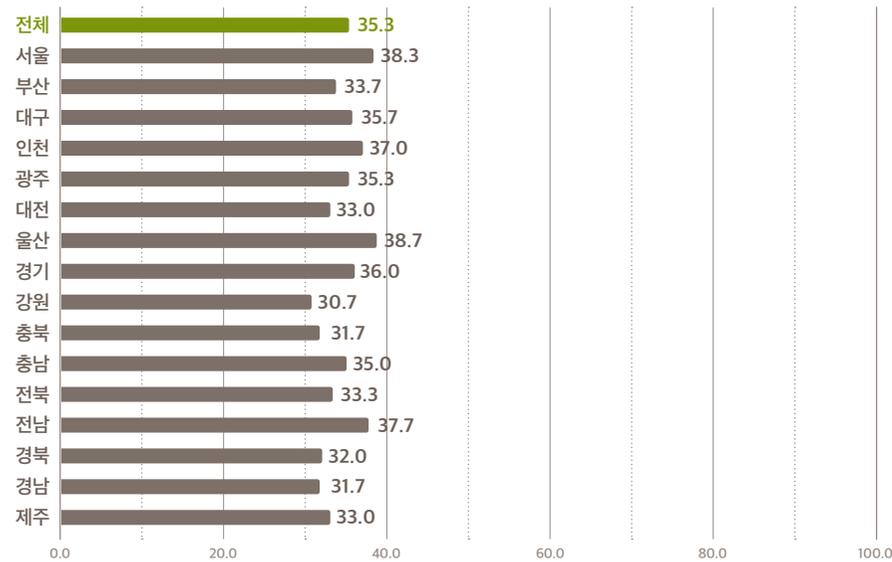


[그림II-19] 식품 안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57.3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6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이 5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지역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 물리적 무질서

동네의 물리적 무질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4개 문항이다.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낙서가 많은 등 더러운 편이다',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의 유흥업소와 주택이 섞여 있다'의 문항에 대해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4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무질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값의 개별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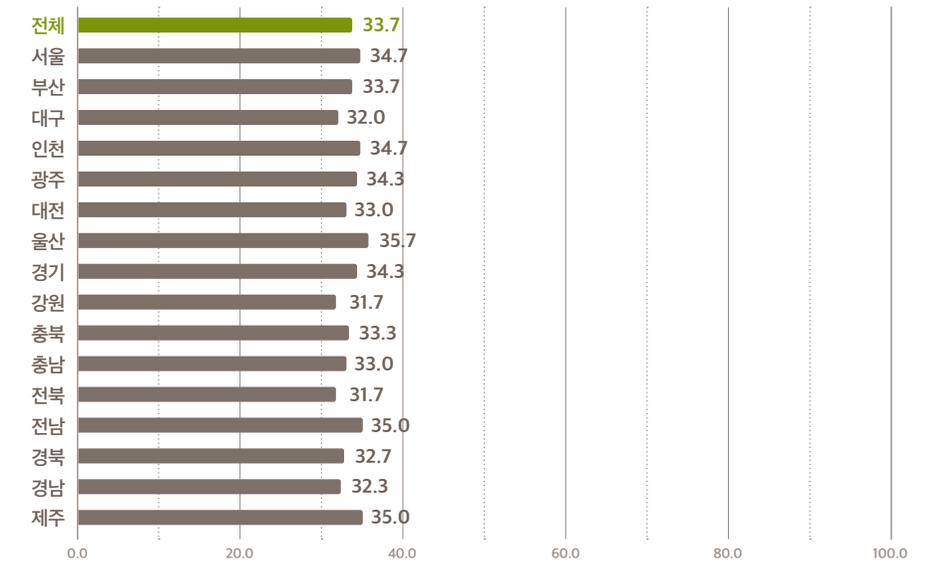


[그림 II-20] 물리적 무질서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거주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35.3점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의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38.7점, 서울이 3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이 30.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사회적 무질서

동네의 사회적 무질서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5개 문항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개의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응답하였다. 동네에 할 일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많은지, 불량청소년의 일탈행동과 범죄 등이 많은지를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무질서를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값의 개별 평균값을 구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I-21] 사회적 무질서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한 응답한 결과 33.7점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무질서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35.7점, 전남과 제주가 3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과 전북이 31.7점으로 가장 낮았다.

• 병원 이용 편의성

병원 이용 편의성은 동네에 병원이 가까워서 아플 때 진료받기가 편한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파악하였고,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병원 이용 편의성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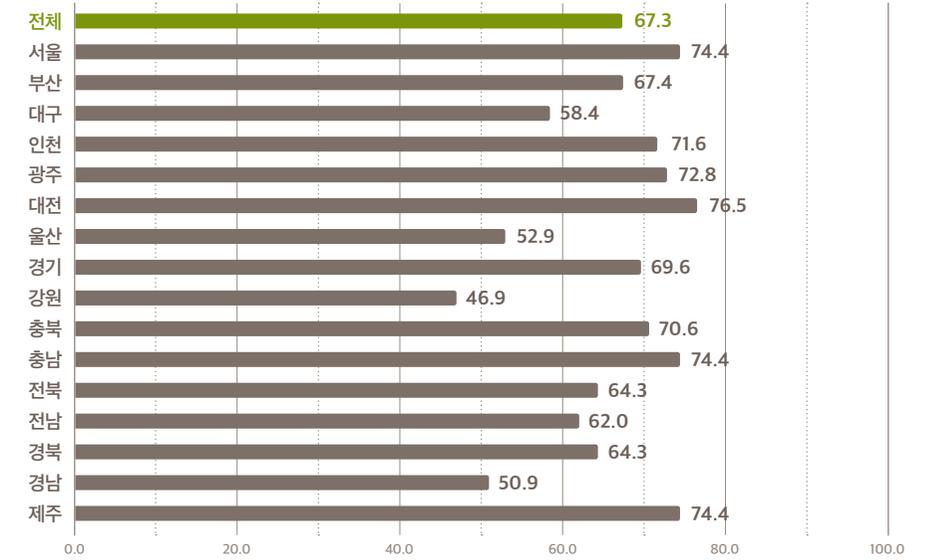


[그림II-22] 병원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83.6%가 거주 지역 내 병원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9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90.7%), 대구(90.3%), 광주(90.1%)순으로 대도시 대부분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반면 소도시들이 분포한 경북(75.4%), 충북(74.1%), 경남(74.0%)지역은 하위권에 포함되었다.

• 도서관 이용 편의성

동네에 도서관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도서관 이용 편의성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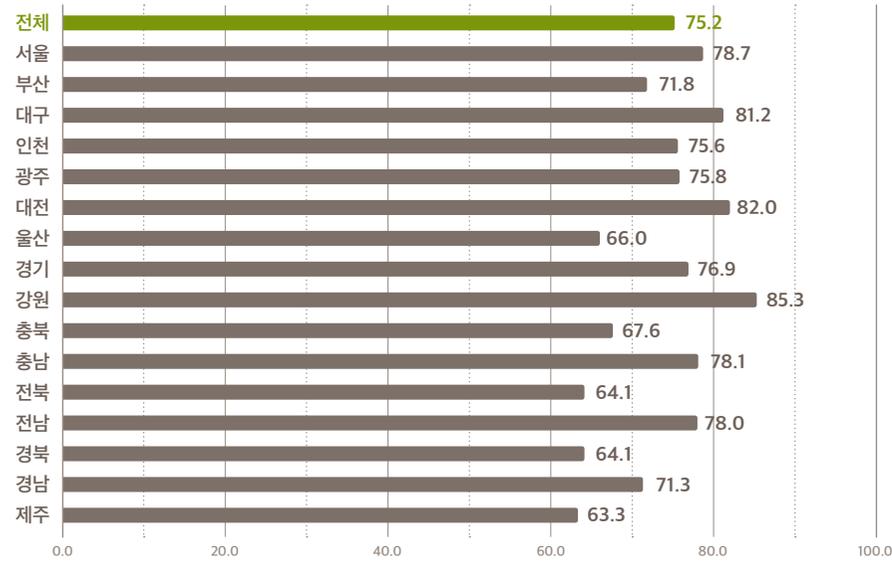


[그림II-23] 도서관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67.3%가 거주 지역 내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 충남, 제주가 7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남과 강원이 각 50.9%, 46.9%로 도서관 이용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놀이터 이용 편의성

동네의 놀이터가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아동의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놀이터 이용 편의성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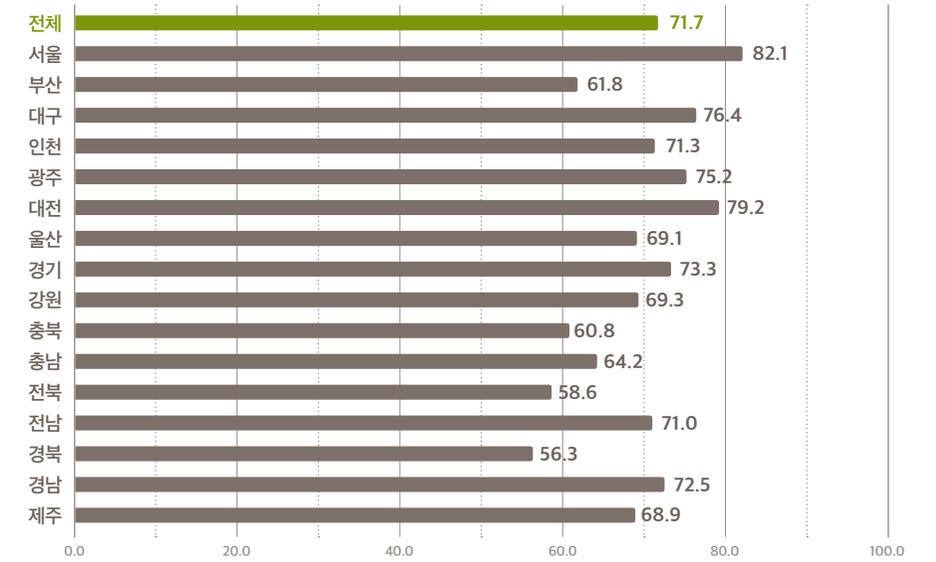


[그림II-24] 놀이터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75.2%가 동네의 놀이터가 아이들이 놀기에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8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82.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가 6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공원 이용 편의성

동네에 공원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한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공원 이용 편의성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II-25] 공원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71.7%가 동네에 공원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7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과 경북이 각 58.6%, 56.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학대 신고인식 : 아동의 장래 도움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인식 중 아동의 장래 도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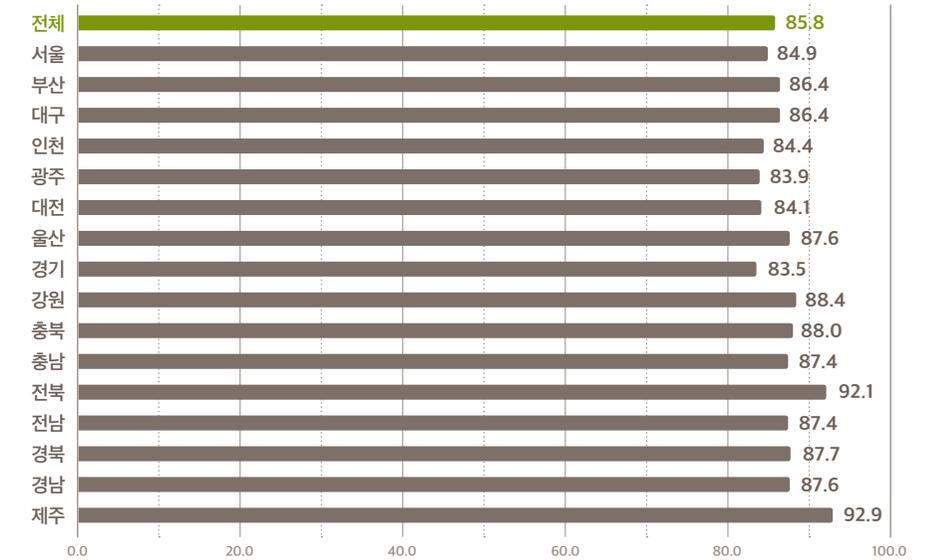


[그림II-26] 아동학대 신고인식: 아동의 장래 도움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모(보호자)의 95.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강원이 98.4%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이 9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학대 신고인식 :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인식 중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II-27] 아동학대 신고인식: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모(보호자) 중 85.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주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가 8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학대 신고인식 : 학대감소 효과 기대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아동학대 신고인식 중 학대 감소 효과 기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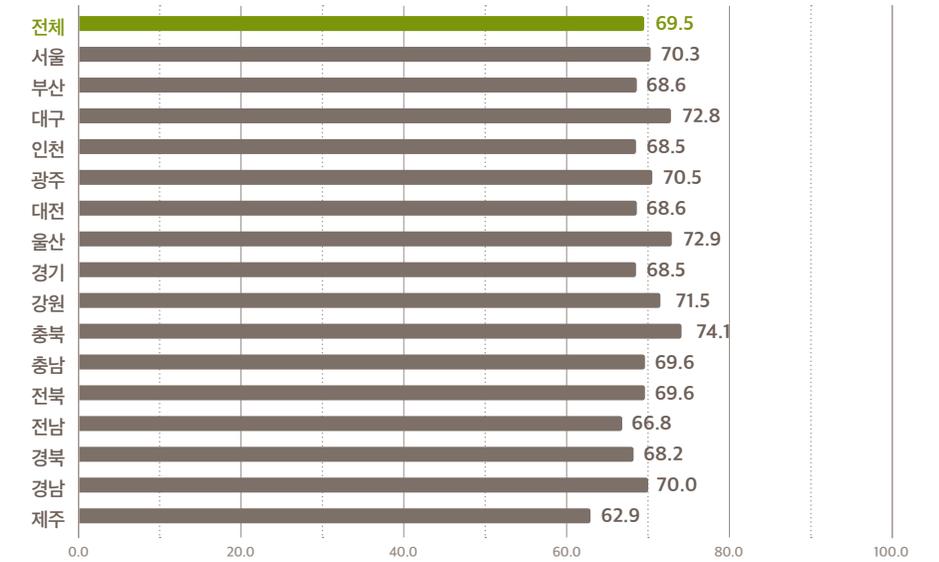


[그림II-28] 아동학대 신고인식: 학대감소 효과 기대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감소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모(보호자) 중 86.7%가 학대가 감소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전남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가 84.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가벼운 신체 학대 인식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가벼운 신체 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꼬집기',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에 대하여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세 가지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질문에 '학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값의 지역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그림II-29]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69.5%가 '꼬집기',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가벼운 신체학대를 학대라고 인식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74.1%로 가벼운 신체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72.9%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은 66.8%, 제주는 62.9%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신체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 인식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가벼운 신체 학대 보다 강도가 심한 중간정도 신체 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는 것',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세 문항에 대하여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세 가지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세 개의 질문에 '학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지역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그림II-30]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등에 대하여 90%이상이 신체 학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가 94.8%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과 경남은 9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심각한 신체 학대 인식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강도가 심각한 신체 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것', '두들겨 패는 것'에 대하여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세 가지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질문에 '학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지역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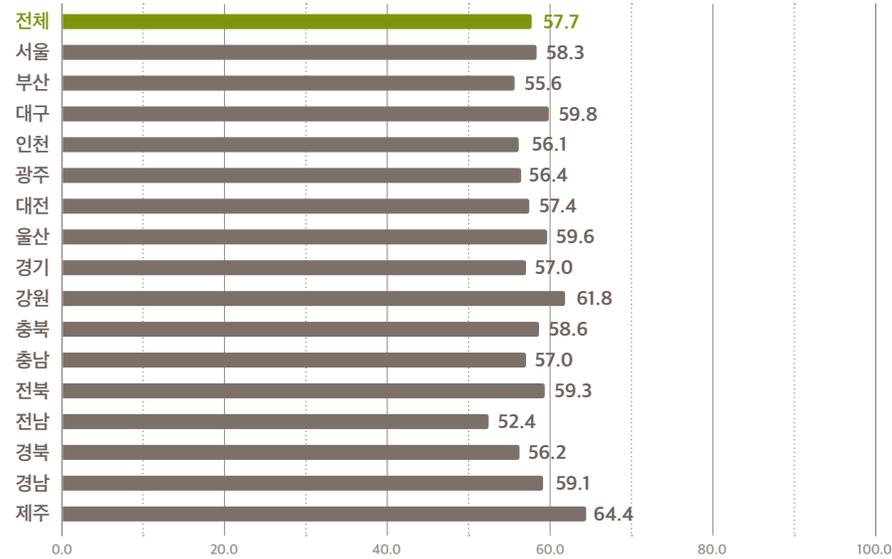


[그림II-31] 심각한 신체 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98.4%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것', '두들겨 패는 것'에 대하여 신체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타났으나 서울과 전북이 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이 97.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정서 학대 인식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것',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아이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는 것', '말로 때리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는 것', '아이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정서 학대로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총 다섯 개의 문항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세 가지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섯 개의 질문에 '학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지역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그림II-32] 정서 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과반수를 상회하는 정도만이 '아이를 말로 위협하거나 바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등을 정서 학대로 인식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64.4%로 정서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이 52.4%로 정서 학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방임 인식

방임 인식은 아동의 부모(보호자)에게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두는 것',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술,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의 세 가지 응답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네 개의 질문에 '학대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의 지역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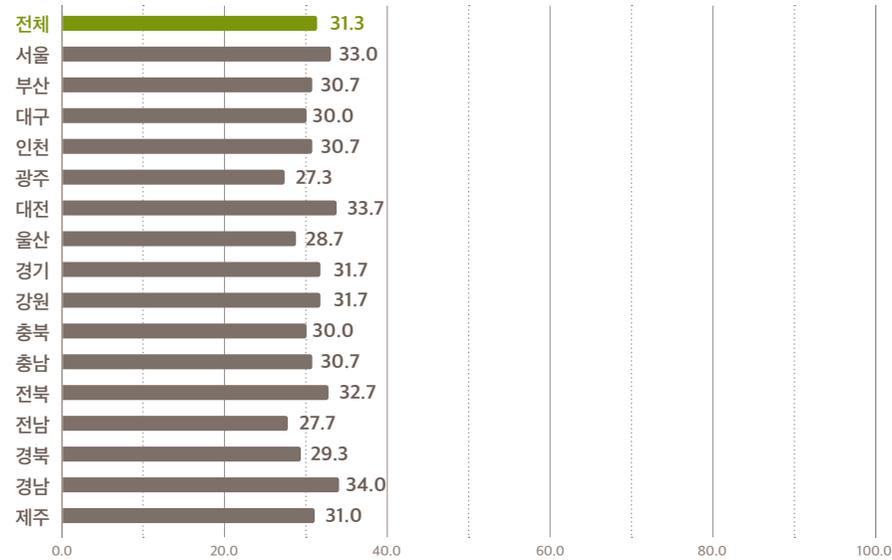


[그림II-33] 방임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상황 등'에 대하여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이 83.1%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은 75.2%로 상대적으로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부모)

부모(보호자)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1점), '이름만 들어보았다'(2점),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3점),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4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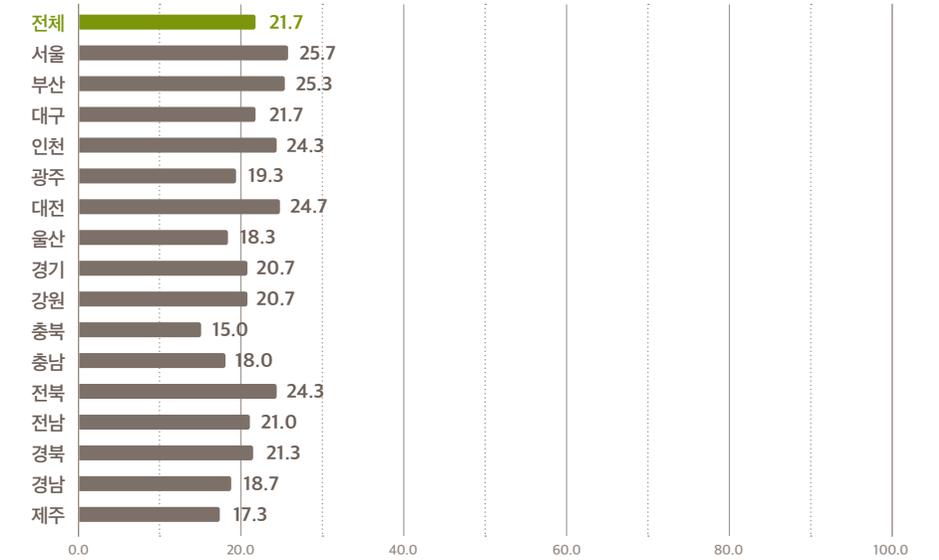


[그림II-34]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부모)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름만 들어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은 31.3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남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이 33.7점으로 높았다. 이에 비하여 광주는 2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아동)

아동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1점), '이름만 들어보았다'(2점),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3점),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4점)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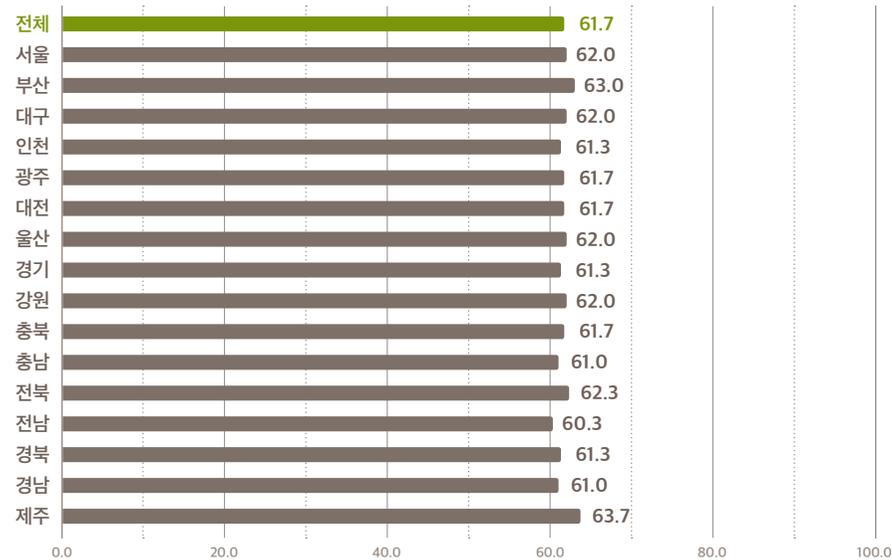


[그림II-35]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름만 들어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평균은 21.7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이 15.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아동권리 인식(부모)

부모(보호자)의 아동권리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세 개이다. '아동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어리숙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질문에 대하여 부모(보호자)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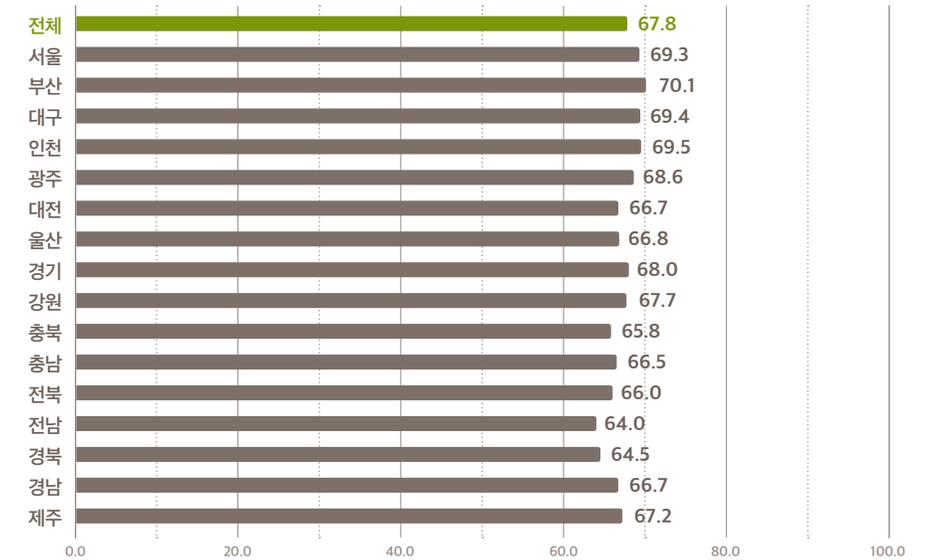


[그림 II-36] 아동권리 인식(부모)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식한 정도는 평균 61.7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지역적으로 60점을 근소하게 상회하는 정도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제주가 6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남이 60.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아동권리 인식(아동)

아동의 아동권리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은 세 개이다. '아동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어리숙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의 질문을 아동이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지역별 평균값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37] 아동권리 인식(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67.8점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의 편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산이 유일하게 16개 시·도 중 70점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전남이 6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④ 권리보장환경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지금까지 제시된 권리보장환경 각 지표의 지역 간 격차를 확인하고자 최소값, 최대값, 평균³⁾, 표준편차를 아래 표로 정리하였다(표II-20). 각 표준편차의 값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리보장환경의 가정 영역의 경우 주거시설 지표나 부모(보호자)의 심리정서 지표보다 가정의 경제적 환경 지표인 '가구소득'의 지역간 편차(SD=4.779)가 크게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환경의 경우 학교내 의견존중 분위기와 같은 심리적 환경 지표보다 학교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 지표의 지역간 편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등·하교 편의성' 지표는 표준편차 값이 7.120로 다른 학교 환경 지표 중 지역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의 심리적 환경에서는 학교내 '비차별 문화' 지표의 표준편차 값(SD=3.171)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사회 환경의 경우 도서관, 놀이터, 공원 등의 지역사회 시설의 이용 편의성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 지역간 격차가 컸다. '도서관 이용 편의성' 지표 권리보장환경의 지표 중 표준편차 값(SD=9.245)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인식 지표의 경우 지역간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학대 특성에 따라 편차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신체학대 지표는 학대의 정도가 심할수록 학대인식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없었으며 신체학대나 방임보다 정서학대 인식의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왔다.

3) 권리보장환경 지표의 평균값은 지역 평균(비율)/16으로 계산된 것이다.

[표 II -20] 권리보장환경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N=16)

영역	요소	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가정	소득	가구소득	48.6	66.6	55.8	4.779
		주거시설	주거 안전성	80.6	90.7	86.5
		주거 쾌적성	64.3	76.8	69.5	3.242
	부모(보호자)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	60.1	66.6	63.5	1.635
		부모(보호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58.3	65.6	60.8	1.748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32.6	38.6	36.4	1.363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60.7	65.0	62.4	1.128
학교	학교시설	등·하교 편의성	52.7	80.5	69.9	7.120
		학교시설 쾌적성	68.0	83.9	78.0	4.095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68.8	87.5	80.3	5.449
	학교풍토	학교내 의견 존중 분위기	62.7	72.7	67.7	2.349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63.5	72.6	68.7	2.550
		학교내 비차별 문화	69.7	80.0	75.2	3.171
지역 사회	안전	범죄 안전	56.3	64.0	59.6	2.158
		교통사고 안전	49.0	54.3	51.6	1.468
		식품 안전	55.0	60.0	57.5	1.088
	무질서	물리적 무질서	30.7	38.7	34.5	2.535
		사회적 무질서	31.7	35.7	33.6	1.287
	시설 및 기관	병원 이용 편의성	74.1	94.4	82.4	6.613
		도서관 이용 편의성	46.9	76.5	65.7	9.245
		놀이터 이용 편의성	63.3	85.3	73.7	7.013
		공원 이용 편의성	56.3	82.1	69.4	7.389
	아동학대 인식	아동학대 신고인식 : 아동의 장래 도움	93.2	98.4	95.8	1.305
		아동학대 신고인식 :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83.5	92.9	87.0	2.681
		아동학대 신고인식 : 학대감소 효과 기대	84.0	91.2	87.7	1.816
가벼운 신체 학대 인식		62.9	74.1	69.6	2.664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 인식		91.9	95.2	93.4	1.039	
심각한 신체 학대 인식		97.0	98.8	98.1	0.565	
정서 학대 인식		52.4	64.4	58.1	2.754	
아동권리 인식	방임 인식	75.2	83.6	80.8	1.956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부모)	27.3	34.0	30.8	1.970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아동)	15.0	25.7	21.0	3.170	
	아동권리 인식(부모)	60.3	63.7	61.8	0.796	
	아동권리 인식(아동)	64.0	70.1	67.3	1.775	

(2) 권리경험⁴⁾

① 생존권 경험

• 식품미보장

부모(보호자)가 자녀에게 양질의 식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별 평균을 구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 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식품미보장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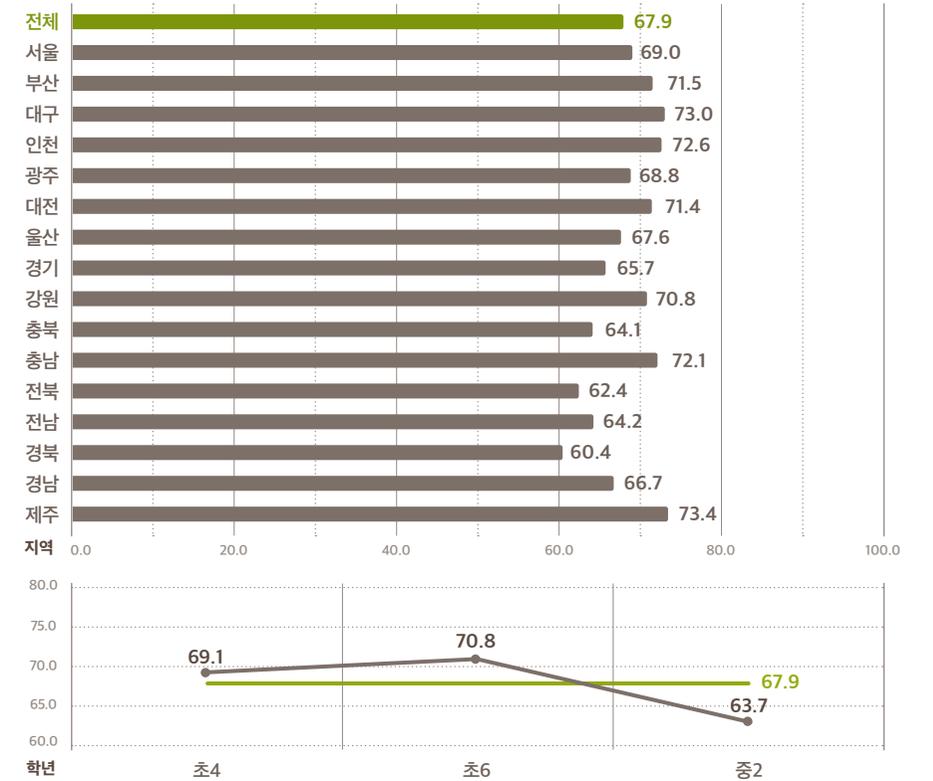
[그림II-38] 식품미보장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양질의 식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식품미보장에 대한 전체 평균은 16.0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2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13.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이 15.0점으로 식품미보장 정도가 낮았으며, 중 2학년이 17.1점으로 가장 높았다.

4) 아동의 권리경험이 지역과 학년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권리경험 지표의 결과를 지역과 학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규칙적인 식사

아동이 일주일 동안 규칙적인 식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전혀 먹지 않는다' 부터 '일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까지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중 주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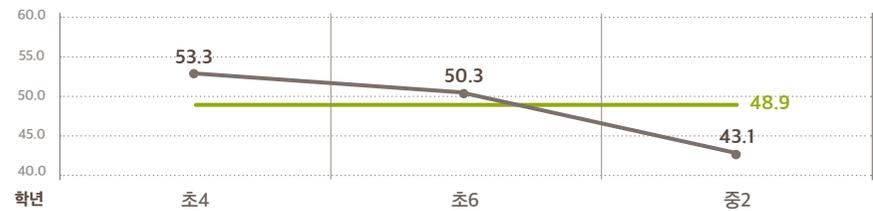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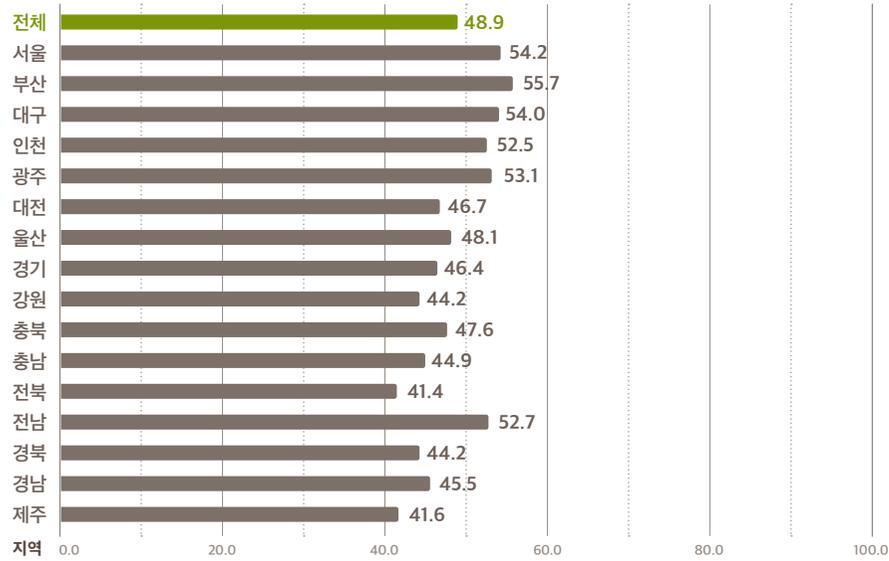


[그림II-39] 규칙적인 식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67.9%가 일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7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가 73.0%로 그 뒤를 이었다. 전북이 62.4%, 경북이 6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6학년 아동이 70.8%로 일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 2학년이 63.7%로 가장 낮았다.

• 신선한 채소 섭취

아동이 일주일 동안 신선한 채소를 며칠 동안 섭취하는지를 측정하였다. '전혀 먹지 않는다' 부터 '일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까지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중 주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는 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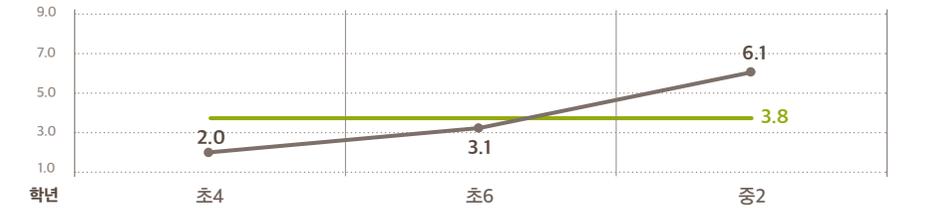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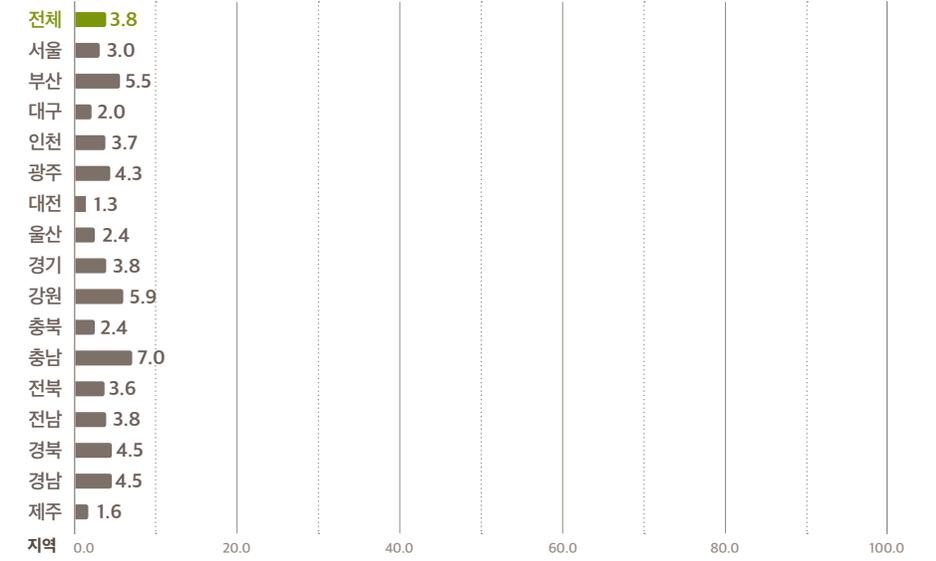


[그림II-40] 신선한 채소의 섭취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48.9%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이 54.2%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가 41.6%, 전북이 4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의 53.3%, 초 6학년은 50.3%, 중 2학년은 43.1%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 인스턴트 식품 섭취

아동이 일주일 동안 인스턴트 식품을 며칠 이상 먹는지를 측정하였다. '전혀 먹지 않는다' 부터 '일주일에 5일 이상 먹는다' 까지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중 주 5일 이상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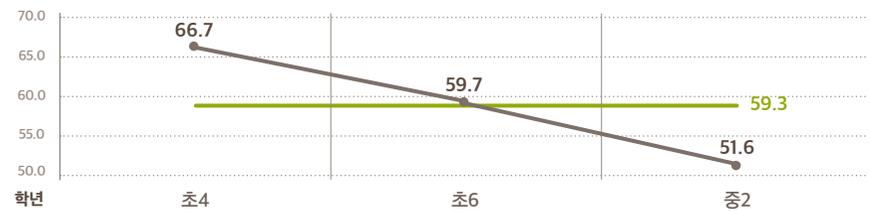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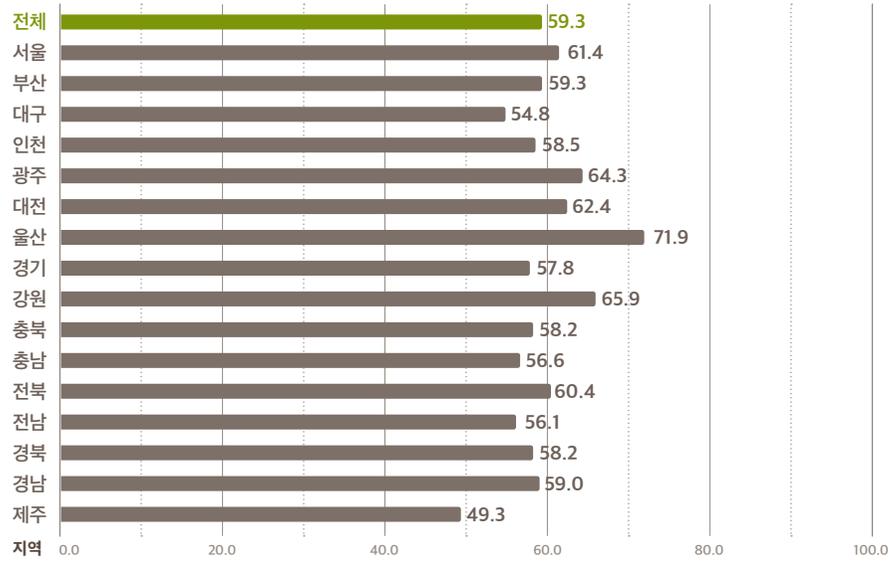


[그림II-41] 인스턴트 식품 섭취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3.8%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이 5.9%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가 1.6%, 대전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2.0%, 초 6학년은 3.1%, 중 2학년은 6.1%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스턴트 섭취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강검진

아동에게 지난 1년간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여부를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음은 건강검진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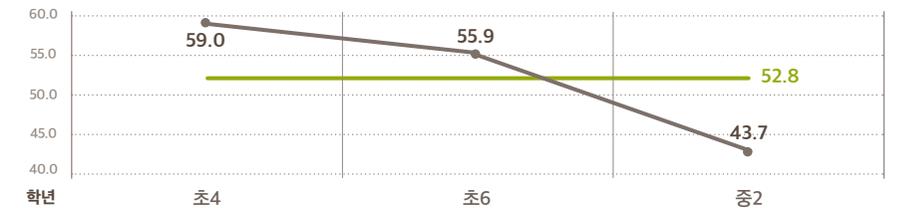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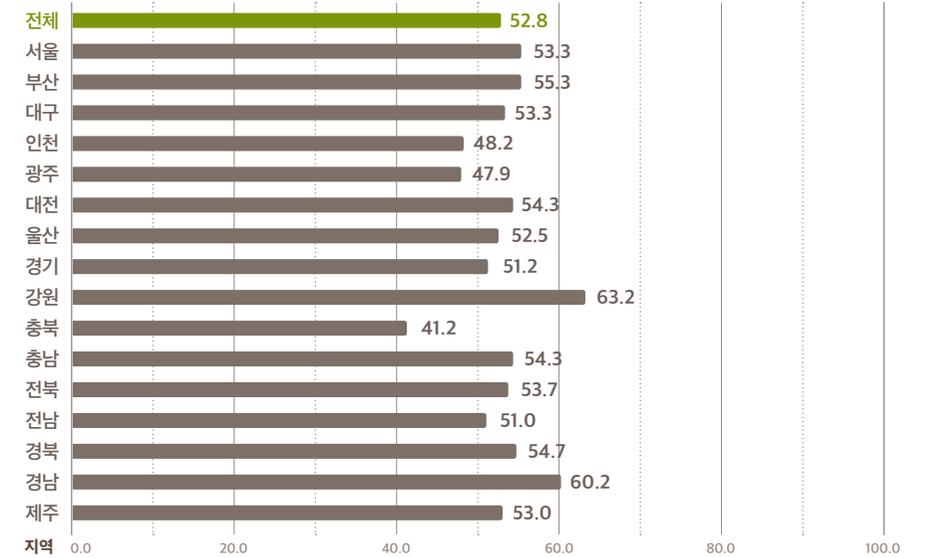


[그림II-42] 건강검진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 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59.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71.9%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이 65.9%로 그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시·도가 50%대 중후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으나 제주만이 50% 미만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이 초 6학년과 중 2학년에 비해 건강검진을 받아 본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격렬한 신체활동

숨이 많이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20분 이상 한 날의 횟수가 3일 이상 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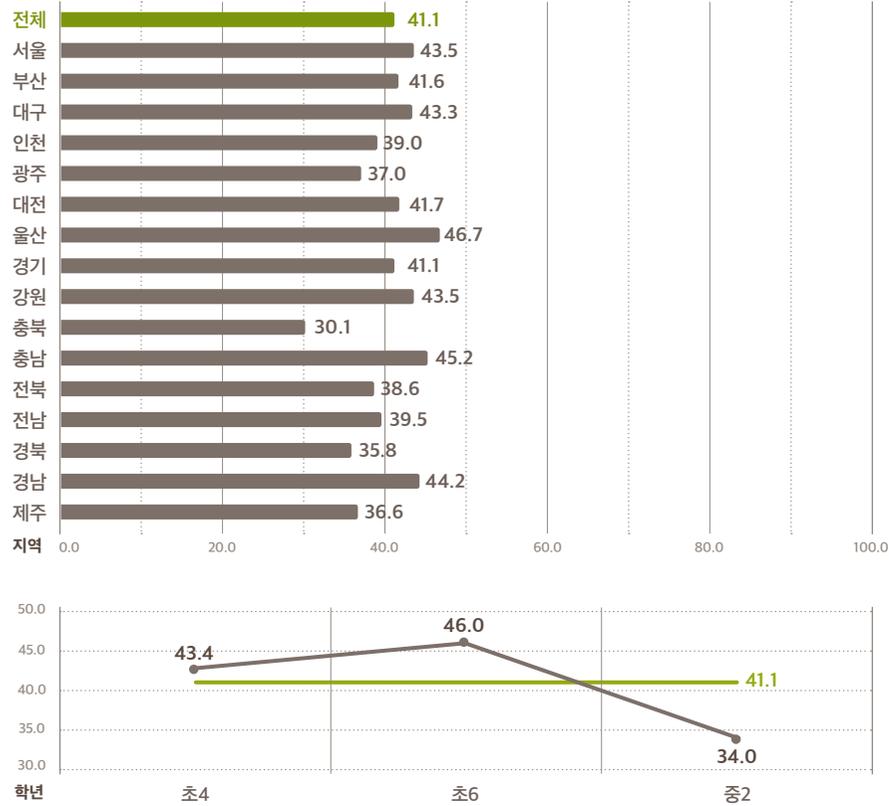


[그림II-43] 격렬한 신체활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일주일에 3일 이상,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아동의 비율은 52.8%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63.2%, 경남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가 47.9%, 충북이 4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과 초 6학년은 50% 이상의 아동이, 중 2학년은 50% 미만의 아동이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의 한 날의 횟수가 3일 이상 된다고 응답하였다.

• 가벼운 신체활동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1시간 이상 한 날의 횟수가 3일 이상 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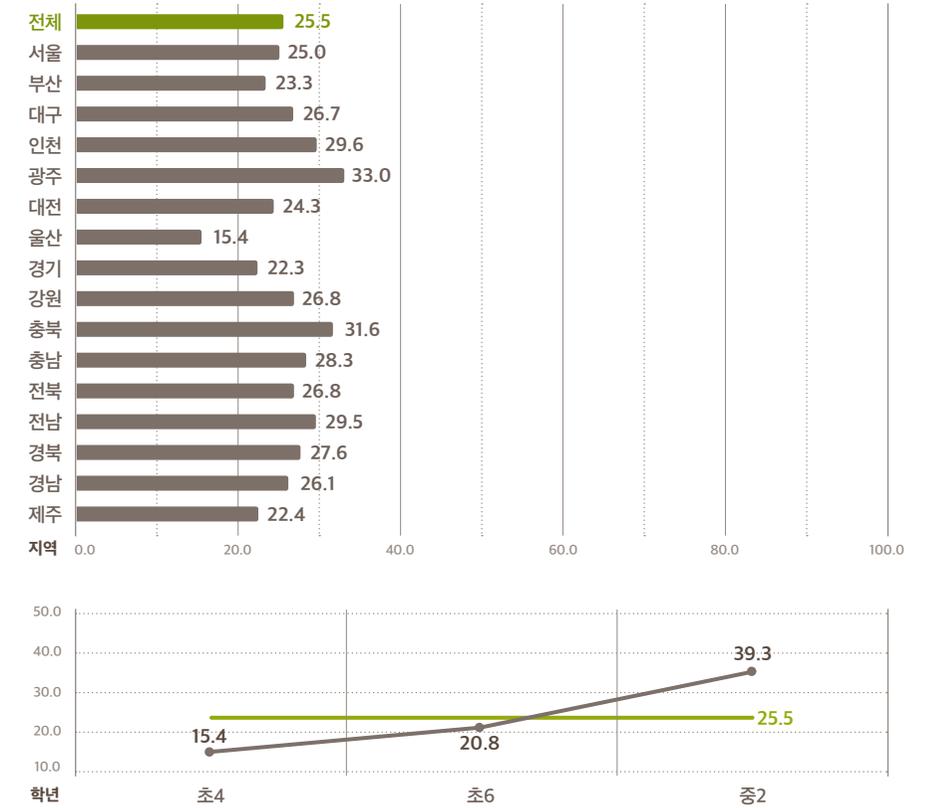


[그림II-44] 가벼운 신체활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일주일에 3일 이상, 1시간 이상의 가벼운 신체활동을 한 아동의 비율은 41.1%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46.7%, 충남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이 35.8%, 충북이 3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3일 이상, 1시간 이상의 가벼운 신체활동을 한 아동의 비율이 초 6학년이 46.0%로 가장 높았고, 중 2학년이 34.0%로 가장 낮았다.

• 수면시간이 부족한 아동

아동에게 야간에 자는 수면시간에 대하여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의 다섯 가지 범주를 주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중 수면시간이 부족한 아동 지표는 수면시간에 대하여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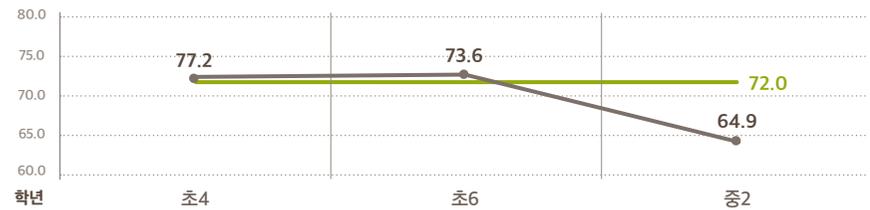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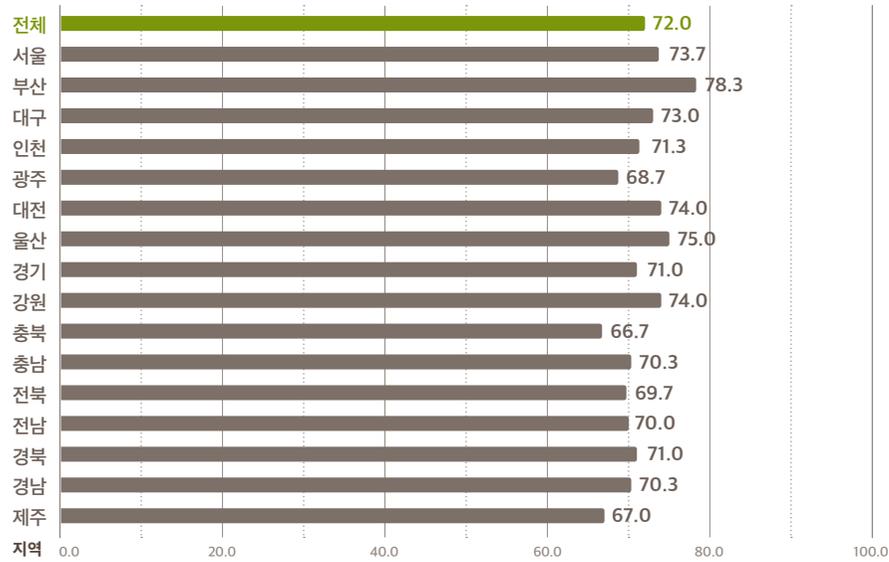
[그림II-45] 수면시간이 부족한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25.5%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33.0%, 충북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15.4%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15.4%가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중 2학년은 39.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20%이상의 격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발달권 경험

•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 지표는 학교의 수업과 공부 등에 대하여 만족하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 아동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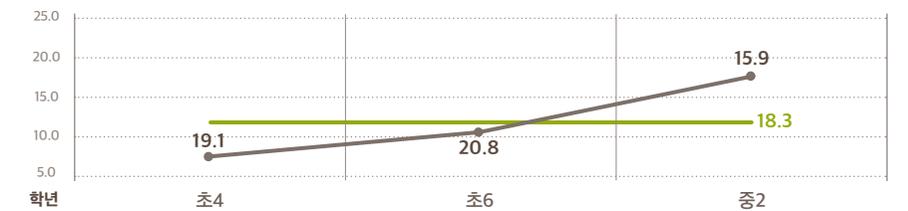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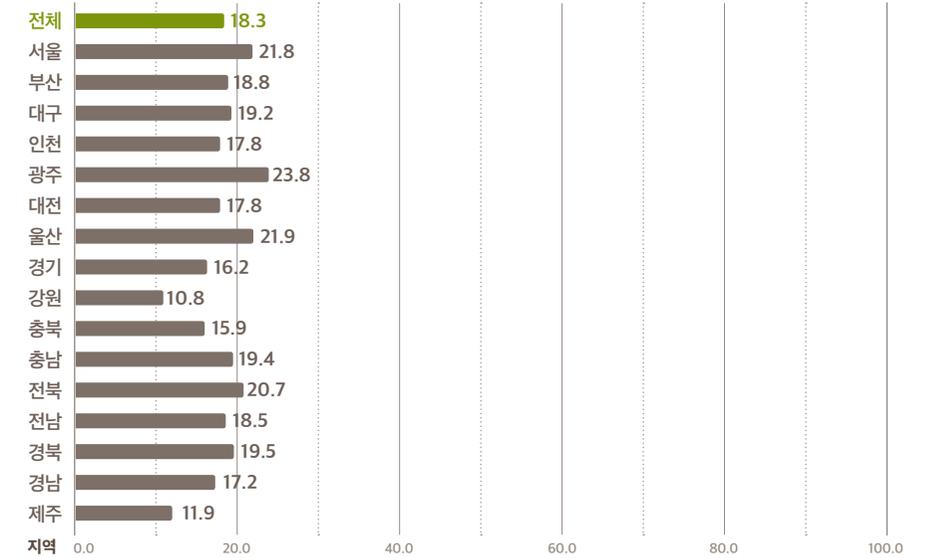


[그림II-46]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72.0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75.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가 67.0점, 충북이 6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학교 만족도 점수가 77.2점, 초 6학년은 73.6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였지만, 중 2학년은 64.9점으로 나타났다.

•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방과 후 공부시간 지표는 학교수업 이외에 가정과 학원 등에서 하는 공부시간이 '많다'와 '매우 많다'라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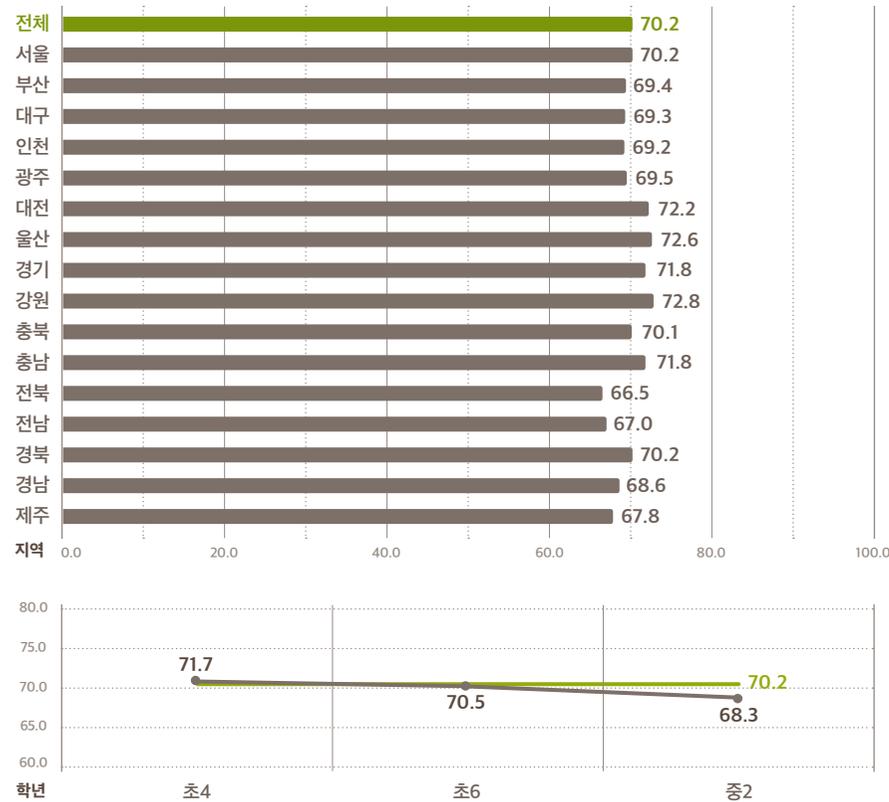


[그림II-47] 방과 후 공부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8.3%로 전반적으로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8%, 울산이 2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가 11.9%, 강원이 1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이 19.1%, 초 6학년 20.8%, 중 2학년 15.9%의 아동이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지표는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보호자)가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지원하는지 정도를 부모(보호자)에게 네 개의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네 개의 문항에는 '학교생활 이야기', '학업에 대한 도움', '학업분위기 조성', '학업과 관련한 질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별 평균을 구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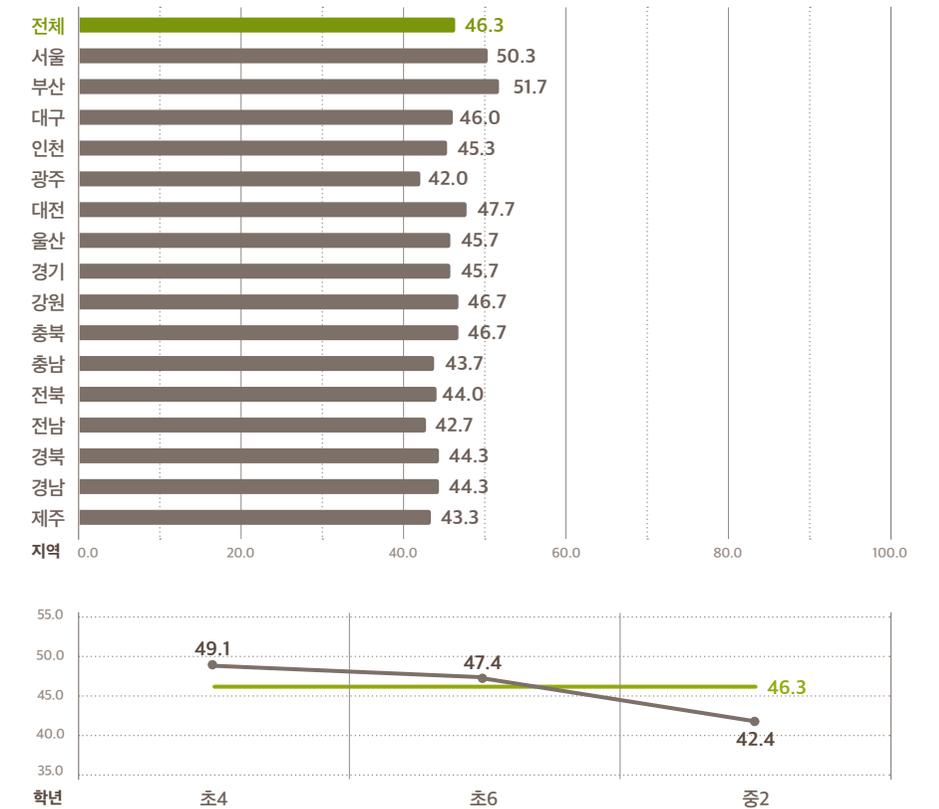


[그림 II-48]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지표의 전국 평균은 70.2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7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 72.6점, 대전이 72.2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이 67.0점, 전북이 6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71.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 2학년은 68.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지표는 부모(보호자)가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정도를 가지고 네 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 네 개의 문항에는 '학급임원으로 참여', '학교 봉사활동 참여', '학교 선생님과 상담', '학교 행사 참여'가 포함되어 있다. 개인별 평균을 구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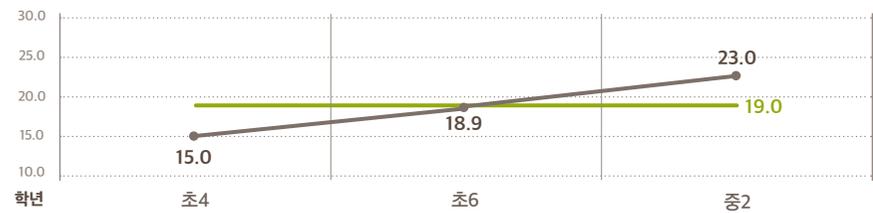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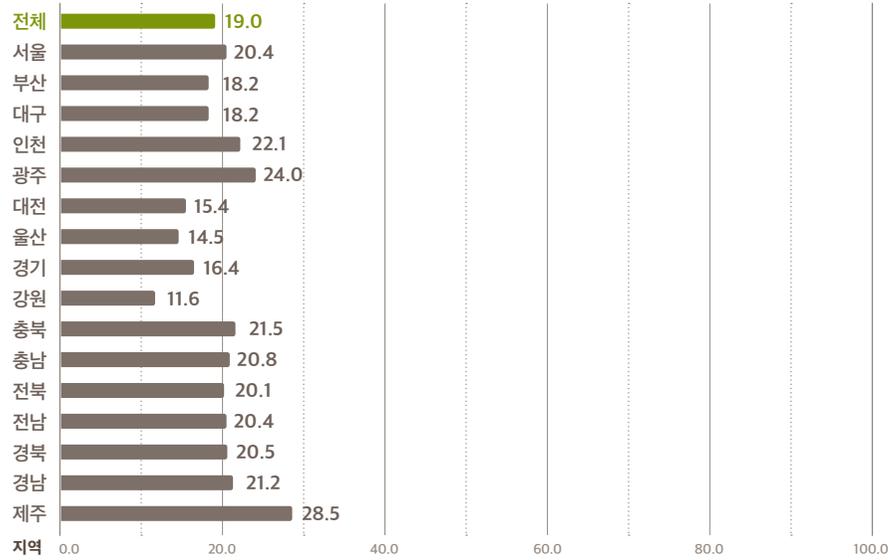


[그림 II-49]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는 평균 46.3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5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이 50.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이 42.7점, 광주가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49.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 2학년은 4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놀이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놀이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에 대한 지표는 하루 평균 놀이 시간에 대하여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라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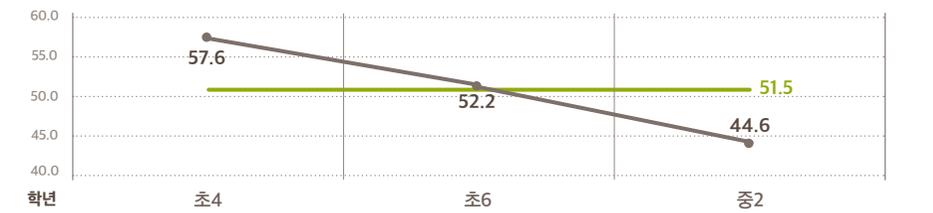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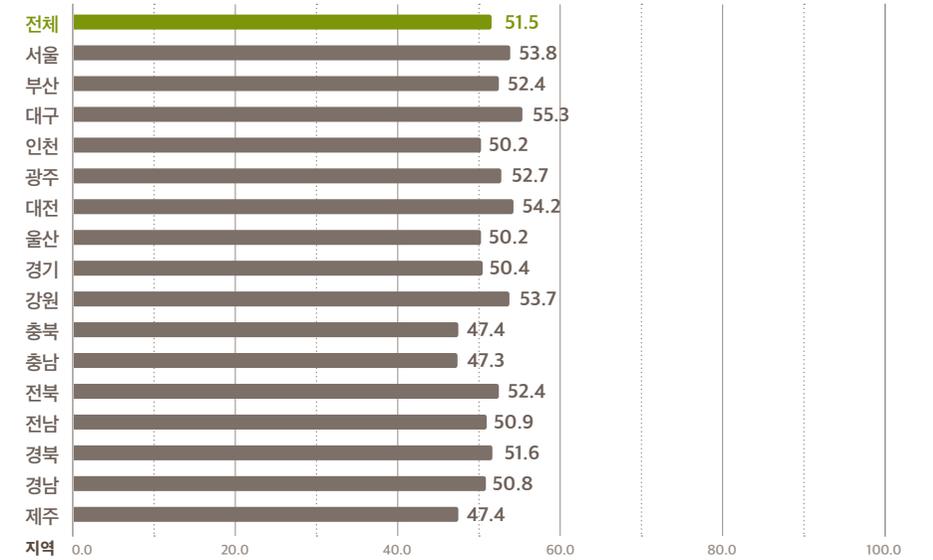


[그림II-50] 놀이 및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9.0%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28.5%로 16개 시·도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이 11.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15.0%의 아동이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에 비해 중 2학년은 23.0%의 아동이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가족과의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정도

아동이 가족과 나들이, 문화생활, 여행, 스포츠 행사 참여, 기타 등의 여가 생활을 함께 한 정도를 '전혀 하지 않음'(1점), '1년에 1~2회'(2점), '1년 5~6회'(3점), '한 달 1~2회'(4점)으로 측정하였다. 개인별 평균값을 계산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 여가생활을 하는 정도가 많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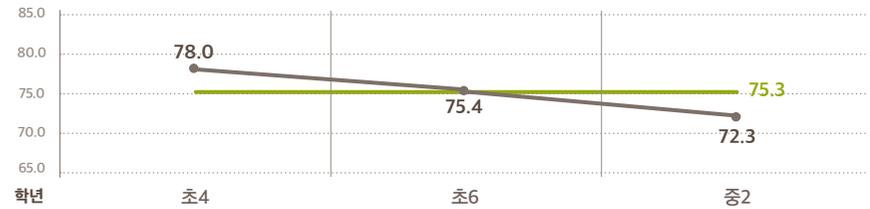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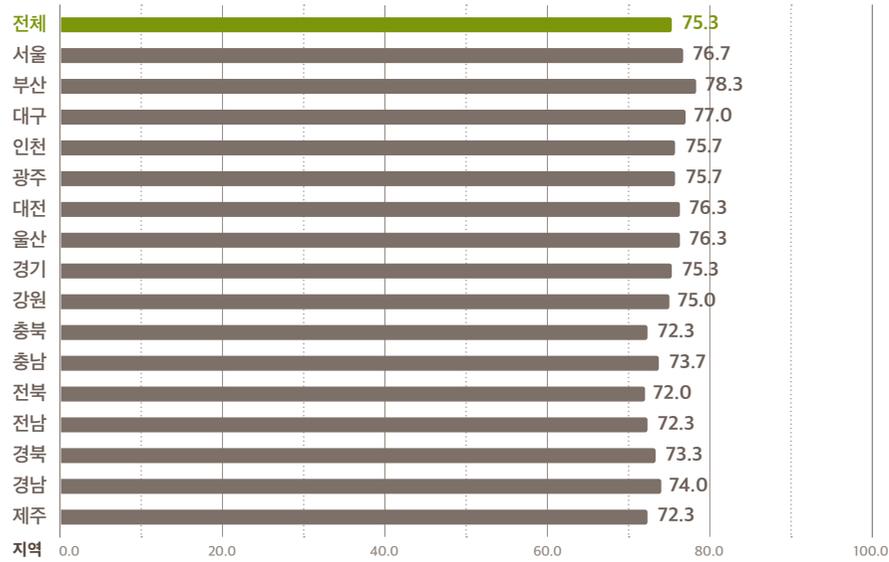


[그림II-51] 가족과의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정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한 정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반적으로 1년에 1회~2회 정도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동 평균은 51.5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구가 5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이 47.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과 초 6학년은 50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지만, 중 2학년은 44.6점으로 확인되었다.

•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와 아동이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는 정도를 5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동 개인의 응답값을 토대로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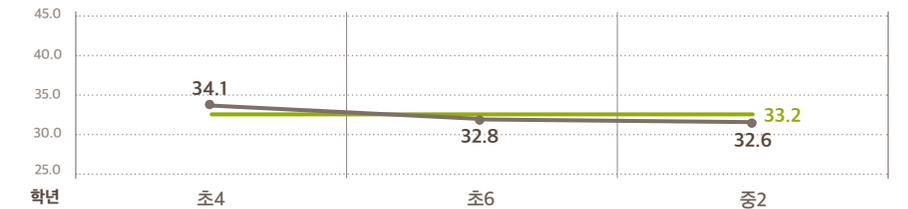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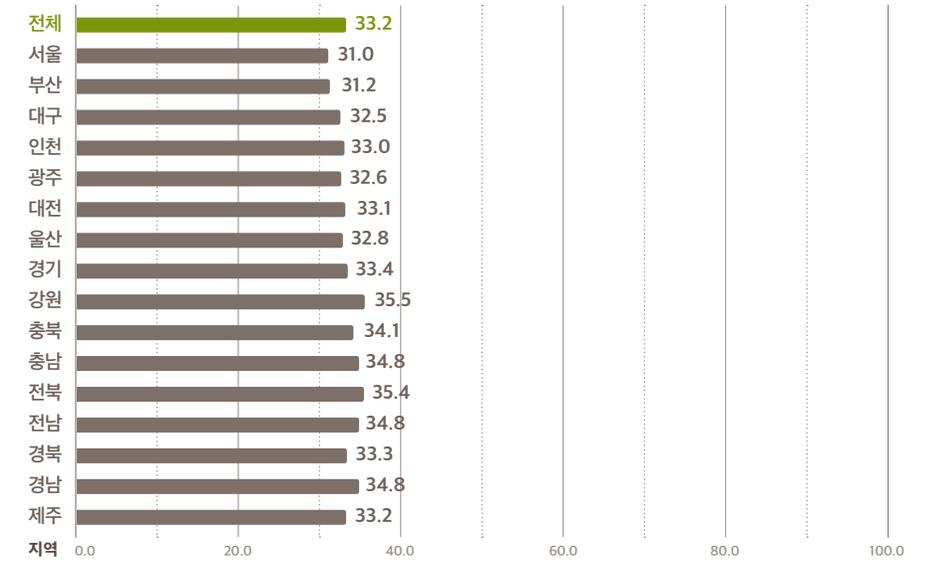


[그림II-52]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부모(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지표의 전체 아동 평균은 75.3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78.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북이 7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 78.0점, 초 6학년 75.4점, 중 2학년 72.3점으로 학년 간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다.

•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과보호하고 있는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과보호 문항은 부모가 아동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하는지, 아동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지 등의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인별 평균값을 구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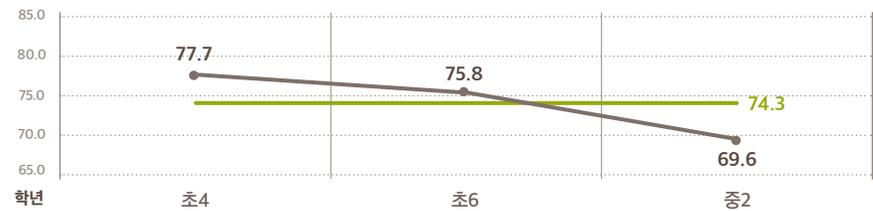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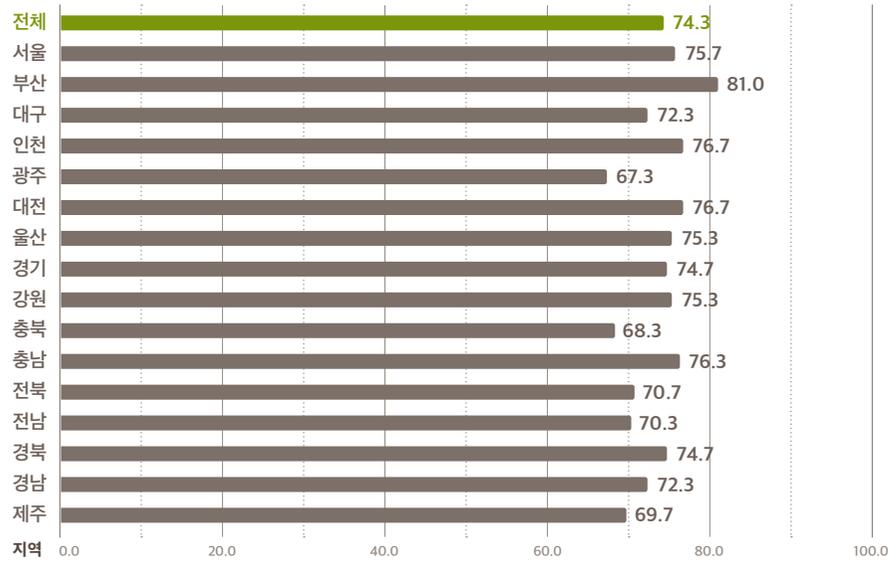


[그림II-53]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과보호하고 있는지 정도에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결과는 대동소이하였으며, 부모의 과보호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35.5점)이었으며,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31.0점)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에서 중 2학년으로 갈수록 부모의 과보호 정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는 아동이 교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3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친밀한 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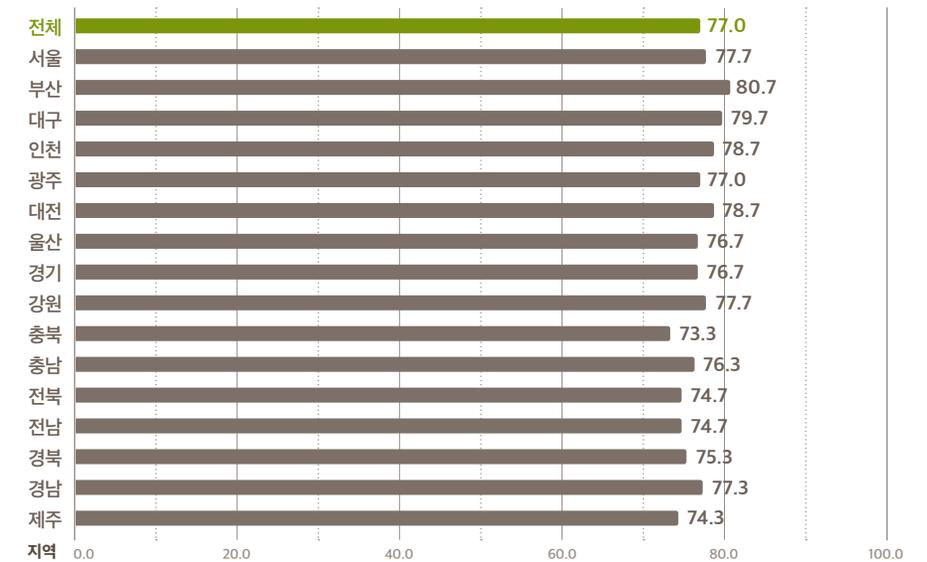


[그림II-54]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지표의 전체 아동 평균은 74.3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81.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광주가 67.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이 초 6학년과 중 2학년보다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는 친구관계에서 신뢰감, 친밀감 정도를 세 개 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나타낸다. 개인별 평균값을 구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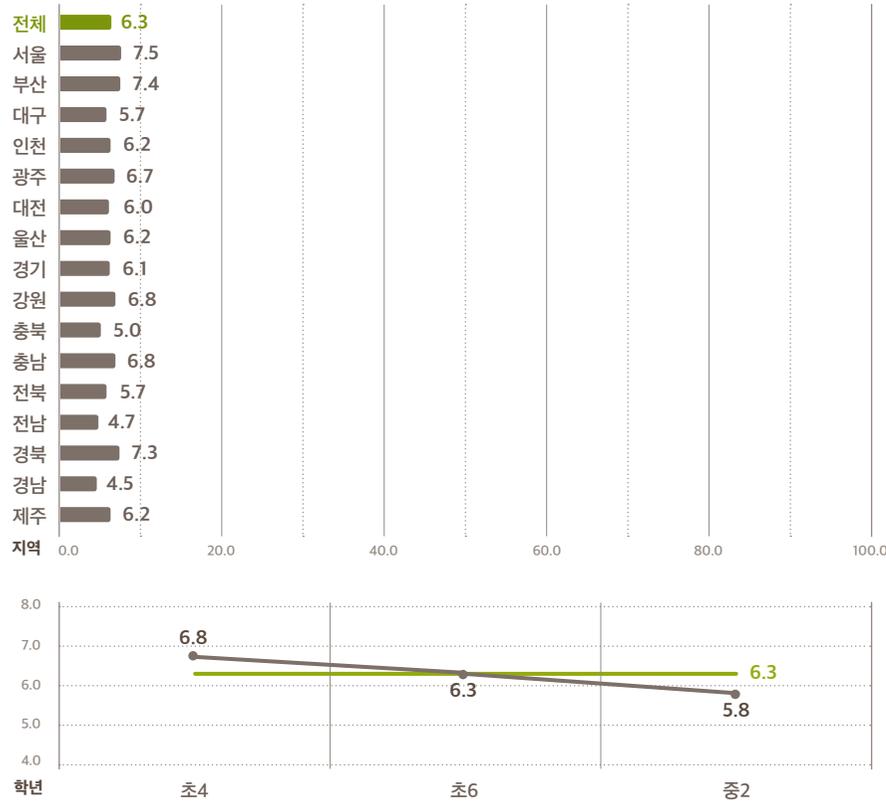
[그림II-55]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지표의 전체 아동 평균은 77.0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80.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 7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 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초 4학년이 78.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③ 보호권 경험

•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지난 1년간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이 아동을 훈육할 때 '꼬집었다',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렸다'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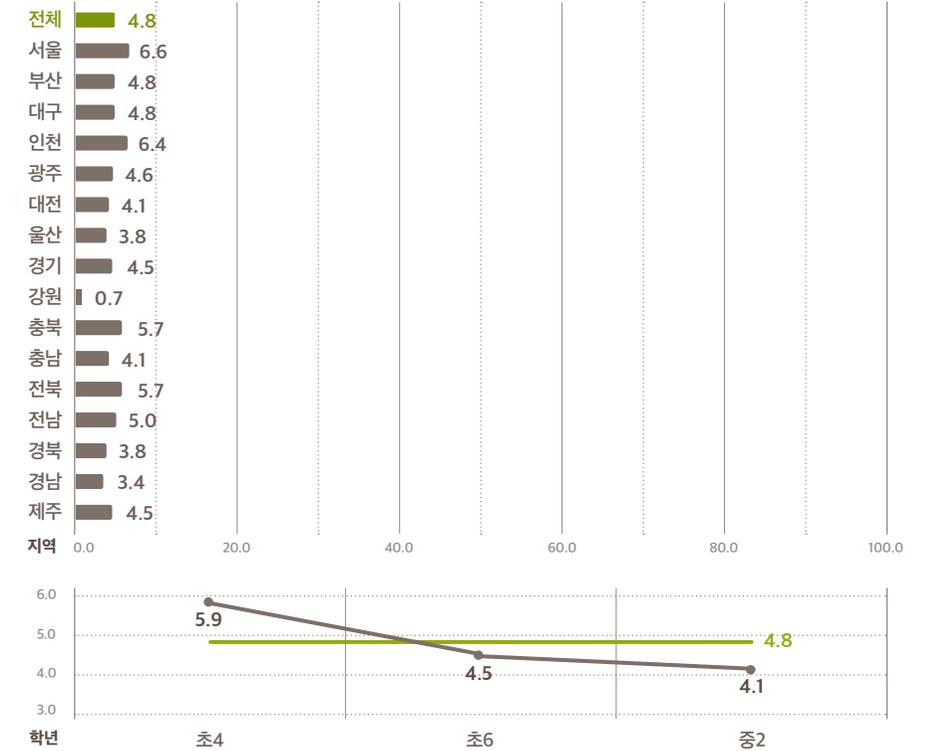


[그림 II-56] 가벼운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 아동의 6.3%는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벼운 신체학대 지표에 대하여 서울, 부산, 경북 지역이 7% 이상의 수치를 보였으며, 전남, 경남 지역은 5% 미만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의 6.8%, 초 6학년의 6.3%, 중 2학년의 5.8%가 한달 평균 1회 이상 가벼운 신체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지난 1년간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이 아동을 훈육할 때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렸다',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렸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의 3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중간정도의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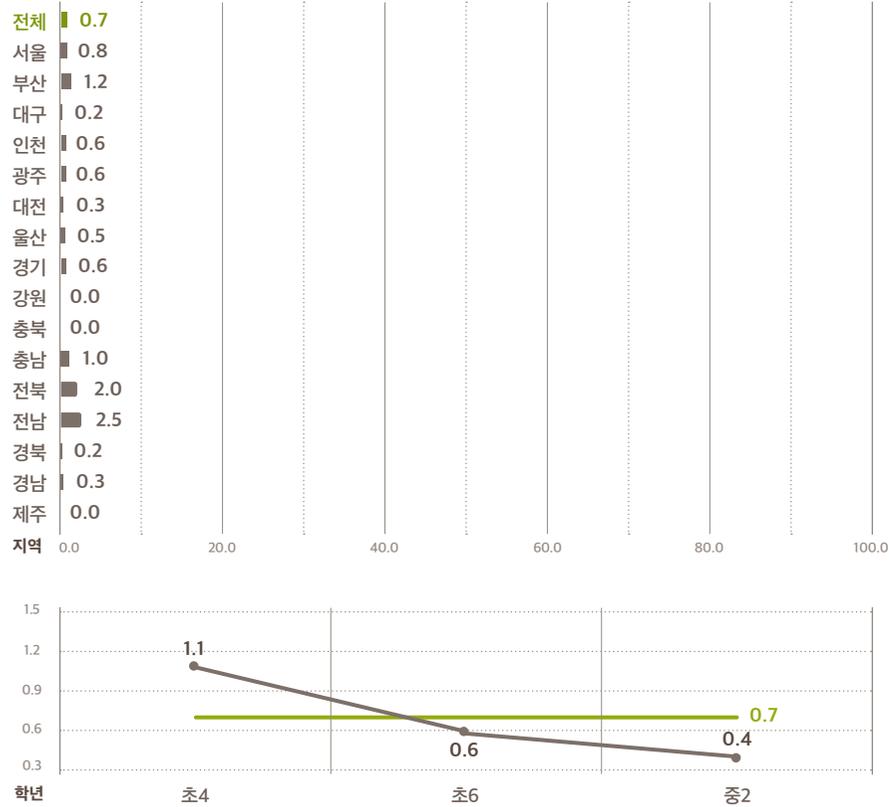


[그림 II-57]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4.8%가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중간정도의 신체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16개 시도 중 서울이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경험하는 아동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충북, 전북 순이었다. 이에 비해 강원은 0.7%의 아동만이 중간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한다고 응답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의 5.9%, 6학년의 4.5%, 중 2학년의 4.1%가 한달 평균 1회 이상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심각한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심각한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는 지난 1년간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이 아동을 훈육할 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두들겨 패셨다'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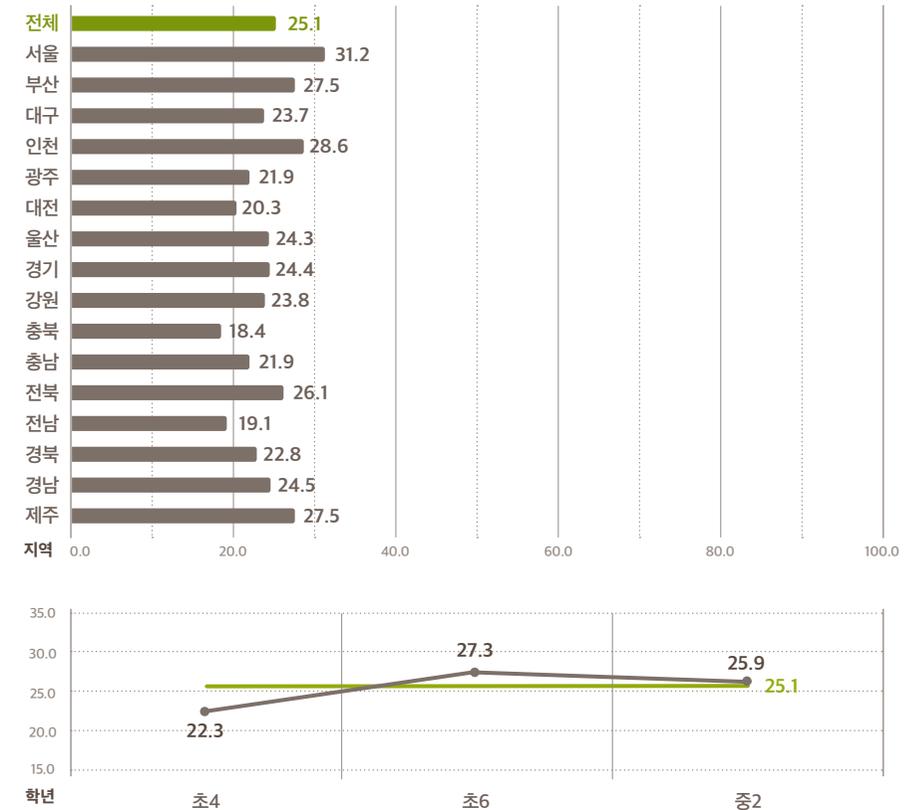


[그림II-58] 심각한 신체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0.7%이다. 16개 시·도중에는 전남이 2.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이 1.1%로 가장 높았고, 중 2학년이 0.4%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정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정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지표를 측정하는 문항은 지난 1년간 부모님(보호자)이나 가족이 아동을 훈육할 때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치셨다',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하셨지만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으셨다',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총 5개이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정서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해당 지역과 학년에 얼마나 있는지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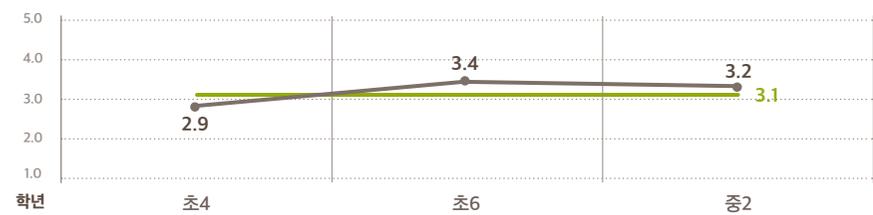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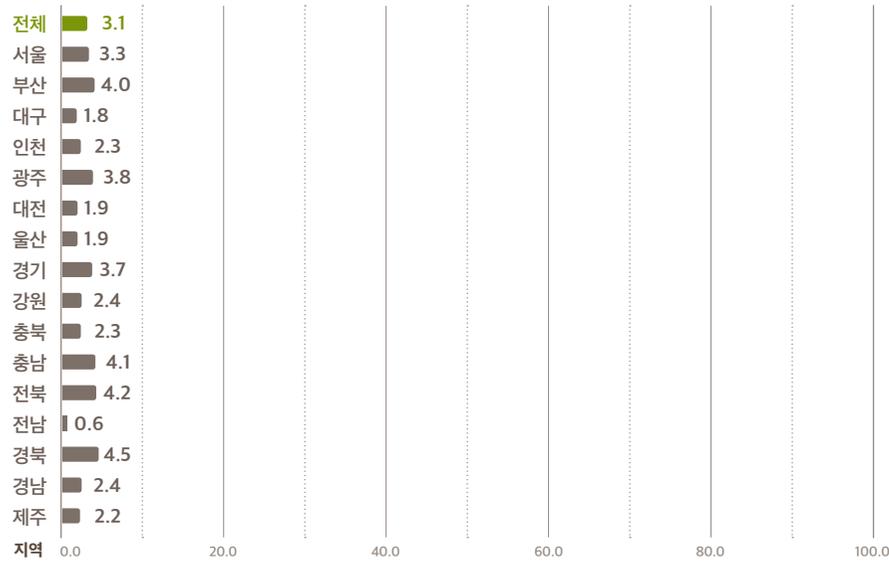


[그림II-59] 정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정서 학대 경험 지표의 전체 평균은 25.1%였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이 정서학대 지표 값이 30%를 넘었으며, 충북과 전남이 20%미만이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 22.3%, 6학년 27.3%, 중 2학년 25.9%가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정서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방임을 경험한 아동

방임을 경험한 아동 지표를 측정하는 문항은 '나를 혼자 두면 안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다',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셨다' 총 4개 이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방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해당 지역과 학년에 얼마나 있는지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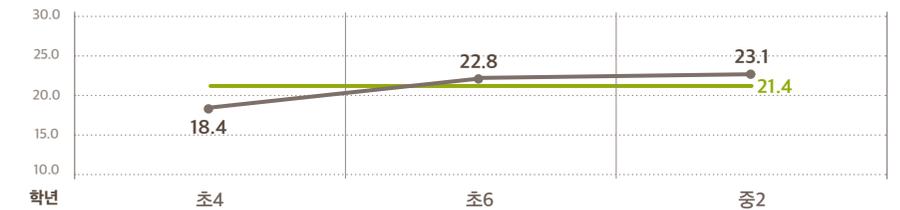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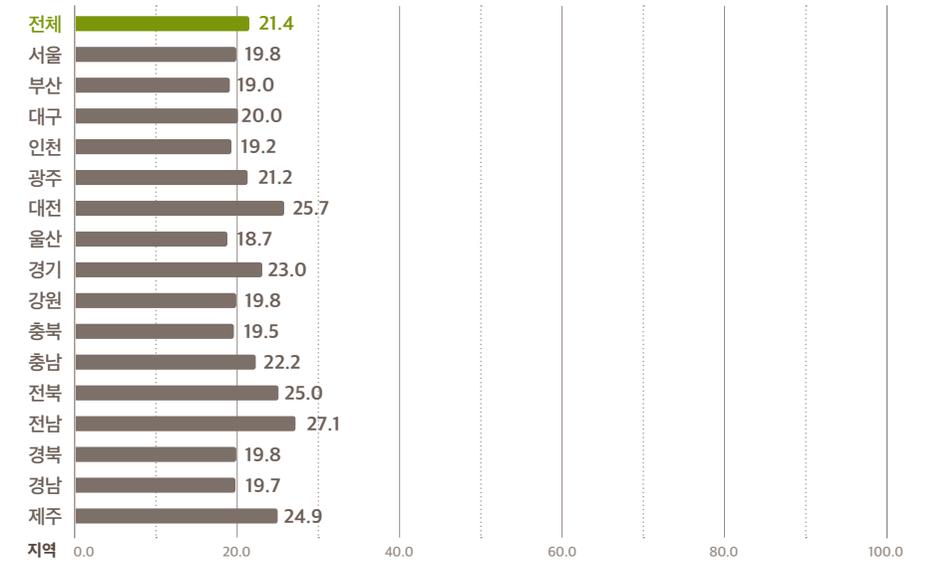


[그림II-60] 방임을 경험한 아동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방임을 경험한 전체 아동은 3.1%이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경북이 4.5%로 가장 높은 아동 방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전북, 충남 순으로 아동 방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6학년이 3.4%로 다른 학년에 비해 방임율이 다소 높았다.

• 나홀로 아동

나홀로 아동 지표는 부모(보호자)를 대상으로 평일 방과 후 아동이 부모(보호자)님이나 돌봐주는 성인 없이 형제/자매끼리만 있거나 혼자 있는 경우가 며칠이나 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중 일주일에 3일 이상 되는 혼자 있는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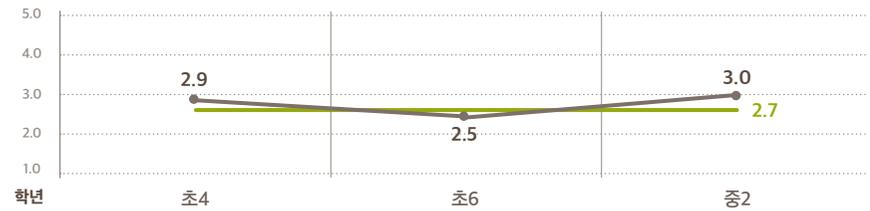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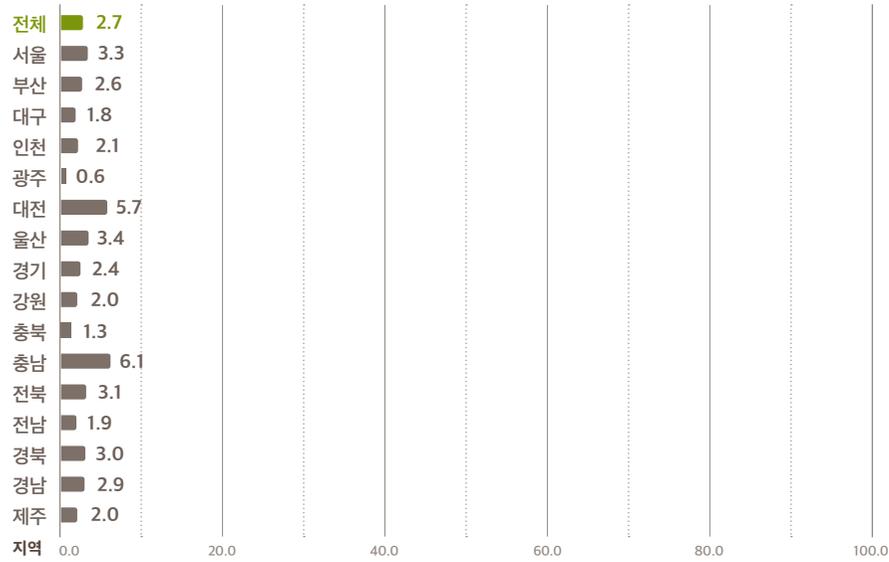


[그림II-61] 나홀로 아동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결과 평일 방과 후 아동이 돌봐주는 성인 없이 3일 이상 있게 되는 아동의 비율은 21.4%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7.1%로 나홀로 아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울산은 18.7%로 나홀로 아동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 2학년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 4학년이 18.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지표는 지난 1년간 아동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동의 신체를 만진 적이 있는지', '만지도록 시킨 적이 있는지',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의 3가지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의 항목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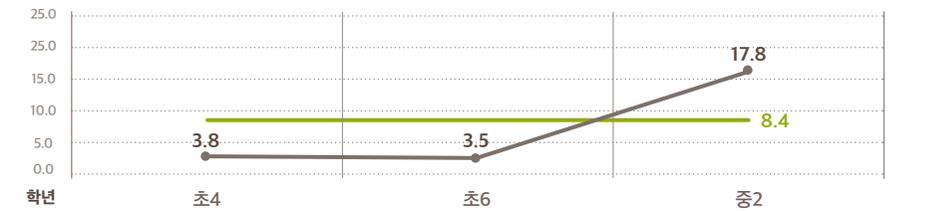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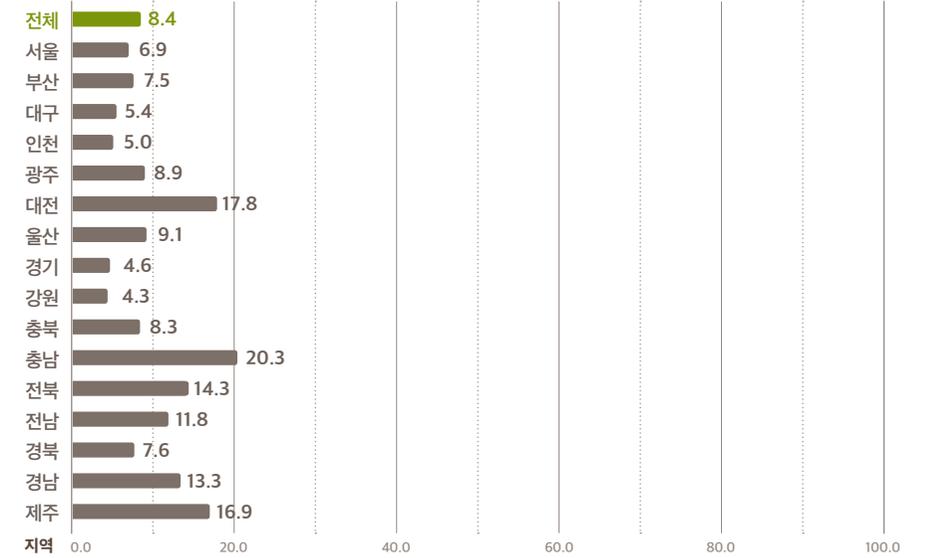


[그림II-62]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평균 2.7%가 지난 1년간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학대 경험 지표는 지역 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과 대전은 5%가 넘는 아동이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광주는 1% 미만의 아동이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4학년은 2.9%, 6학년 2.5%, 중 2학년 3.0%의 아동이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내 체벌 경험

학교 내 체벌 경험 지표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지역별, 학년별로 학교 체벌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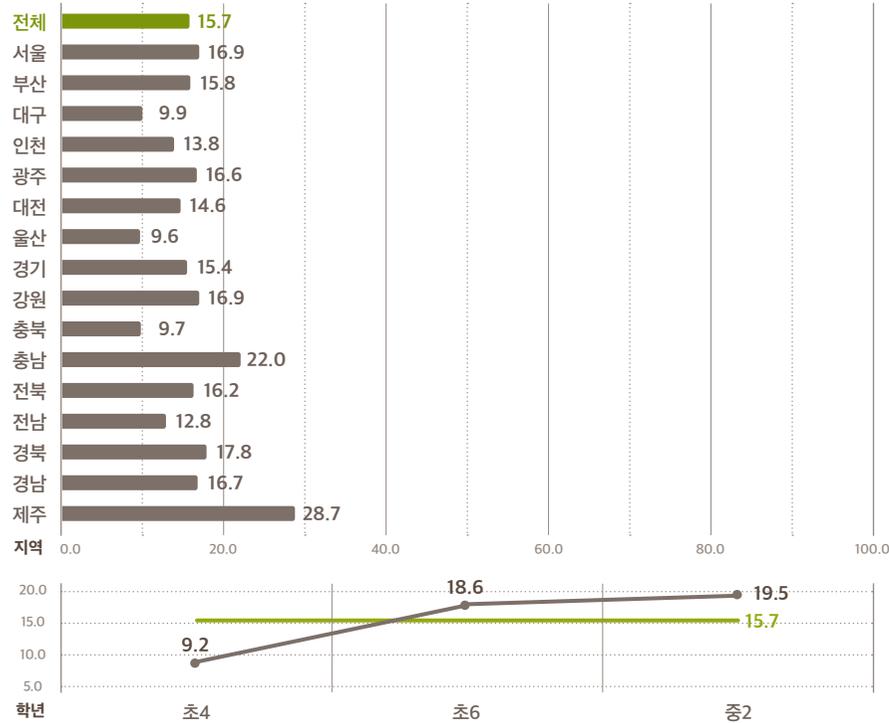


[그림II-63] 학교내 체벌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8.4%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내 체벌 경험의 지역 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충남이 20.3%로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17.8%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하여 경기 4.6%, 강원 4.3%로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체벌 경험 격차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은 4% 미만의 아동이 체벌 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지만, 중 2학년의 경우 17.8%가 학교 내에서 체벌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 학교폭력 가해 경험

학교폭력 가해 경험 지표는 아동이 또래에게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다른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다른 아이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다른 아이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다른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어떤 아이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의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인 학교폭력 가해를 행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이 해당 지역과 학년에 얼마나 있는지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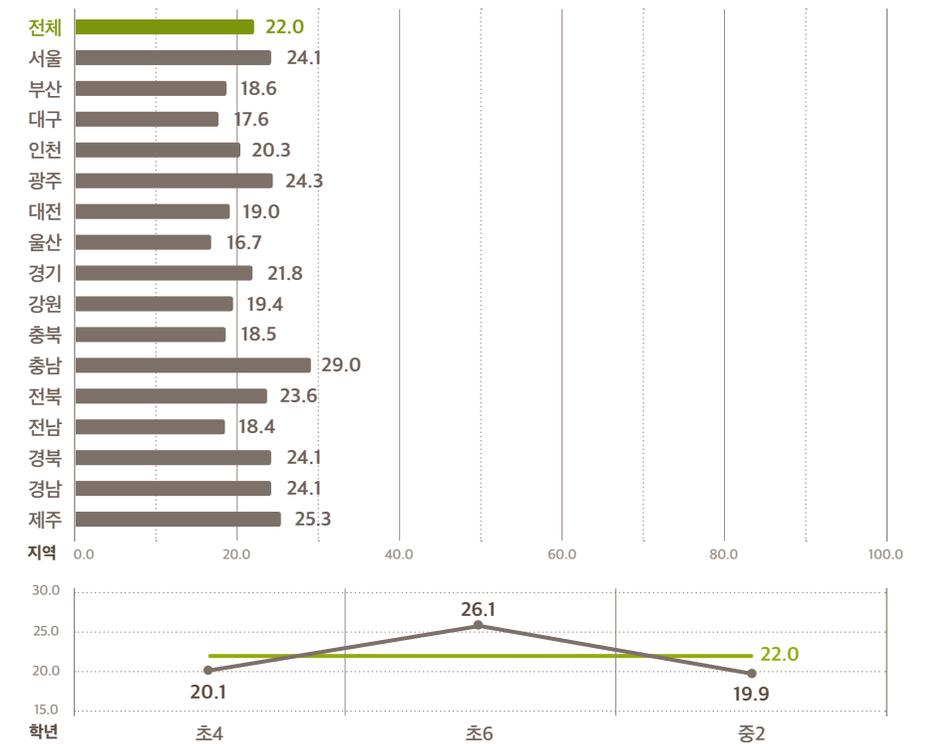


[그림 11-64]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15.7%가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또래를 괴롭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와 충남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 지표의 값이 높은 지역에 속했으며, 울산, 충북, 대구는 10%미만의 수치로 낮은 지역에 속하였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초 4학년에 비해 초 6학년과 중 2학년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지표는 아동이 또래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7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7개 항목은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나의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나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나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나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이다. 이 중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한 달 평균 1회 이상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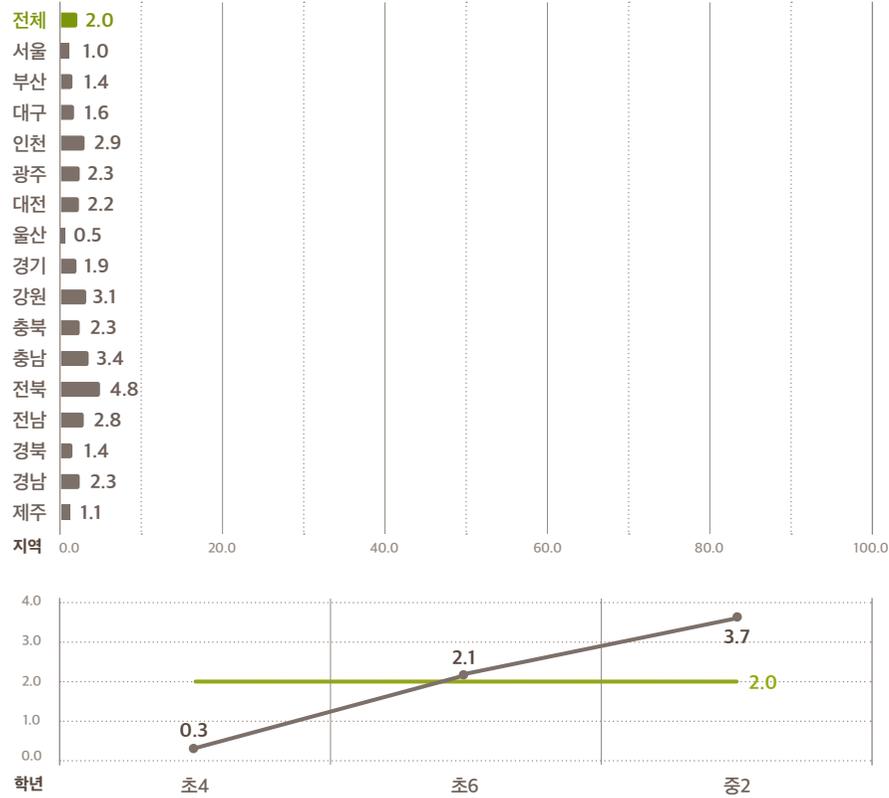


[그림 11-65]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지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2.0%였다. 16개 시·도 중에서는 충남이 29.0%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지표 값이 20%가 넘는 지역은 충남을 비롯해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이며, 20%가 넘지 않는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남이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6학년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지표 값이 가장 높았으며, 중 2학년이 가장 낮았다.

•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지표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악플을 달아 본 적이 있다'와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를 행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이 해당 지역과 학년에 얼마나 있는지를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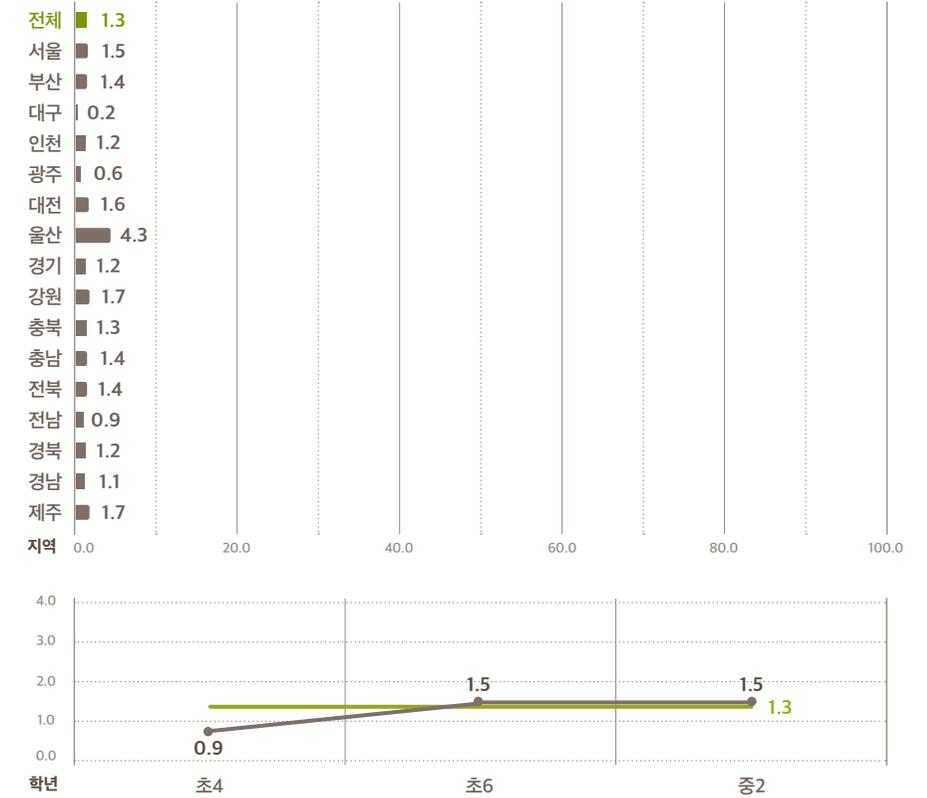


[그림II-66]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사이버 폭력 가해를 행한 아동은 2.0%이다. 지역별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지표 값을 살펴보면, 전북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이 0.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학년별 비교에서는 초 4학년은 다른 학년에 비해 1% 미만의 낮은 값을 보고하였지만, 초 6학년과 중 2학년은 각각 2.1%, 3.7%를 나타냈다.

•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지표는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보거나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다'와 '인터넷 공간에서 누군가로부터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였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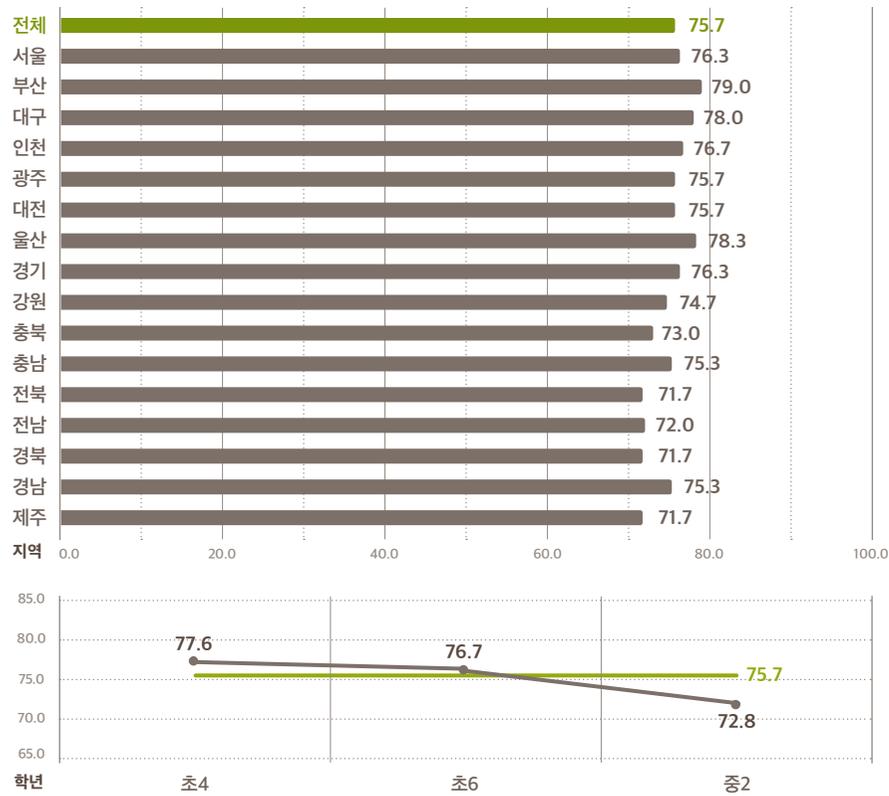
[그림II-67]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1.3%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4.3%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대구와 광주는 각 0.2%, 0.6%로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율이 낮게 보고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6학년과 중 2학년이 1.5%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초 4학년은 0.9%로 학년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④ 참여권 경험

•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중요한 집안일을 비롯하여 학업, 진로, 문화·여가·취미 생활 등에 대하여 아동이 부모(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존중받는지 정도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 아동의 평균값을 계산한 후 지역별, 학년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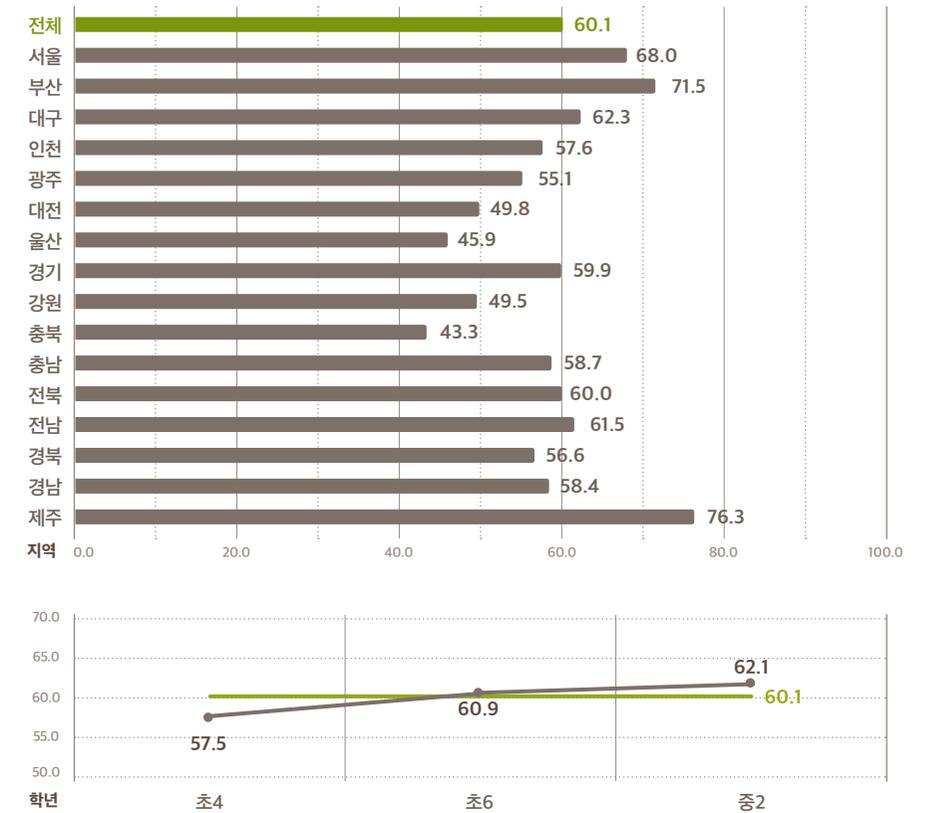


[그림II-68]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집안일, 학업, 진로·문화·여가·취미 생활과 관련하여 부모(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존중의 전체 아동 평균은 75.7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 경북, 제주가 71.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에서 중 2학년으로 갈수록 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존중을 받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아리 활동 참여

동아리 활동 참여 지표는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로 나타냈다. 전체 아동의 조사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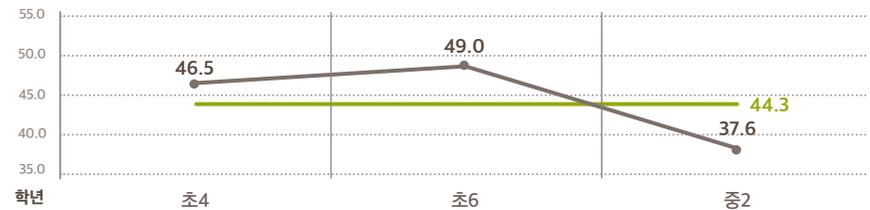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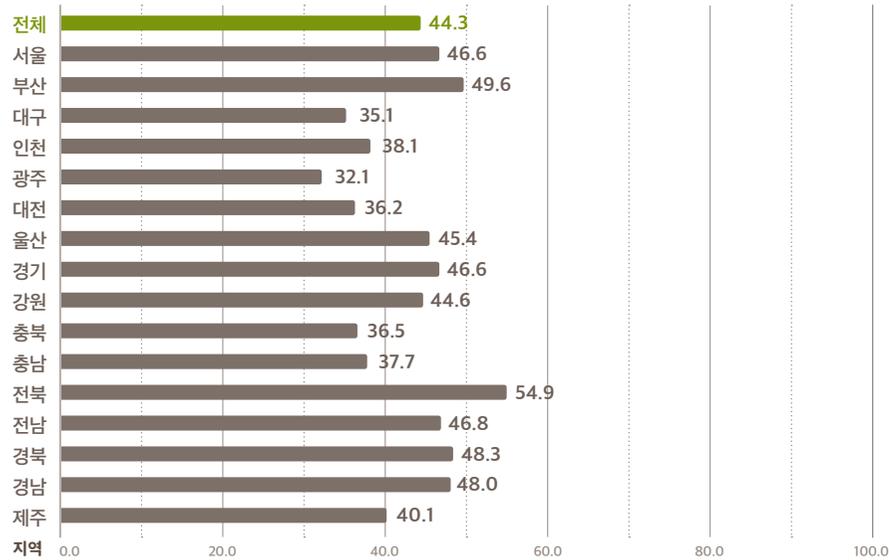


[그림II-69] 동아리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60.1%가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71.5%, 서울 68.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충북은 43.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참여경험은 지역별 편차가 큰 것을 확인되었는데, 활동 참여가 가장 낮은 충북과 가장 높은 제주지역을 비교하면 약 1.8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 비교결과, 초 4학년은 57.5%, 초 6학년은 60.9%, 중 2학년은 62.1%로 학년이 올라 갈수록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캠페인 활동 참여

캠페인 활동 참여 지표는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아동의 조사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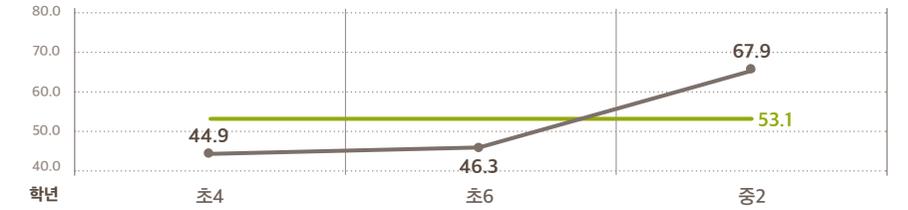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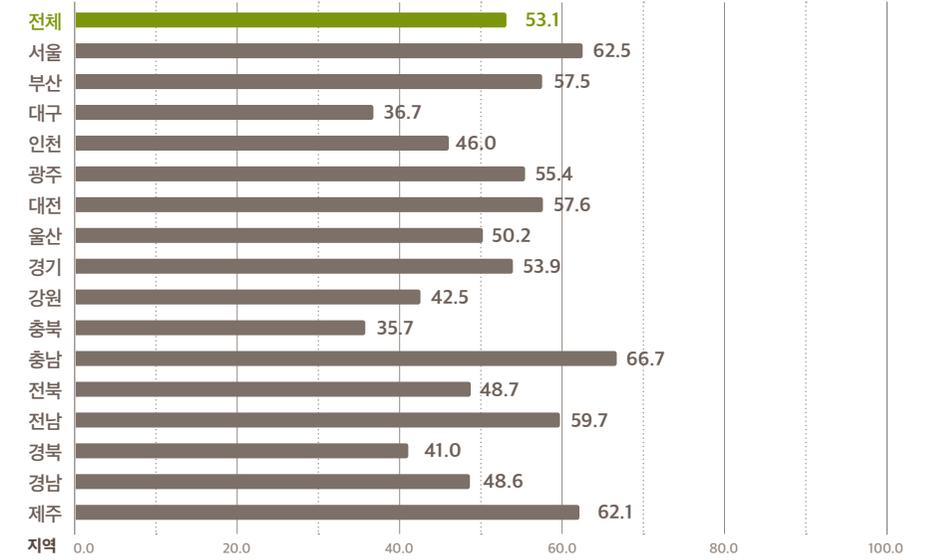


[그림II-70] 캠페인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44.3%가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 54.9%, 부산이 49.6%로 캠페인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이에 비하여 대구와 광주는 각각 35.1%, 32.1%로 캠페인 참여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6학년이 49.0%로 캠페인 참여 경험이 가장 높았고, 중 2학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원봉사 활동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지표는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 아동의 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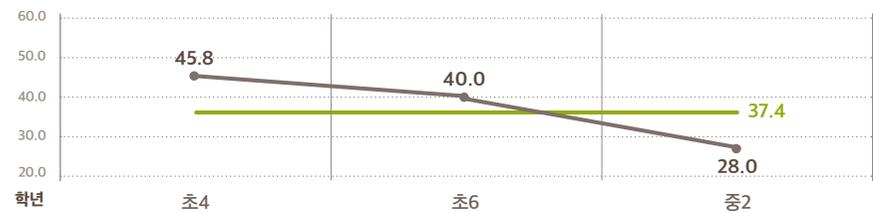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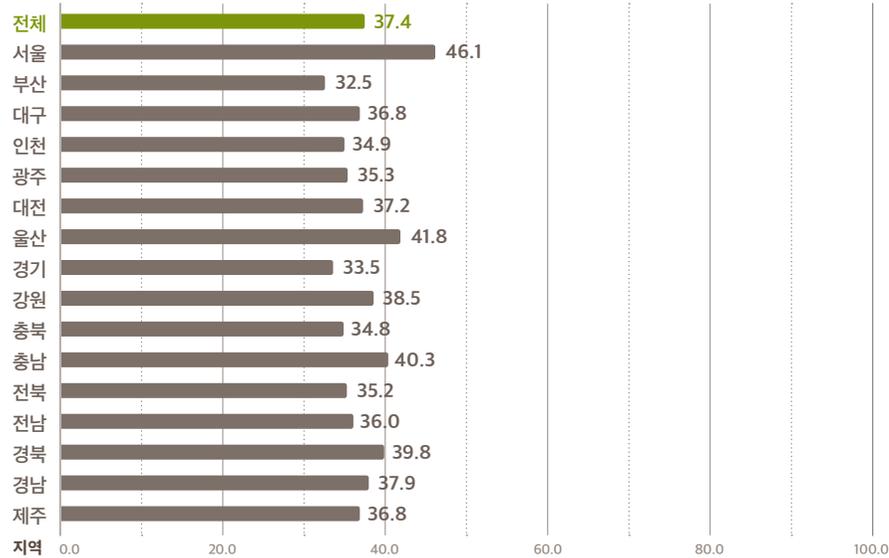


[그림II-71]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53.1%가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 62.5%, 제주 62.1% 순이었다. 이에 비하여 충북이 3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충남이 100명 중 약 67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반면 충북은 100명 약 36명만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 2학년이 67.9%로 가장 높았고, 초 4학년이 44.9%로 가장 낮았다.

•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기부 및 후원활동 참여 지표는 지난 1년간 기부 및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전체 조사 아동의 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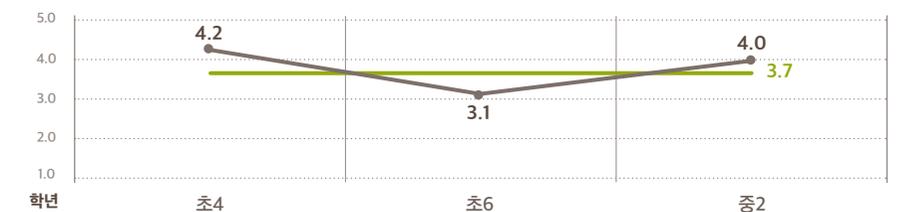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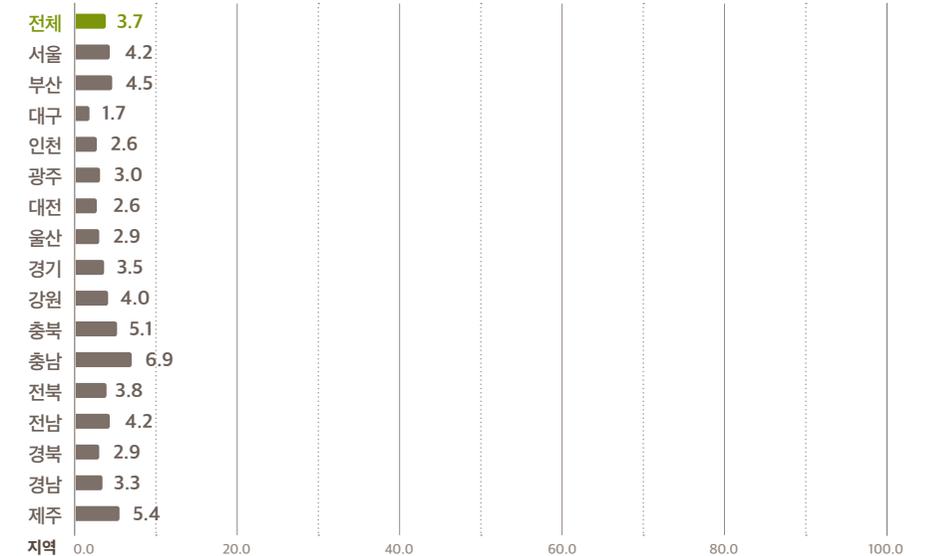


[그림II-72]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37.4%가 지난 1년간 기부 및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6.1%, 울산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가 33.5%, 부산이 3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책 활동 참여

정책 활동 참여 지표는 지난 1년간 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자치위원회 등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조사 아동의 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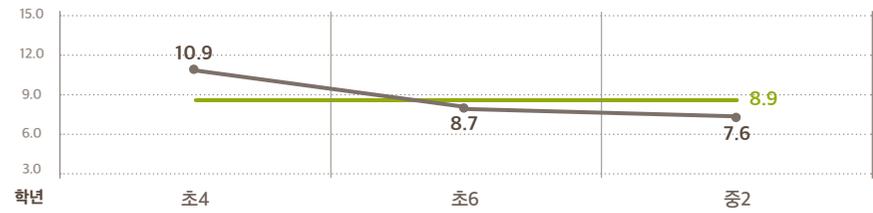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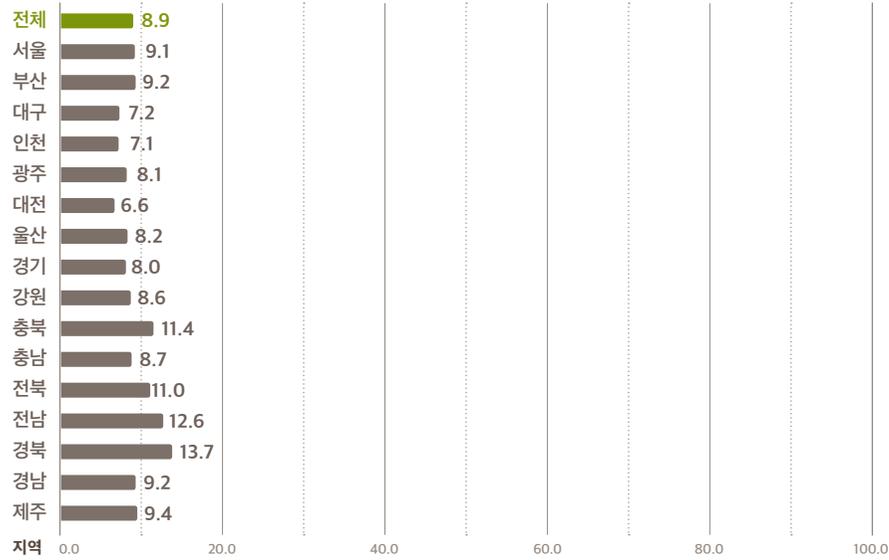


[그림II-73] 정책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3.7%가 지난 1년간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가 5.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은 2.6%, 대구는 1.7%로 아동의 정책 활동 참여 경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 4.2%, 초 6학년 3.1%, 중 2학년 4.0%의 아동이 지난 1년간 정책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교류 활동 참여

교류 활동 참여 지표는 지난 1년간 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지역 청소년 등과 만나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 조사 아동의 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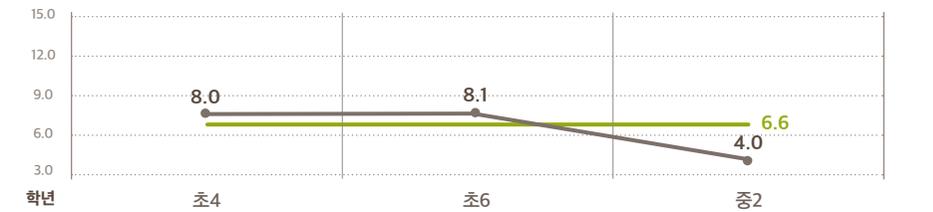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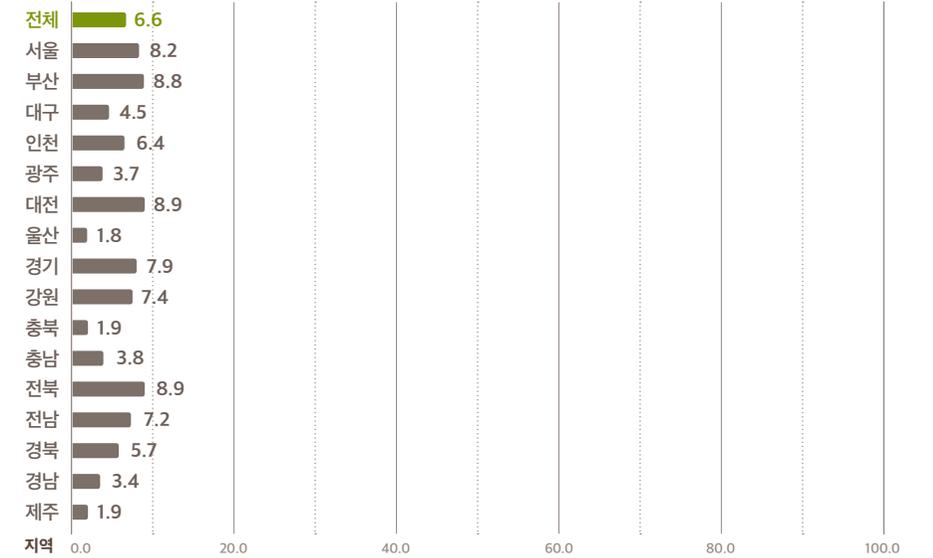


[그림II-74] 교류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8.9%가 지난 1년간 교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1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이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하여 대전은 6.6%로 아동의 교류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은 10.9%, 초 6학년은 8.7%, 중 2학년은 7.6%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류 활동 참여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동권리교육 참여

아동권리교육 참여지표는 지난 1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한다. 전체 아동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 학년별로 제시하였다.



[그림II-75] 아동권리교육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6.6%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과 전북이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초 4학년과 초 6학년은 각 8.0%, 8.1%로 권리교육 참여율에 차이가 없었으나 중 2학년은 4.0%로 다른 학년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	지역(n=16)				학년(n=3)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보호권	학대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0.6	6.1	2.8	1.435	2.5	3.0	2.8	0.265
		학교내 체벌 경험	4.3	20.3	10.1	5.040	3.5	17.8	8.4	8.171
	폭력	학교폭력 가해 경험	9.6	28.7	15.9	4.746	9.2	19.5	15.8	5.705
		학교폭력 피해 경험	16.7	29.0	21.6	3.470	19.9	26.1	22.0	3.523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	0.5	4.8	2.2	1.070	0.3	3.7	2.0	1.701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0.2	4.3	1.4	0.864	0.9	1.5	1.3	0.346
참여권	존중	의견존중을 받아본 경험	71.7	79.0	75.1	2.448	72.8	77.6	75.7	2.521
	참여 활동	동아리 활동 참여	43.3	76.3	58.4	8.817	57.5	62.1	60.2	2.386
		캠페인 활동 참여	32.1	54.9	42.9	6.414	37.6	49.0	44.4	5.992
		자원봉사 활동 참여	35.7	66.7	51.6	9.430	44.9	67.9	53.0	12.894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32.5	46.1	37.3	3.412	28.0	45.8	37.9	9.078
		정책 활동 참여	1.7	6.9	3.8	1.281	3.1	4.2	3.8	0.586
		교류 활동 참여	6.6	13.7	9.2	1.988	7.6	10.9	9.1	1.680
		아동권리교육 참여	1.8	8.9	5.7	2.648	4.0	8.1	6.7	2.339

(3) 발달결과

① 건강

•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정도 지표는 아동의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매우 나쁘다’(1점), ‘나쁘다’(2점), ‘보통이다’(3점), ‘건강하다’(4점), ‘매우 건강하다’(5점)으로 측정하도록 한 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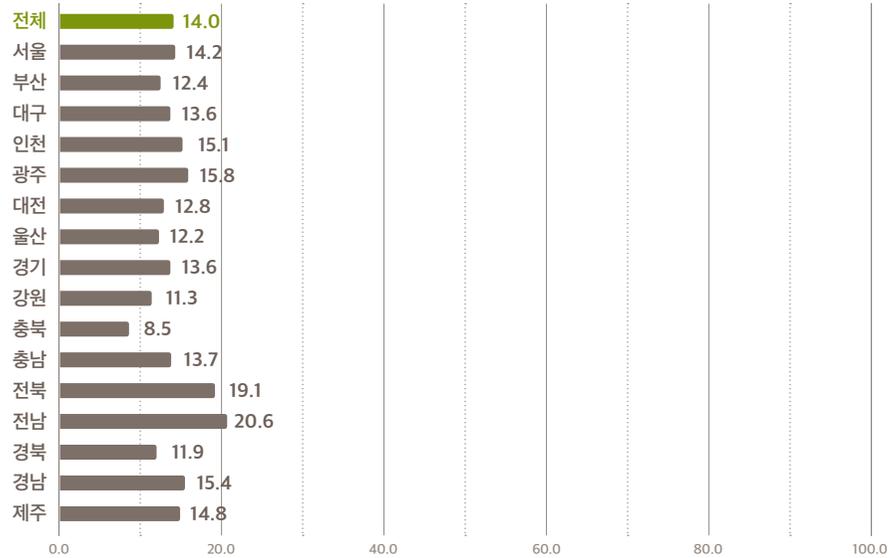


[그림 II-76]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아동의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보통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한 전체 평균은 72.5점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7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북이 6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만성질환 유병율

만성질환 유병율은 아동에게 천식,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부모(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한 뒤 지역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비율이 높을수록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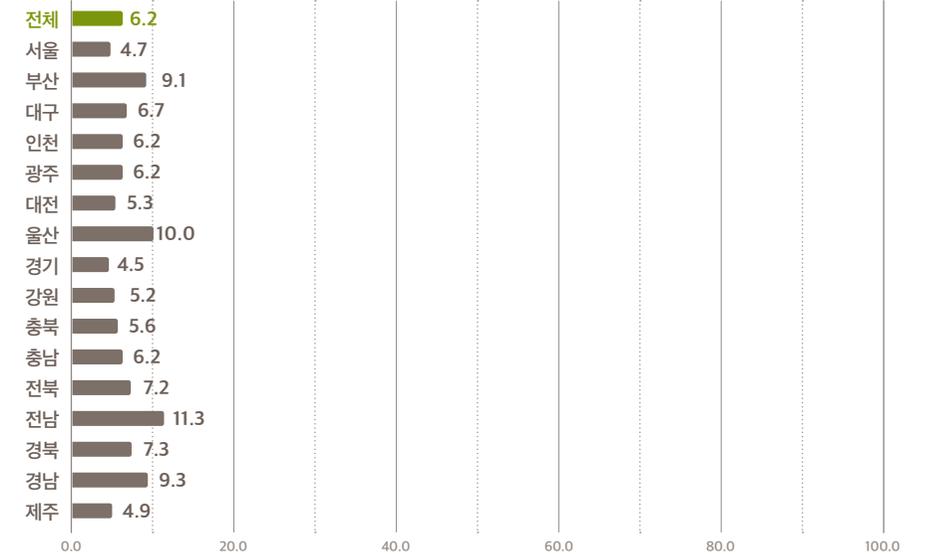


[그림II-77] 만성질환 유병율

아동에게 천식,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아동 중 14.0%가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19.1%), 광주(15.8%) 순이었다. 이에 비하여 충북(8.5%)으로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아동의 만성질환 유병율이 10% 미만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입원 경험율

입원 경험율은 지난 1년간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뒤 지역별 비율을 제시하였다. 비율이 높을수록 입원 경험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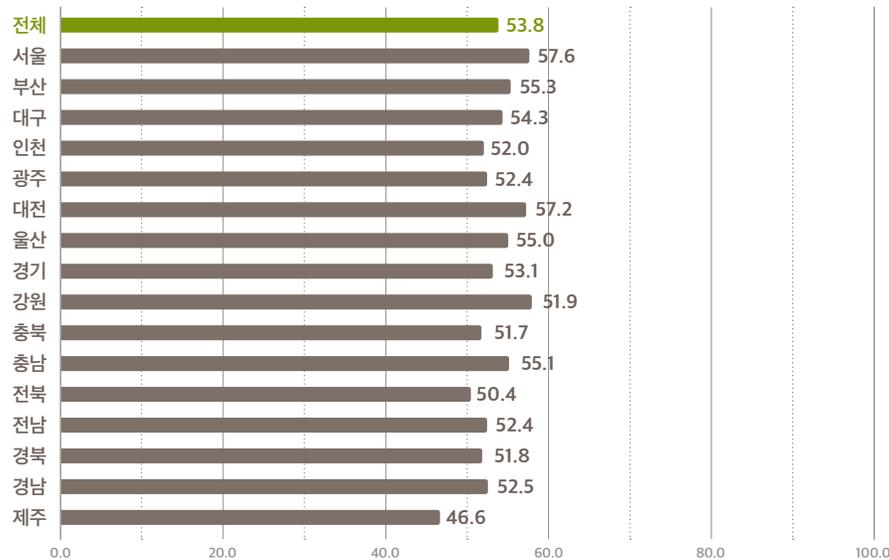
[그림II-78] 입원 경험율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지난 1년 간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아동이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아동 중 6.2%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11.3%, 울산이 10.0%, 경남 9.3%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입원경험율이 5% 미만의 낮은 지역은 제주, 서울, 경기 지역이었다. 이 중 경기도는 4.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② 인지

• 전반적인 학업성취 : 초등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 지표는 '매우 못함' 0점에서부터 '매우 잘함'의 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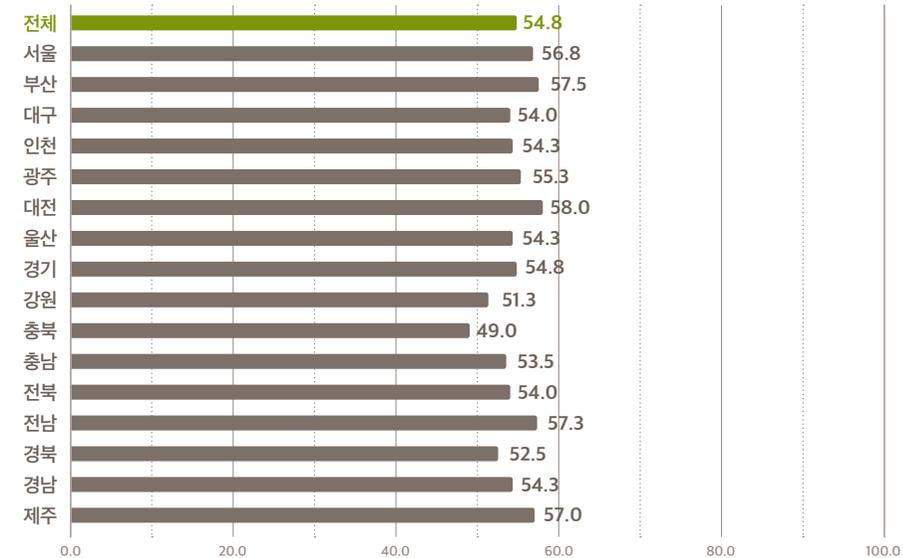


[그림II-79] 전반적인 학업성취: 초등

전체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의 평균은 53.8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제주가 46.6점으로 유일하게 50점 미만의 점수를 보였다.

• 전반적인 학업성취 : 중등

중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 지표는 '매우 못함' 1점에서부터 '매우 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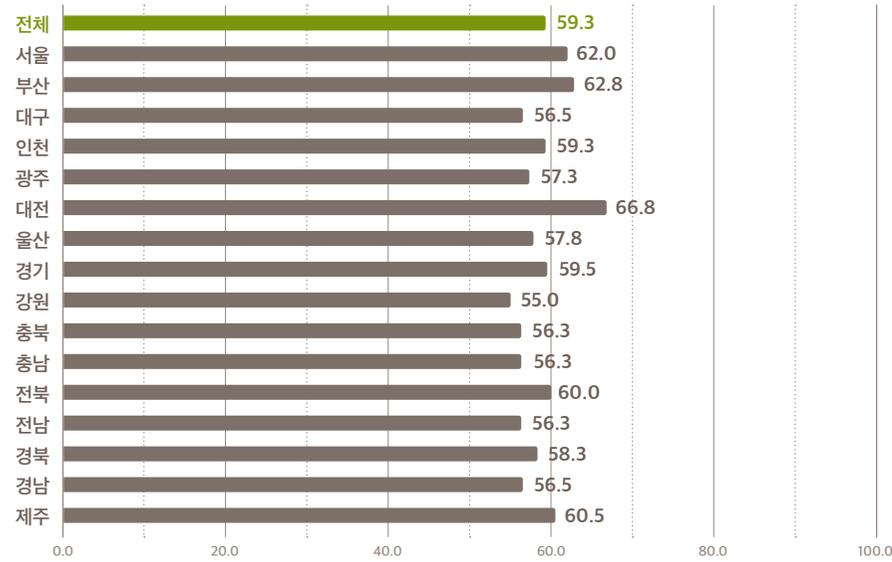


[그림II-80] 전반적인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의 평균은 54.8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5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부산(57.5점), 전남(57.3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신의 전반적인 학업성적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충북은 49.0점으로 유일하게 전반적인 학업성취 점수가 50점을 미치지 못하였다.

• 국어 학업성취 : 중등

국어 학업성취 지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우 못함'에서부터 '매우 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국어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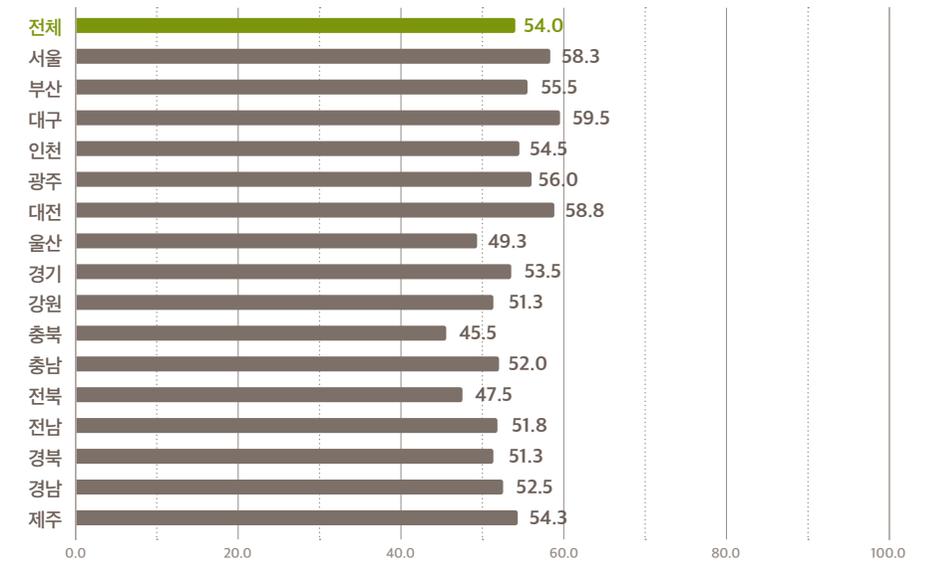


[그림II-81] 국어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국어 학업성취 평균은 59.3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6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이 62.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충북, 충남, 전남이 56.3점, 충북이 5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수학 학업성취 : 중등

수학 학업성취 지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우 못함'에서부터 '매우 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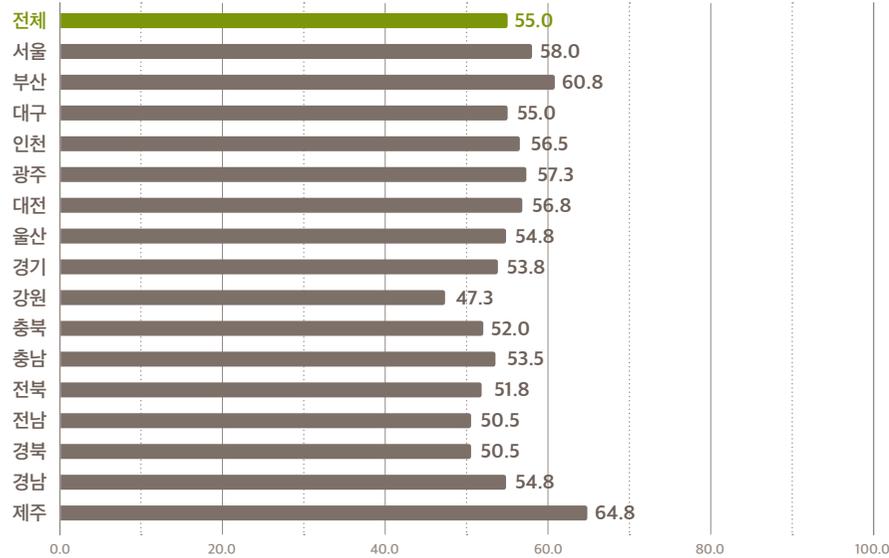


[그림II-82] 수학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 평균은 54.0점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5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58.8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울산(49.3점), 충북(45.5점), 전북(47.5점) 지역은 지역 평균 점수가 50점을 넘지 못하였다.

• 영어 학업성취 : 중등

영어 학업성취 지표는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매우 못함'에서부터 '매우 잘함'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스스로 인지하는 영어 학업성취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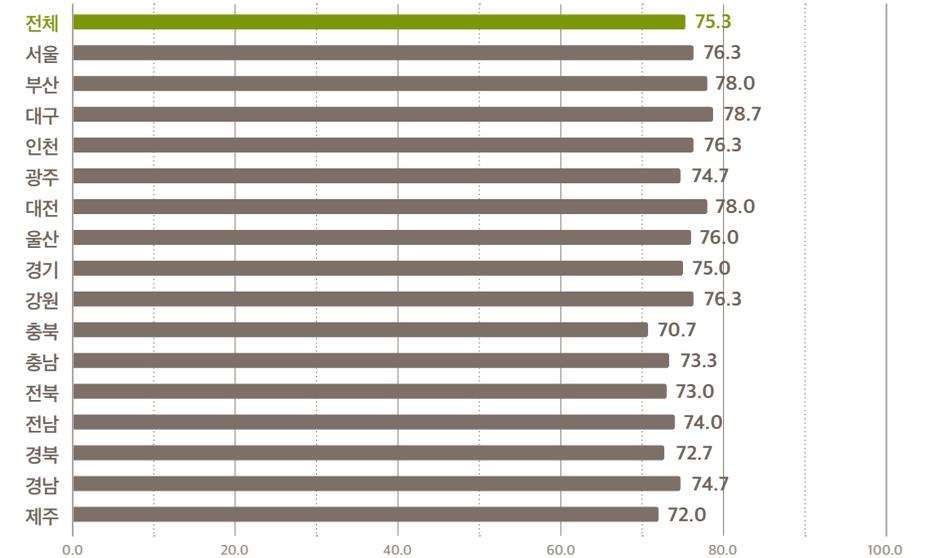
[그림II-83] 영어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 평균은 55.0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6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산이 60.8점으로 60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강원은 47.3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영어 학업성취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사회정서

• 자아존중감

아동이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8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8개 문항은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에게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느낀다'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개인의 평균 점수를 구한 뒤 지역별 평균 점수를 계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인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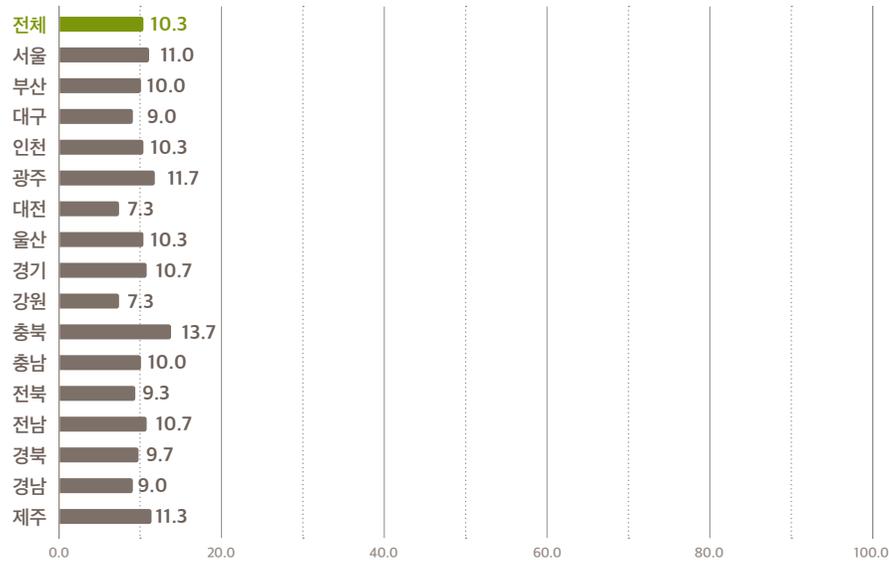


[그림II-84] 자아존중감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75.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대구가 78.7점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북은 70.7점으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우울 정서

아동의 우울 정서 지표는 아동이 지난 1주일간 두려움, 외로움, 슬픔과 같은 우울한 기분을 느낀 정도를 7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전혀 없다'(1점), '1주일에 1~2번'(2점), '1주일에 3~4번'(3점), '거의 매일'(4점)의 4점 척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개인의 평균 점수를 구한 뒤 지역별 평균 점수를 계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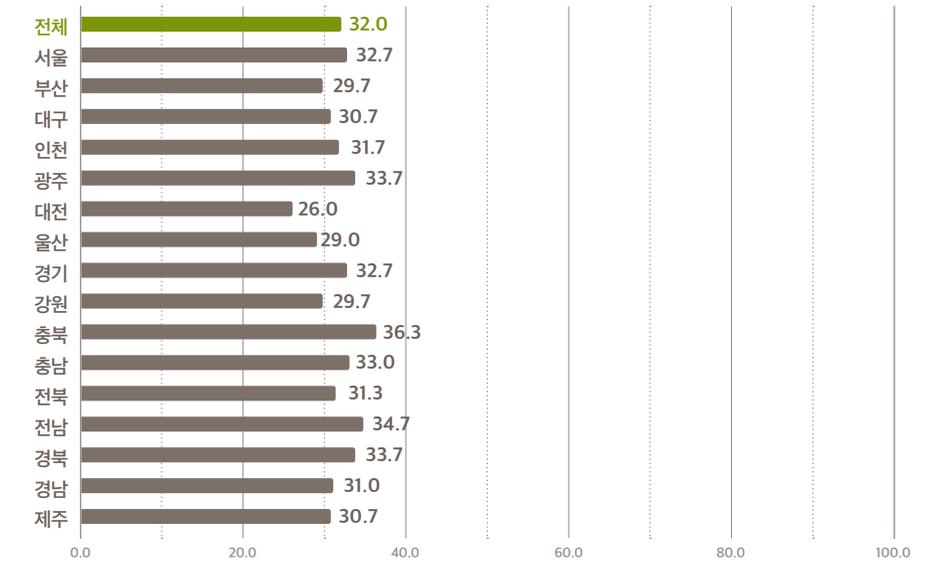


[그림II-85] 우울 정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우울 수준이 높지 않았으나, 지역간 편차는 나타났다. 충북이 13.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의 우울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과 강원은 7.3점으로 우울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불안 정서

아동의 불안 정서 지표는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평소에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등의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없다'(1점), '1주일에 1~2번'(2점), '1주일에 3~4번'(3점), '거의 매일'(4점)의 4점 척도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아동의 개인의 평균 점수를 구한 뒤 지역별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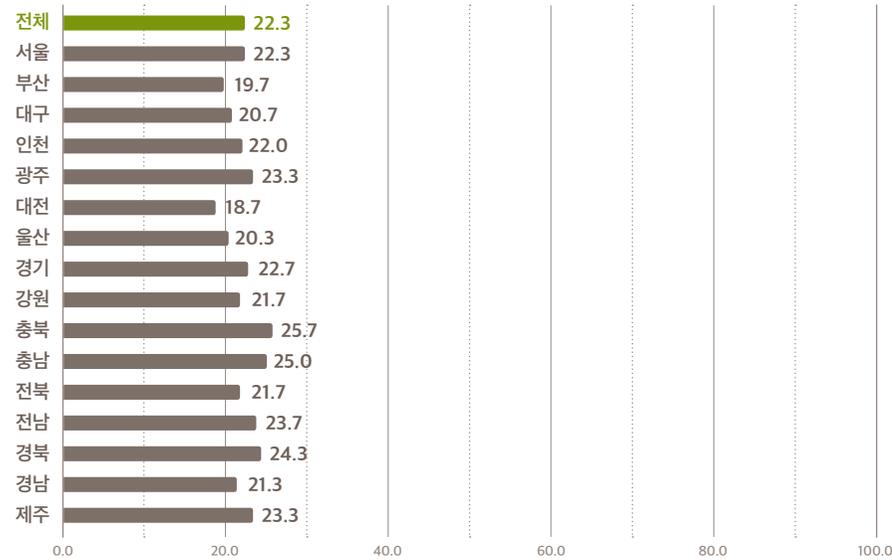


[그림II-86] 불안 정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불안 수준은 평균 32.0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36.3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26.0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불안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공격적 행동

아동의 공격적 행동 지표는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남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있다' 등의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4점 척도로 범주화 하였으며, 아동의 개인의 평균 점수를 구한 뒤 지역별 평균 점수를 계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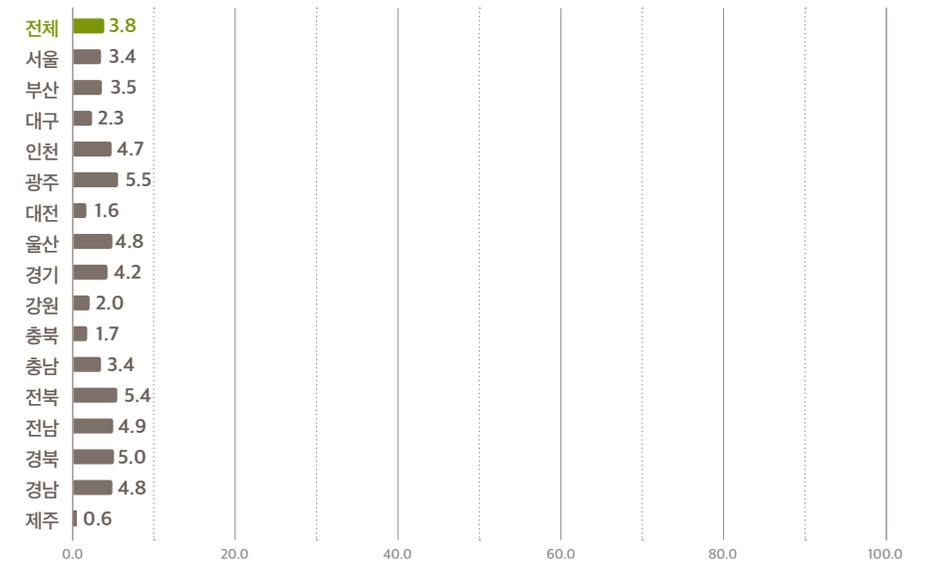


[그림II-87] 공격적 행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평균 22.3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25.7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공격성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전이 18.7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공격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지위비행 경험

지위비행 경험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출 경험의 여부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지위비행의 4개 항목 중 1개의 항목이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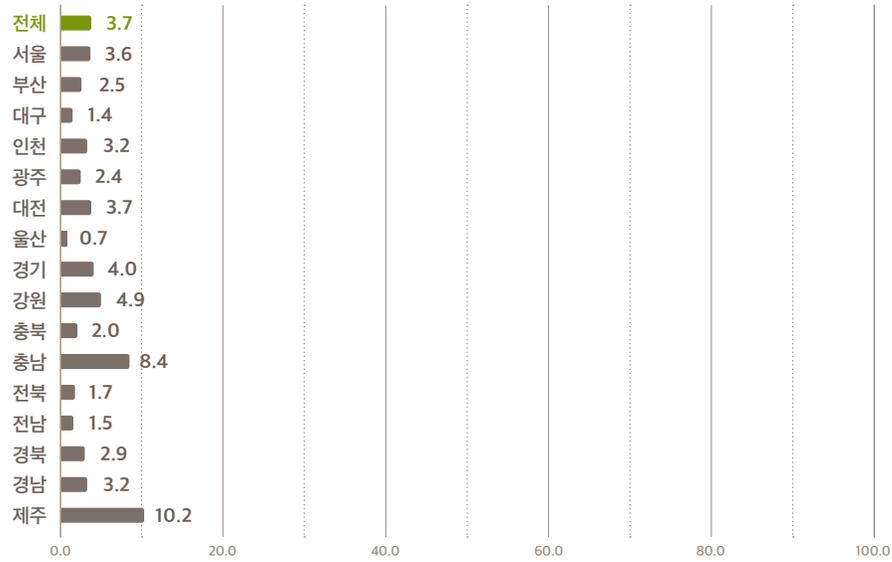


[그림II-88] 지위비행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 간 지위비행 경험은 3.8%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가 5.5%로 아동의 지위비행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북이 5.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하여 대전과 제주는 각각 1.6%, 0.6%로 아동의 지위비행 경험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폭력비행 경험

폭력비행 경험은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사람 따돌리기,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패싸움 경험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폭력비행 5개 항목 하나라도 '예'로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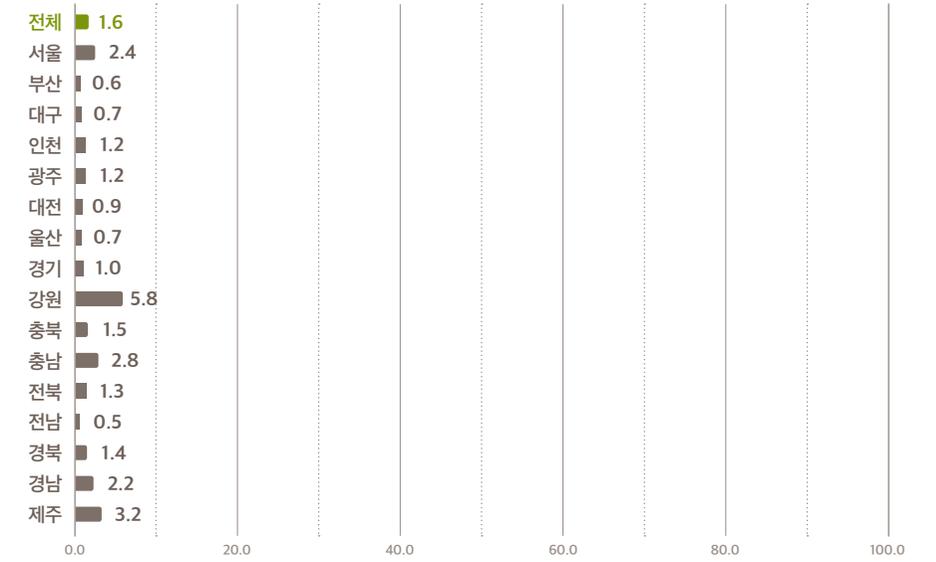


[그림II-89] 폭력비행 경험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의 지난 1년 간 폭력비행 경험은 3.7%로 나타났다. 폭력비행 경험의 지역간 격차는 크게 나타났는데, 5%를 넘는 지역은 충남과 제주로 각각 8.4%, 10.2%였다. 이에 반면, 대구, 울산, 전북, 전남 지역은 폭력비행 경험이 2%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산비행 경험

재산비행 경험은 초등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빼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돈을 걸고 하는 도박 게임 경험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재산비행의 3개 항목 중 1개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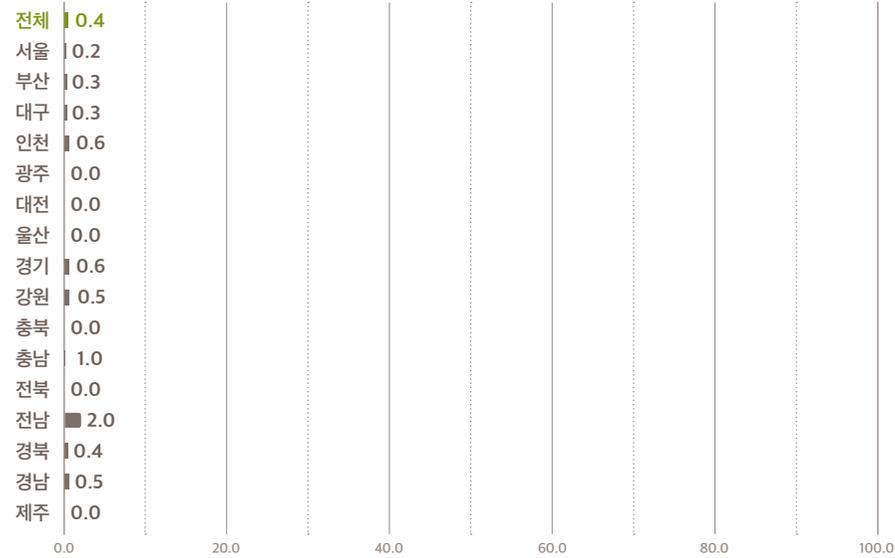


[그림II-90] 재산비행 경험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의 지난 1년 간 재산비행 경험은 1.6%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이 5.8%로 유일하게 5%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전남 아동의 재산비행 경험은 1%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성비행 경험

성비행 경험은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성관계를 비롯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경험이 있는지를 '예', '아니오'로 측정하였다. 각 항목에 1개라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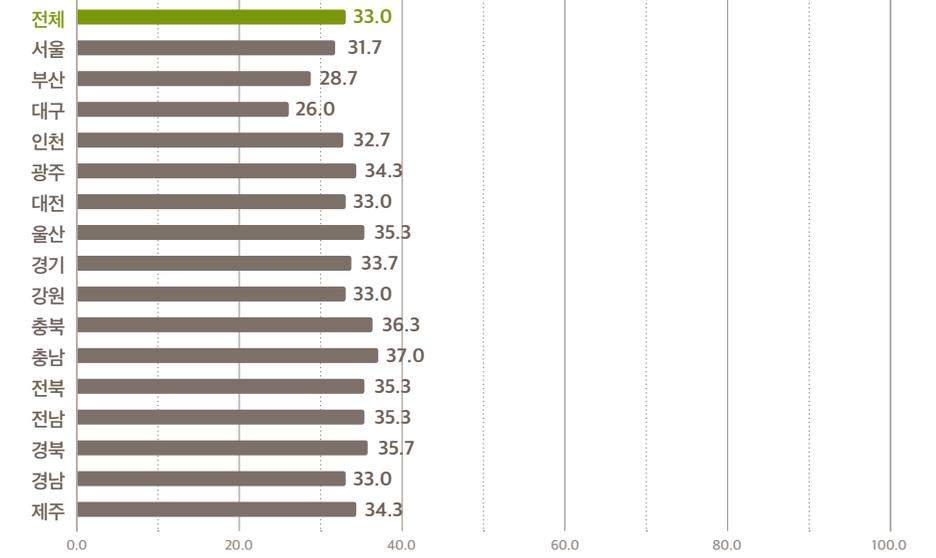


[그림II-91] 성비행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지난 1년 간 성비행 경험은 0.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의 성비행 경험은 1%미만으로 확인되었지만, 충남과 전남은 각 1.0%와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인터넷 중독 정도

인터넷 중독 지표는 아동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내성 및 금단현상에 대하여 8개 문항으로 평가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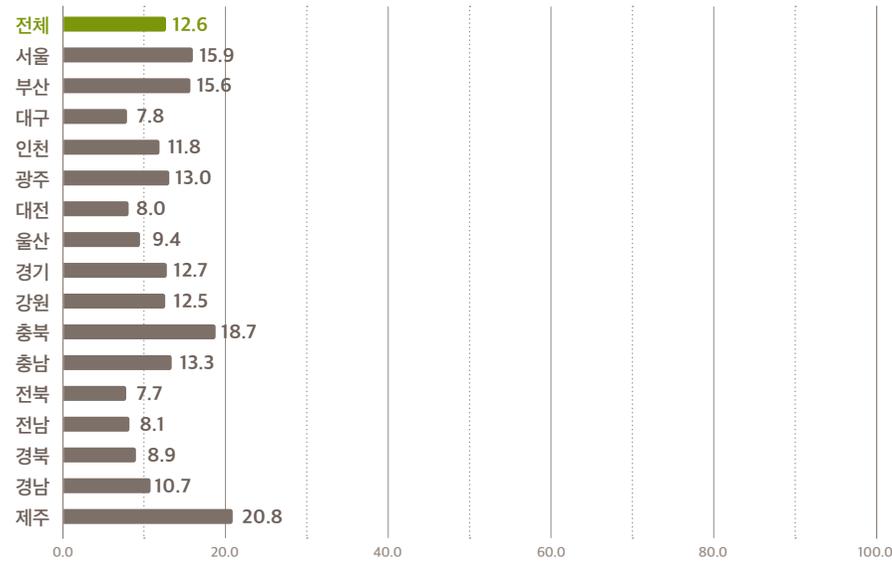


[그림II-92] 인터넷 중독 정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평균 33.0점으로 확인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남이 37.0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인터넷 중독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가 26.0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터넷 중독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살 생각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로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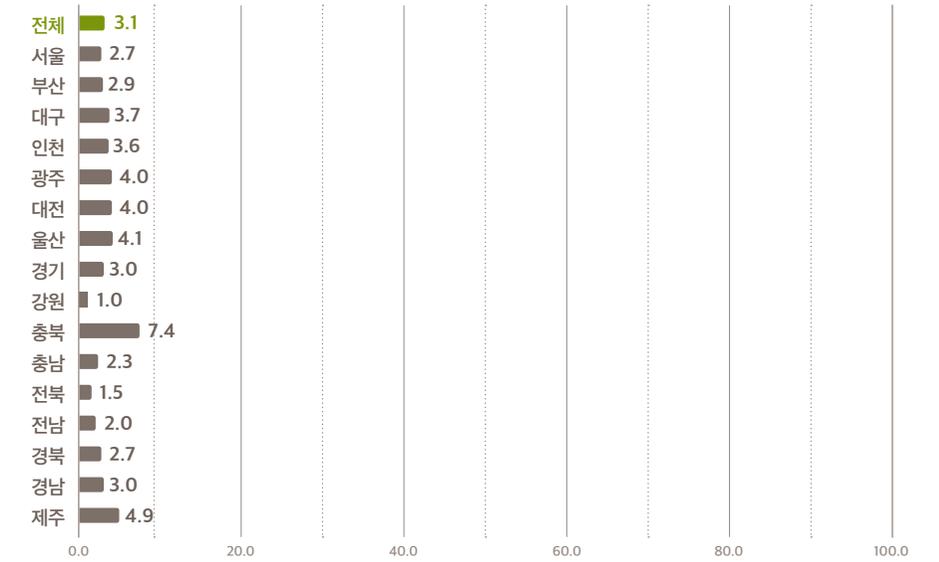


[그림II-93] 자살 생각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 중 12.6%가 지난 1년 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2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북이 18.7%로 그 뒤를 이었다. 대구,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북은 10% 미만으로 기록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자살 시도 계획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진지하게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본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로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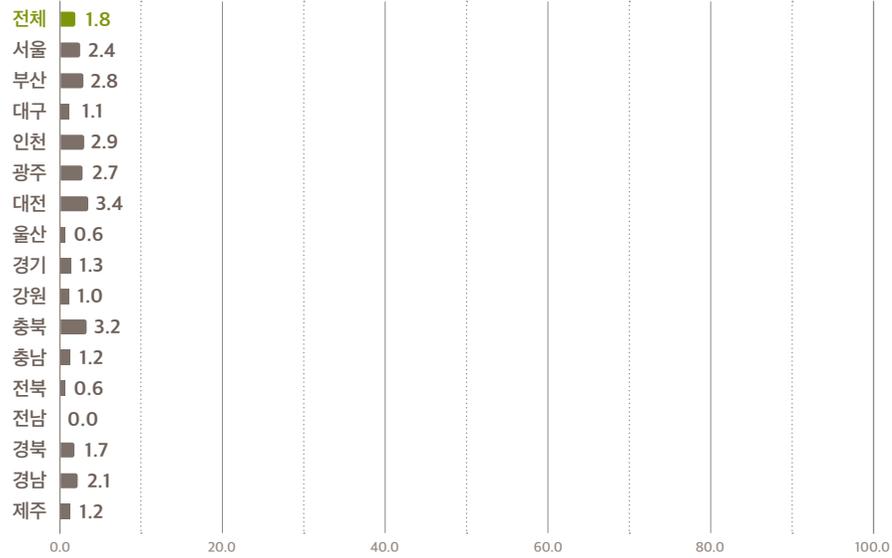


[그림II-94] 자살시도 계획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 중 3.1%가 지난 1년 간 진지하게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가 4.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하여 강원은 1.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살 시도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이 지난 1년 동안 실제 자살을 시도해 본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지역별로 '예'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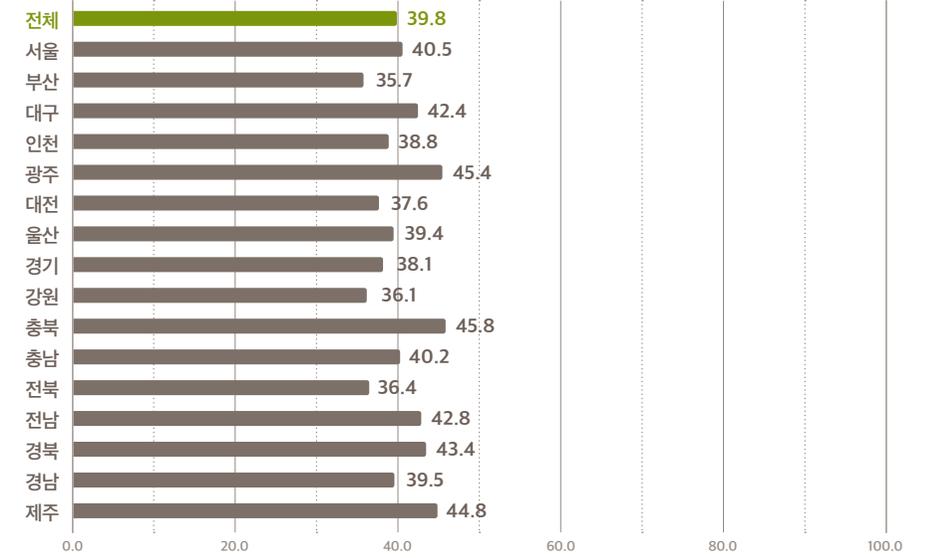


[그림II-95] 자살 시도

초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 중 1.8%가 지난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3.4%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으로 충북 3.2%, 인천 2.9% 순이었다. 전남은 자살시도가 0.0%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지표는 아동이 공부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0~10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개별 아동의 값을 토대로 지역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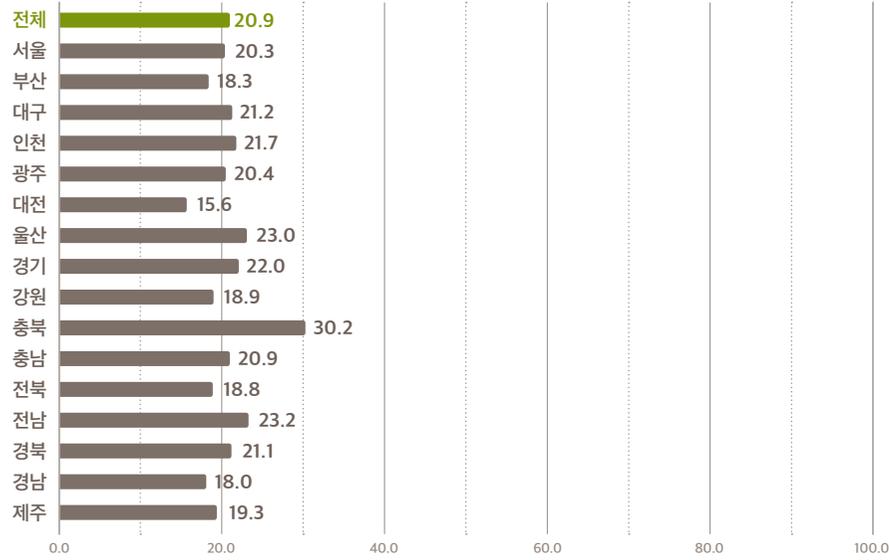


[그림II-96] 학업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39.8점으로 나타났고,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45.8점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높게 학업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35.7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친구 스트레스

친구 스트레스 지표는 아동이 친구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0~10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개별 아동의 값을 토대로 지역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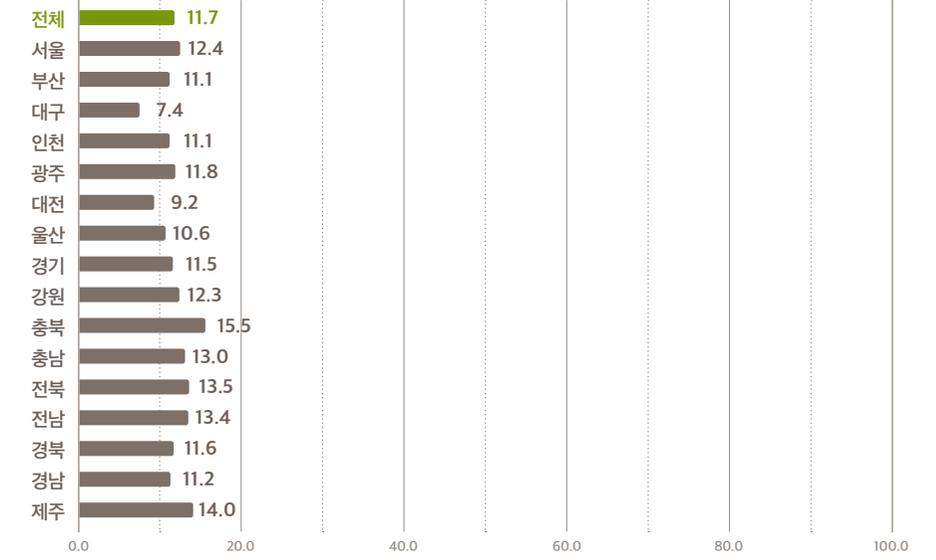


[그림II-97] 친구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친구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0.9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30.2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이 15.6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가족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지표는 아동이 가족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0~10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개별 아동의 값을 토대로 지역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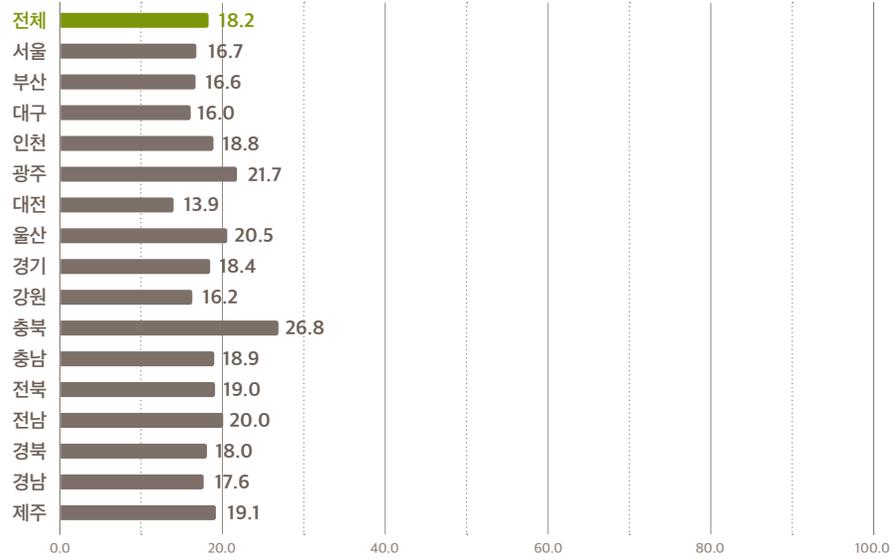


[그림II-98] 가족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가족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11.7점이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15.5점으로 전체 시·도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대구와 대전은 10점 미만의 점수를 보였다.

• 외모 스트레스

외모 스트레스 지표는 아동이 외모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0~10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개별 아동의 값을 토대로 지역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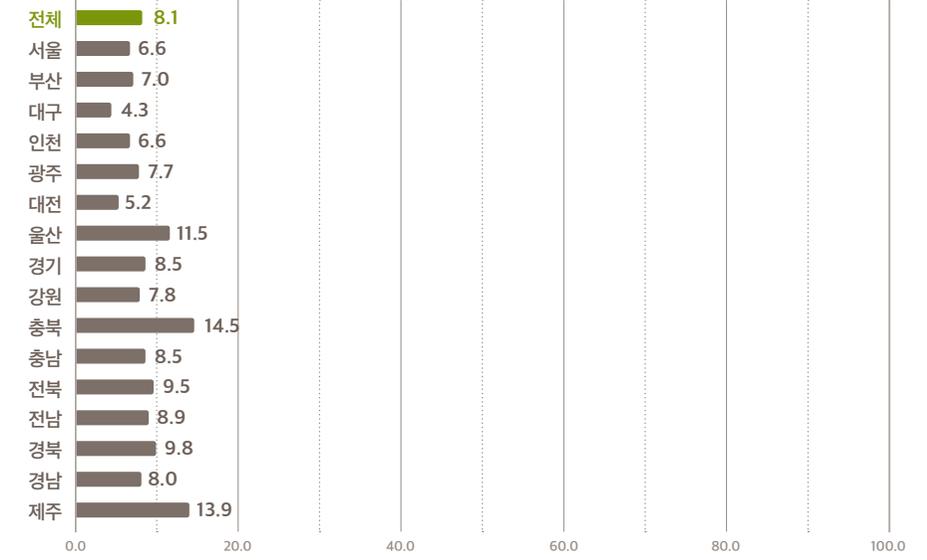


[그림II-99] 외모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외모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18.2점이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26.8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전은 13.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 경제적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지표는 아동이 경제적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0~10점의 범주로 측정하였다. 개별 아동의 값을 토대로 지역별 평균값을 구하였다.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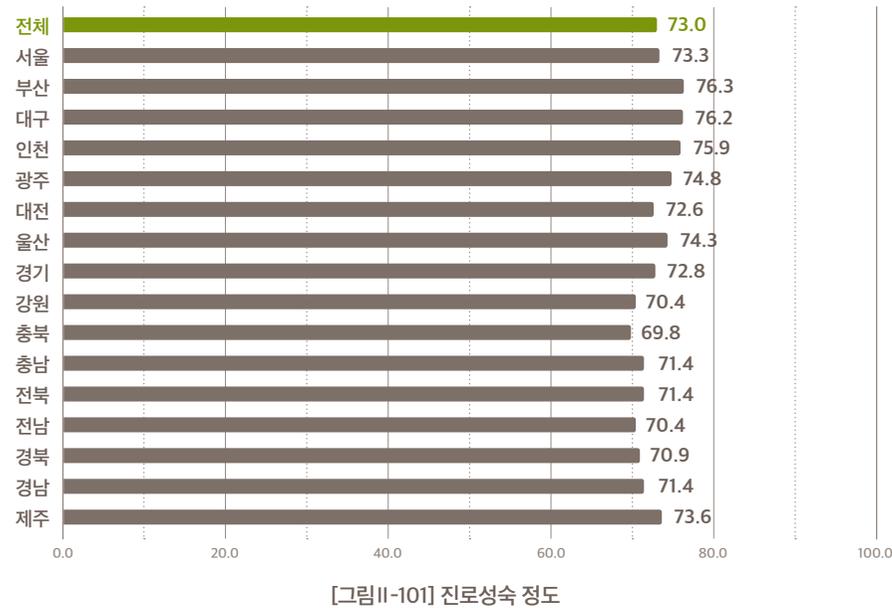


[그림II-100] 경제적 스트레스

조사대상 아동의 경제적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8.1점으로 전반적으로 경제문제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14.5점), 제주(13.9점), 울산(11.5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는 4.3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 진로성숙 정도

아동의 진로성숙 정도는 미래 진로에 대한 계획성을 비롯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태도, 독립심으로 평가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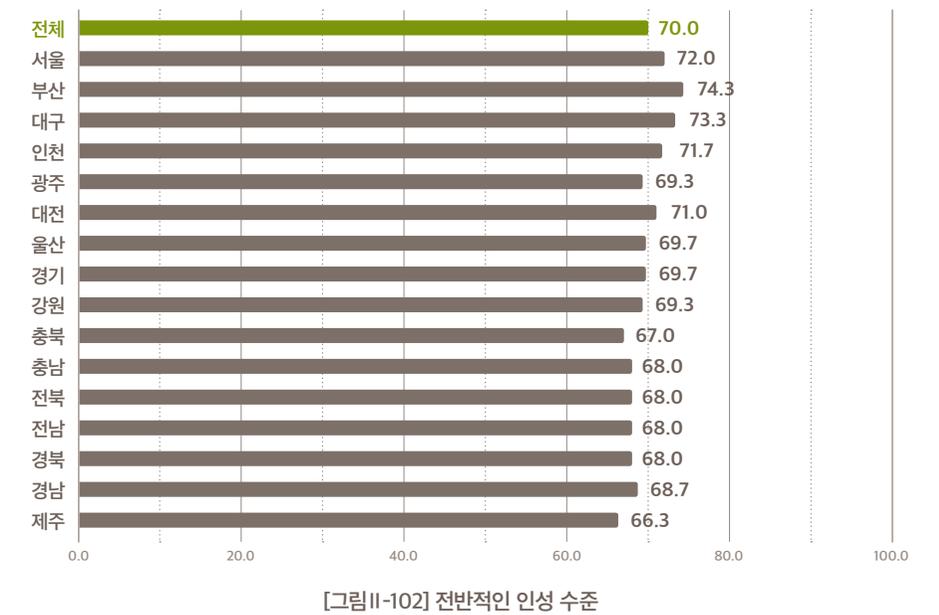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진로 성숙 정도는 평균 73.0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구가 76.2점으로 그 뒤를 잇고 충북이 69.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전국의 편차가 크지 않았다.

④ 인성

• 전반적인 인성 수준

아동의 인성은 자기조절, 성실, 존중, 책임, 배려, 소통, 협력, 공정, 시민성 항목으로 평가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지역별 평균값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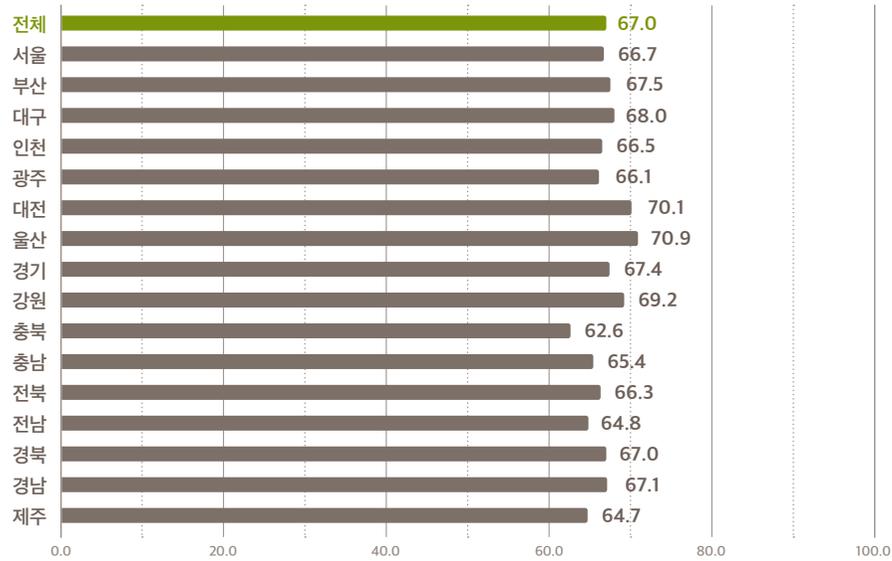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인성은 평균 70.0점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74.3점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인성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66.3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전반적인 인성수준 점수가 낮게 나왔다.

⑤ 행복

• 현재 행복감

아동의 현재 행복감 지표는 아동에게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0점~10점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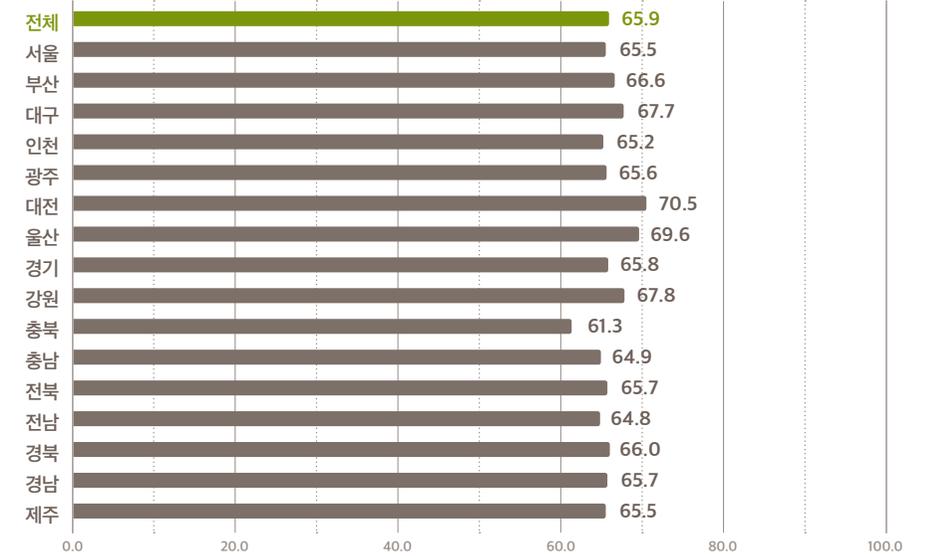


[그림II-103] 현재 행복감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67.0점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70.9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 행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충북, 전남, 제주 지역은 행복감 점수가 65점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현재 삶의 만족도

아동의 현재 삶의 만족도 지표는 아동에게 지금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0점~10점으로 범주화하여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림II-104] 현재 삶의 만족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지금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65.9점으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70.5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 강원, 대구가 그 뒤를 이었다. 충북은 61.3점으로 전체 조사 지역 중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발달결과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발달결과 각 지표의 지역간 격차를 확인하고자 최소값, 최대값, 평균⁶⁾, 표준편차를 [표II-22]에 제시하였다. 각 지표의 표준편차의 값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영역에 포함된 지표 중에서는 ‘만성질환 유병율’ 지표의 표준편차 값(SD=2.901)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지영역에서는 ‘영어 학업성취’ 지표(SD=4.252)가, 사회정서 영역에서는 ‘자살생각’ 지표(SD=3.992)의 지역 차이가 두드러졌다. 또한 스트레스 지표의 경우 가족, 외모, 경제적 스트레스보다 학업과 친구 스트레스 지표의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6) 발달결과 지표의 평균값은 지역 평균(비율)/16으로 계산된 것이다.

[표 II -22] 발달결과 지표의 기술통계 결과

(N=16)

영역	요소	지표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가정	주관적 건강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68.3	77.3	72.3	2.452
		객관적 건강				
		만성질환 유병율	8.5	20.6	14.1	2.901
		입원 경험율	4.5	11.3	6.9	2.047
인지	학업성취	전반적인 학업성취 : 초등	46.6	57.6	53.1	2.685
		전반적인 학업성취 : 중등	49.0	58.0	54.6	2.410
		국어 학업성취 : 중등	55.0	66.8	58.8	3.081
		수학 학업성취 : 중등	45.5	59.5	53.2	3.925
		영어 학업성취 : 중등	47.3	64.8	54.9	4.252
사회 정서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	70.7	78.7	75.0	2.295
		우울	우울 정서	7.3	13.7	10.1
	불안	불안 정서	26.0	36.3	31.6	2.481
	공격성	공격적 행동	18.7	25.7	22.3	1.921
	비행	지위비행 경험	0.6	5.5	3.6	1.547
		폭력비행 경험	0.7	10.2	3.5	2.525
		재산비행 경험	0.5	5.8	1.7	1.356
		성비행 경험	0.0	2.0	0.4	0.519
	인터넷 중독	인터넷 중독 정도	26.0	37.0	33.5	2.839
	자살	자살 생각	7.7	20.8	12.2	3.992
		자살 시도 계획	1.0	7.4	3.3	1.493
		자살 시도	0.0	3.4	1.7	1.031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35.7	45.8	40.4	3.331
		친구 스트레스	15.6	30.2	20.8	3.192
가족 스트레스		7.4	15.5	11.9	1.915	
외모 스트레스		13.9	26.8	18.6	2.905	
경제적 스트레스		4.3	14.5	8.6	2.782	
진로발달	진로성숙 정도	69.8	76.3	72.8	2.178	
인성	인성	전반적인 인성 수준	66.3	74.3	69.6	2.266
행복	주관적 행복감	현재 행복감	62.6	70.9	66.9	2.075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61.3	70.5	66.1	2.092

III. 아동권리지수 연구



아동권리지수 개발 과정 | 조사결과

경제영역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묶어 단일 지수로 표시하려는 것처럼 아동 분야에서도 여러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여러 지표들보다 단일 지수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개의 지표들을 여러 해를 두고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간결한 지수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 또 여러 집단이나 지역을 비교할 때도 단일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1. 아동권리지수 개발 과정

1) 지수의 개념 및 기능⁷⁾

경제영역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묶어 단일 지수로 표시하려는 것처럼 아동 분야에서도 여러 지표들을 하나의 지수로 단순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왔다. 여러 지표들보다 단일 지수를 쓰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상당히 복잡한 여러 개의 지표들을 여러 해를 두고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간결한 지수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편리하다. 또 여러 집단이나 지역을 비교할 때도 단일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지수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점은 일반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복잡한 지표들을 써서 변화를 설명하기 보다는 하나의 단일 지수로 그러한 변화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대중에게는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지수의 이점으로는 개별 지표들을 ‘평균’해서 산출하는 지수의 경우가 각 지표들의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주는 역할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생산된 단일 지수가 여러 개의 지표들보다는 상황의 변화 방향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지수의 단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수치로 표시되는 지수가 편리는 하지만 그런 지수가 서로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지표들의 추이를 잘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가령 아동의 건강영역에서 비만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예방접종율은 높아지고 있다면 두 지표를 합산해서 만든 지수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각 지표가 서로의 영향을 상쇄하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아동분야에서는 아직 지표체계 자체가 경제영역과는 다르게 아직 포괄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수로 아동의 삶의 질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지표와 그 지표들을 하나의 수치로 묶어 단일 지수화하는 작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표와 지수가 가져야 할 특성이 있다. 첫째, 지표와 지수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어려운 지표는 활용도가 떨어진다. 둘째, 지표와 지수를 이루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지표와 지수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 측정하고 분석될 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넷째, 지표·지수 연구는 항상 정책적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섯째, 지표·지수 연구는 옹호기능과 연계돼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견인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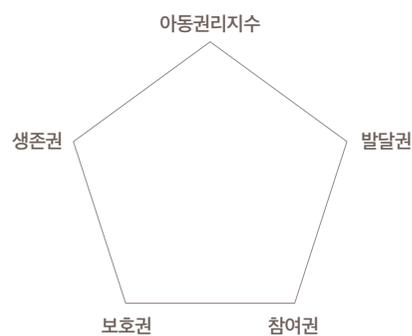
7) 이 부분은 이봉주(2016)의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의 일정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있어야 한다. 여섯째, 아동 지표·지수 연구에서는 아동의 참여를 장려하고 분석 단위가 아동 수준이어야 한다. 일곱째,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덟째,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아홉째, 아동의 현재 상태(well-being)와 미래 지향(well-becoming) 지표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2) 아동권리지수 구성

아동권리는 개념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일한 영역이나 지표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하여 하나의 지수로 표현하여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지역 및 학년간의 비교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아동권리지수 체계는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권리경험 지표 체계를 가지고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고자 한다. 권리경험 지표 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영역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기본틀로 하여 생존권에는 영양과 건강 활동을, 발달권에는 교육, 여가, 관계를, 보호권에는 학대와 폭력을 참여권에는 존중과 참여활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각 요소에는 38개의 세부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III-1] 아동권리지수 구성

3) 아동권리지수 산출 방법

개별적인 지표를 하나의 지수로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중치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 가중치는 크게 차등 가중치와 동등 가중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차등 가중치는 각 지표의 중요도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지표 연구에서 차등 가중치를 적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취합하여 산출하는 델파이 방

식과 AHP 방식을 사용한다. 두 방식 모두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하고 종합하여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비슷하나 AHP 방식은 평가요인을 계층화한 후 지표들간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전문가 집단 선정과정과 지표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연구자와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지표연구에서는 동등 가중치를 사용하기도 한다(Hagerty & Land, 2007. 동등 가중치는 각 지표에 대하여 동일한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통계적·경험적 지식이 가중치를 정의하기에 적절하지 않는 경우 사용한다(Maggino & Ruvigliani, 2011. 아동권리는 내용에 따라 중요도를 매기거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지수에 동등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자 한다.

동등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지표에 대하여 표준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각 지표에 대하여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지만, 방향(긍정지표인가, 부정지표인가)과 수준(리커트 척도인가, 더미변수 인가)이 다른 지표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표준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산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동의 개별 데이터를 시도 및 학년 데이터 set으로 구성된 후 모든 지표를 Z-score 변환하여 표준화하였다. 시도 데이터에 포함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며, 학년은 초 4학년, 초 6학년, 중 2학년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 학교폭력 가·피해경험과 같이 부정적 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역산하여 긍정적 지표로 변경하여 지표의 방향성에 통일성을 주었다. 지표 표준화 후에는 각 요소를 이루고 있는 지표를 통합하고, 다음으로 요소를 통합하여 영역을, 영역을 통합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즉, 지표에서 요소로, 요소에서 영역으로 영역에서 종합지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각 요소의 점수는 각 요소를 구성하는 지표들의 평균값이며, 영역은 요소 점수의 평균값, 종합지수는 아동권리 4개 영역 점수의 평균값이다.



[그림 III-2] 아동권리지수 산출 절차

2.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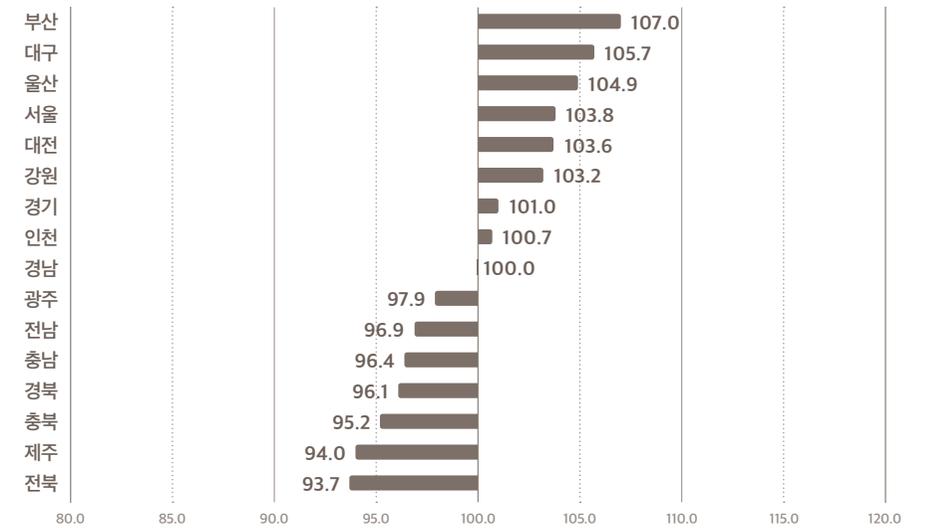
1)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1) 지역별 종합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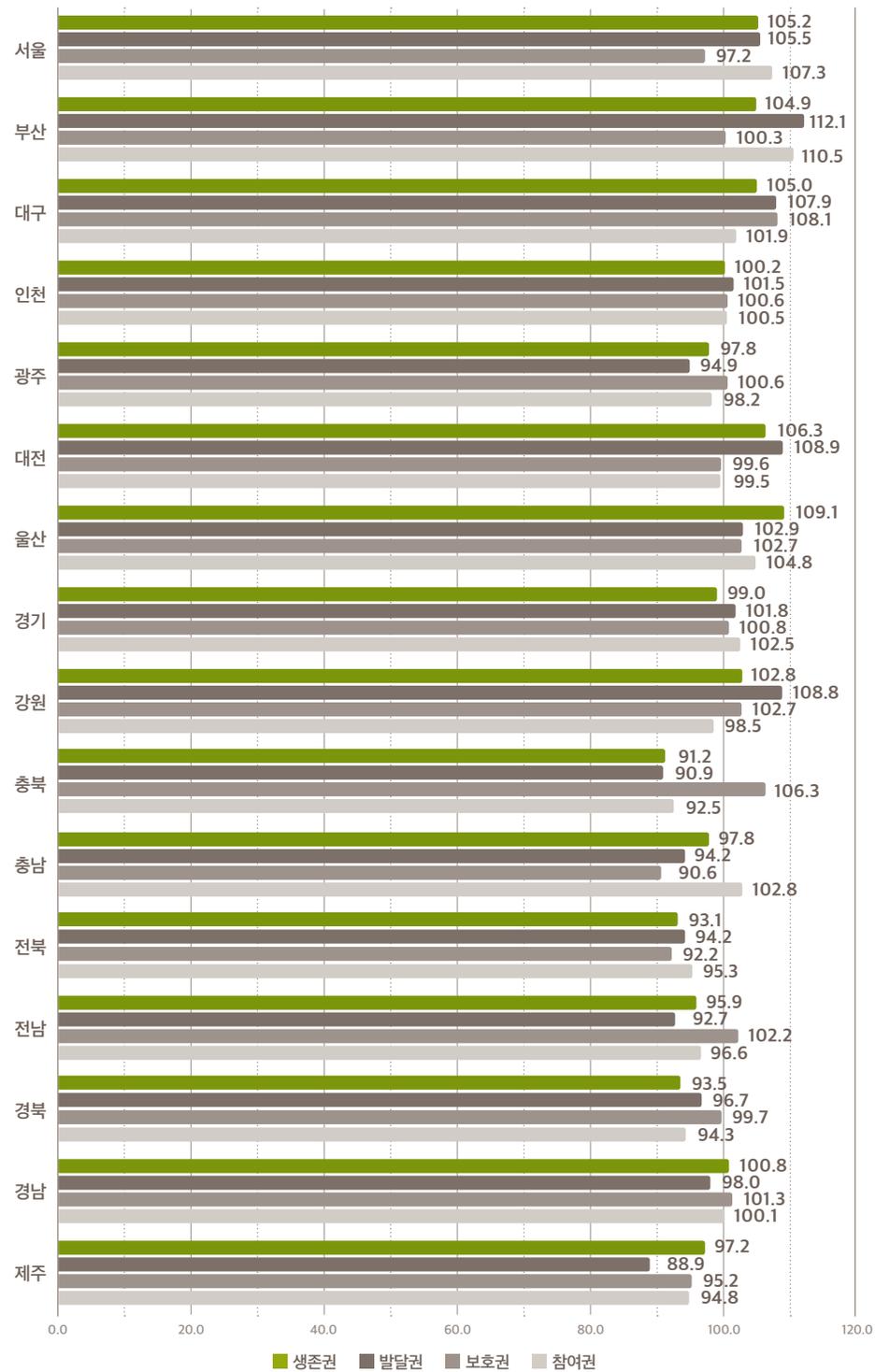
아동권리지수의 지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지수는 부산이 107.0점으로 16개 시도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가 105.7점 2위, 울산이 104.9점 3위, 서울이 103.8점으로 4위, 대전이 103.6점으로 5위를 하였다. 6위에서 10위의 중위권에는 강원, 경기, 인천, 경남, 광주가 포함되었다. 11위에서 16위의 하위권에는 전남, 충남, 경북, 충북, 제주, 전북이 속하였다. 전북은 9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은 울산이 109.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발달권과 참여권은 부산이 각각 112.1점, 110.5점으로 1위를 하였다. 보호권은 대구가 10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표 III-1]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종합결과

구분	아동권리지수	순위	생존권	순위	발달권	순위	보호권	순위	참여권	순위
서울	103.8	4	105.2	3	105.5	5	97.2	13	107.3	2
부산	107.0	1	104.9	5	112.1	1	100.3	10	110.5	1
대구	105.7	2	105.0	4	107.9	4	108.1	1	101.9	6
인천	100.7	8	100.2	8	101.5	8	100.6	8	100.5	7
광주	97.9	10	97.8	10	94.9	11	100.6	8	98.2	11
대전	103.6	5	106.3	2	108.9	2	99.6	12	99.5	9
울산	104.9	3	109.1	1	102.9	6	102.7	3	104.8	3
경기	101.0	7	99.0	9	101.8	7	100.8	7	102.5	5
강원	103.2	6	102.8	6	108.8	3	102.7	3	98.5	10
충북	95.2	14	91.2	16	90.9	15	106.3	2	92.5	16
충남	96.4	12	97.8	10	94.2	12	90.6	16	102.8	4
전북	93.7	16	93.1	15	94.2	12	92.2	15	95.3	13
전남	96.9	11	95.9	13	92.7	14	102.2	5	96.6	12
경북	96.1	13	93.5	14	96.7	10	99.7	11	94.3	15
경남	100.0	9	100.8	7	98.0	9	101.3	6	100.1	8
제주	94.0	15	97.2	12	88.9	16	95.2	14	94.8	14



[그림 III-3]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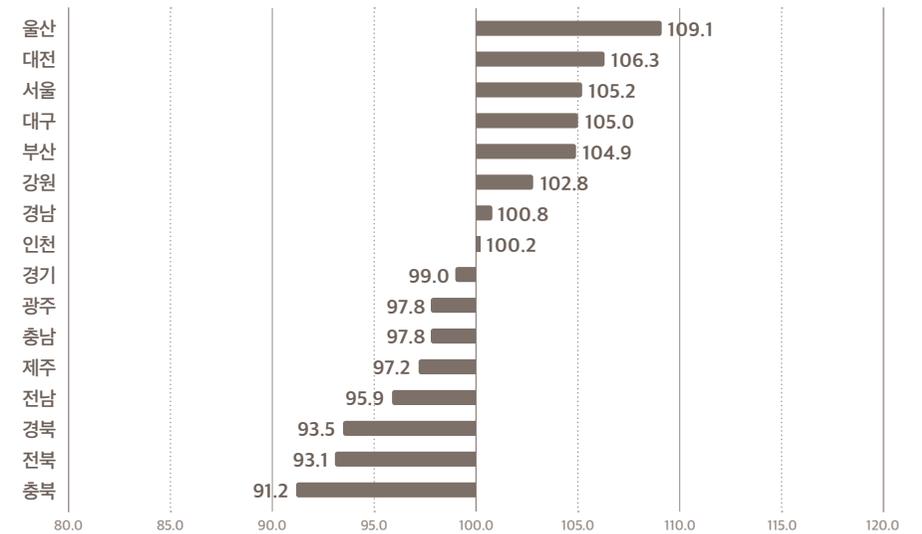


[그림III-4] 지역별 아동권리지수 하위영역 결과

(2) 하위 영역별 시도 비교 결과

아동권리지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4개의 하위영역에 9개 요소, 3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하위영역별 시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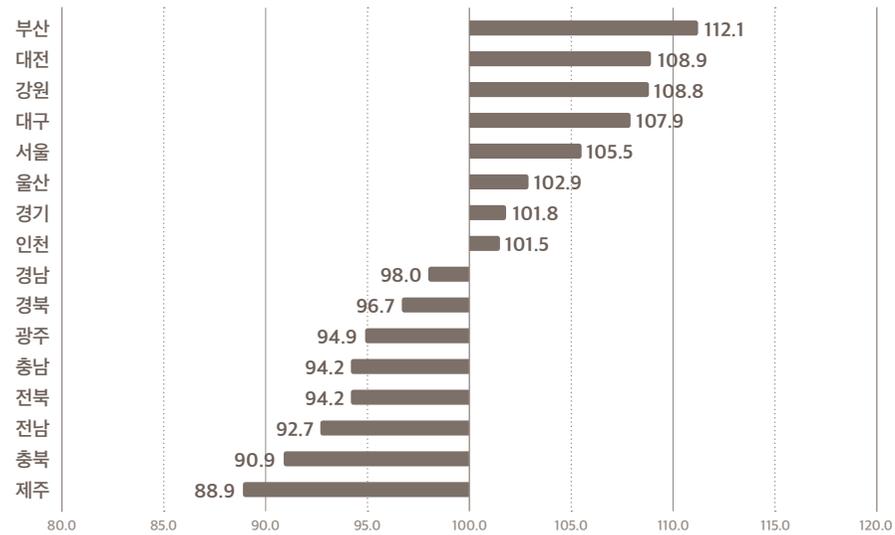
① 생존권



[그림III-5] 지역별 생존권 지수

생존권은 영양과 건강활동의 2가지 요소 8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생존권 지수가 평균 이상인 지역은 울산, 대전, 서울, 대구, 부산, 강원, 경남, 인천이며, 이하인 지역은 경기, 광주, 충남, 제주, 전남, 경북, 전북, 충북이다. 생존권 지수가 높은 지역인 울산과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의 점수 차이는 17.9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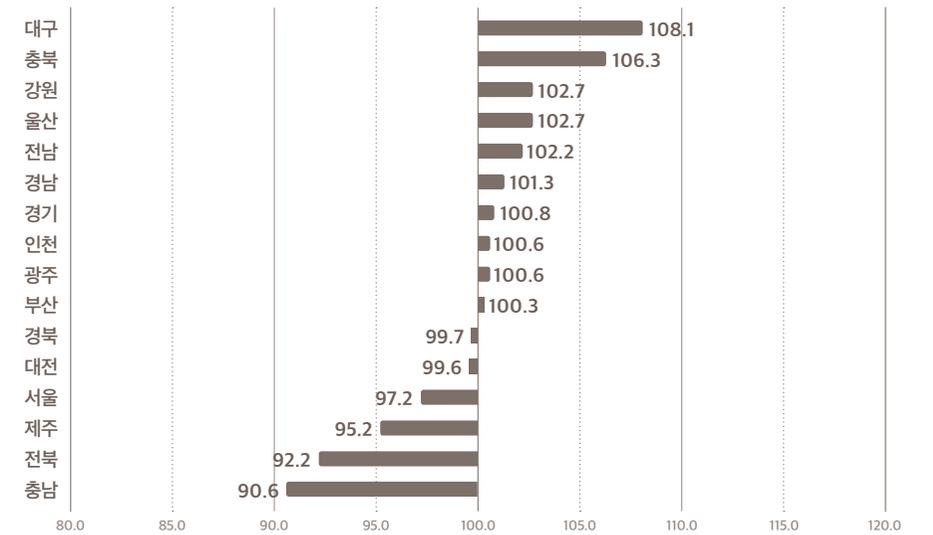
② 발달권



[그림III-6] 지역별 발달권 지수

발달권은 교육, 여가, 관계 3가지 요소에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이 112.1점으로 발달권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 강원, 대구, 서울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제주는 88.9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두 지역간의 점수 차이는 23.2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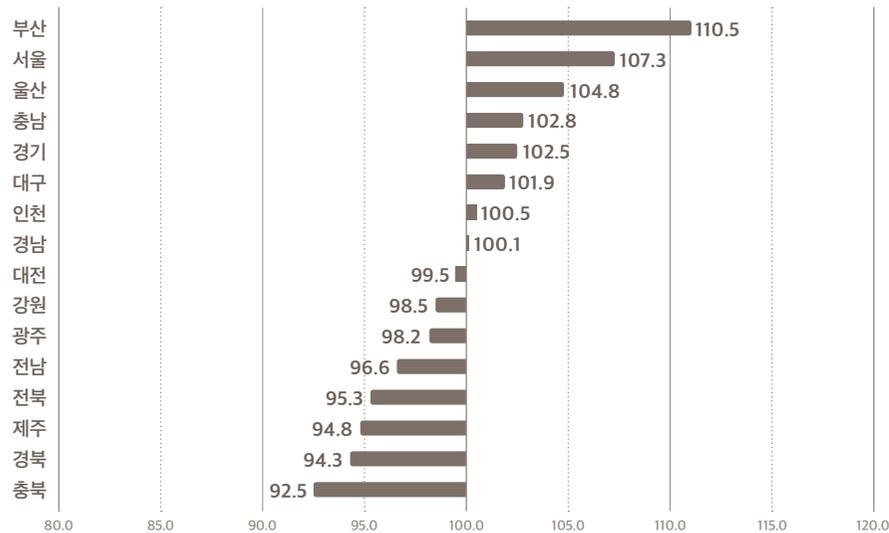
③ 보호권



[그림III-7] 지역별 보호권 지수

보호권은 학대, 폭력 2가지 요소에 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권은 대구가 108.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충북 106.3점, 강원과 울산이 102.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보호권은 10개 이상 지역에서 평균 100점 이상을 보였으나 경북, 대전, 서울, 제주, 전북, 충남 지역은 평균 이하였다. 충남이 90.6점으로 보호권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대구와의 차이는 17.5점이다.

④ 참여권



[그림Ⅲ-8] 지역별 참여권 지수

참여권은 존중과 참여활동 2가지 요소에 8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이 11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 울산, 충남, 경기 지역이 참여권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하여 참여권 점수가 낮은 하위 5개 지역은 전남, 전북, 제주, 경북, 충북이며, 이 중 충북이 9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부산과 충북의 점수 차이는 18점이다.

(3) 시·도별 결과

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아동권리지수는 103.8이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점수는 평균 100점을 넘었으나 보호권은 97.2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Ⅲ-9] 서울특별시의 아동권리지수

②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는 107.0이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중 발달권이 11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호권은 100.3점으로 가장 낮았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발달권과 참여권이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보호권은 100.3점으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그림Ⅲ-10] 부산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③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는 105.7이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중 보호권 점수가 108.1점으로 가장 높았고, 참여권 점수가 101.9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호권, 발달권, 생존권은 평균 점수를 크게 상회하였으나 참여권의 경우 평균 점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또한 보호권 지수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Ⅲ-11] 대구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④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는 100.7이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며, 모든 영역이 평균 100점을 약간 넘는 수준이다.



[그림Ⅲ-12] 인천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⑤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는 97.9로 7개 광역시 중 100점 미만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중 보호권 점수가 100.6점으로 가장 높았고, 발달권 점수가 94.9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III-13] 광주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⑥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는 103.6이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중 발달권이 10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참여권이 99.5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발달권과 생존권은 상위권을 차지하였지만, 보호권, 참여권은 평균 미만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III-14] 대전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⑦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는 104.9이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중 생존권 점수가 109.1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호권 점수가 102.7점으로 가장 낮았다. 울산광역시는 모든 영역에서 평균 100점 이상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III-15] 울산광역시의 아동권리지수

⑧ 경기도

경기도의 아동권리지수는 101.0으로 평균에 근접한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참여권, 발달권, 보호권, 생존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경기도의 경우 생존권 지수만 평균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III-16] 경기도의 아동권리지수

⑨ 강원도

강원도의 아동권리지수는 103.2으로 도지역 중에서는 아동권리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점수가 가장 높은 발달권은 108.8점으로 16개 시도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였지만, 참여권의 경우 98.5점으로 10위에 머물렀다.



[그림 III-17] 강원도의 아동권리지수

⑩ 충청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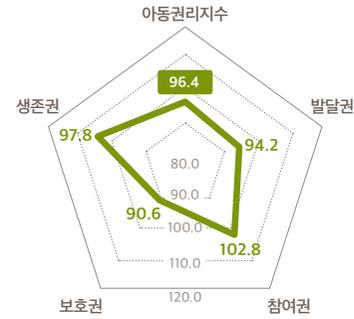
충청북도의 아동권리지수는 95.2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충청북도의 경우 각 영역별 점수의 격차가 큰 편이다. 생존권과 참여권은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지만, 보호권의 경우 106.3점으로 2위를 하였다.



[그림 III-18] 충청북도의 아동권리지수

⑪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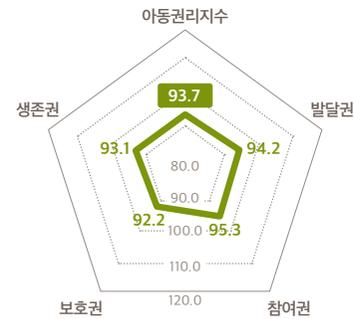
충청남도의 아동권리지수는 96.4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충청남도의 경우 참여권을 제외한 다른 하위 권리지수 영역 지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보호권은 90.6점으로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그림Ⅲ-19] 충청남도의 아동권리지수

⑫ 전라북도

전라북도의 아동권리지수는 93.7로 16개 시·도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참여권, 발달권, 생존권, 보호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전라북도의 경우 모든 권리지수 하위 영역의 점수가 평균을 밑돌았다.



[그림Ⅲ-20] 전라북도의 아동권리지수

⑬ 전라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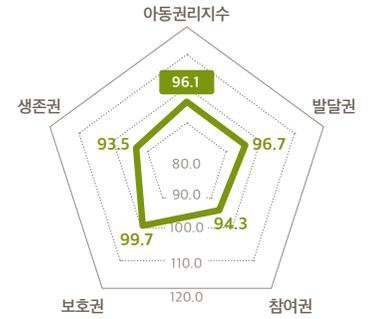
전라남도의 아동권리지수는 96.9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전라남도는 보호권 지수가 100.2로 평균을 상회하였지만, 참여권, 생존권, 발달권은 평균 이하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Ⅲ-21] 전라남도의 아동권리지수

⑭ 경상북도

경상북도의 아동권리지수는 96.1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생존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경상북도는 모든 권리지수의 하위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그림Ⅲ-22] 경상북도의 아동권리지수

⑮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아동권리지수는 100.0으로 평균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 발달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경상남도의 경우 보호권, 생존권, 참여권은 평균 정도의 점수를 보였지만, 발달권 지수는 98.0으로 평균 이하를 나타내었다.



[그림Ⅲ-23] 경상남도의 아동권리지수

⑯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권리지수는 94.0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아동권리지수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순으로 점수가 높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권리지수 하위영역의 점수가 평균 이하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발달권 지수는 88.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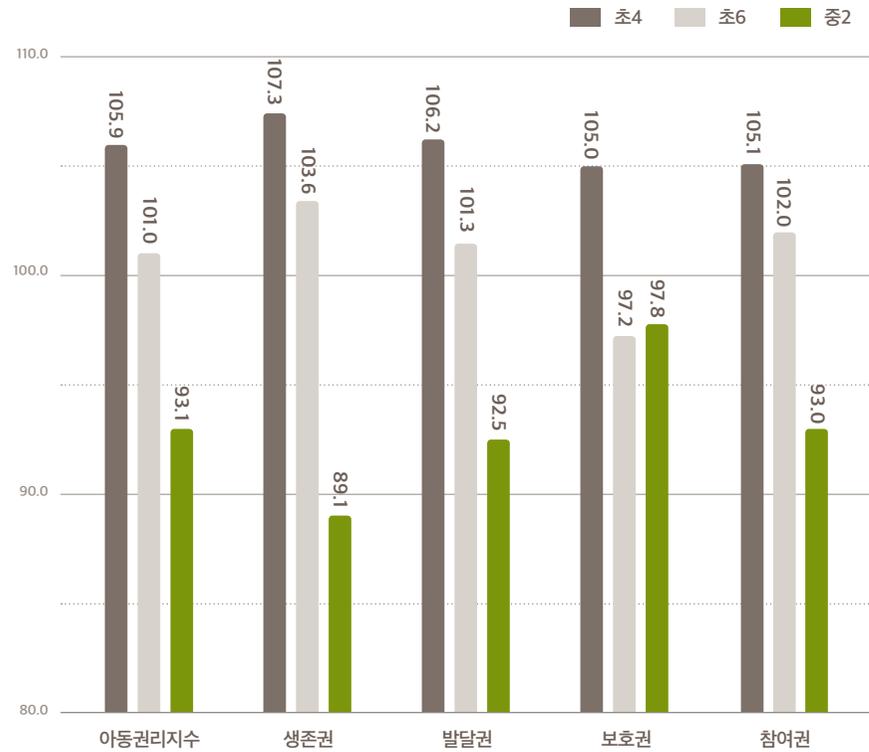
[그림Ⅲ-24]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권리지수

2)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학년별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Ⅲ-2]와 같다. 아동권리지수는 초 4학년이 105.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 6학년이 101.0점, 중 2학년이 93.1점으로 확인되었다. 초 4학년은 평균 보다 5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초 6학년은 평균에 근사하였다. 그러나 중 2학년의 경우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Ⅲ-2]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종합결과

구분	아동권리지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초4	105.9	107.3	106.2	105.0	105.1
초6	101.0	103.6	101.3	97.2	102.0
중2	93.1	89.1	92.5	97.8	93.0



[그림Ⅲ-25] 학년별 아동권리지수 종합결과

(1) 초등학교 4학년

초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105.9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 107.3점, 발달권 106.2점, 참여권 105.1점, 보호권 105.0점으로 생존권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보호권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4학년은 모든 영역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Ⅲ-26] 초 4학년의 아동권리지수

(2) 초등학교 6학년

초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101.0으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였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생존권이 103.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은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보호권은 경우 97.2점으로 평균 이하로 확인되었다.



[그림Ⅲ-27] 초 6학년의 아동권리지수

(3) 중학교 2학년

중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는 93.1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보호권(97.8점), 참여권(93.0점), 발달권(92.5점), 생존권(89.1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생존권은 89.1점으로 90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Ⅲ-28] 중 2학년의 아동권리지수

IV .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맥락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환경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 아동의 권리 경험은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며, 다양한 권리 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관련성 및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1.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아동의 다양한 권리경험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아동 발달 정도는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스트레스, 진로성숙, 인성, 행복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아동권리지수와 주관적 건강,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인성, 행복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불안, 공격성,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상관 계수는 .920 ($p < .001$)로 다른 발달 영역에 비해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표 IV-1]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발달

구분	주관적건강	객관적건강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공격성	
아동 권리지수	상관관계	.793***	.136	.920***	-.421	-.586*	-.753**
	유의확률	0.000	0.616	0.000	0.105	0.017	0.001
	N	16	16	16	16	16	16

구분	비행	자살	스트레스	진로성숙	인성	행복	
아동 권리지수	상관관계	-.350	-.058	-.659**	.574*	.871***	.691**
	유의확률	0.184	0.832	0.005	0.020	0.000	0.003
	N	16	16	16	16	16	16

2.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환경

인간은 환경 속의 인간이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경험 역시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이에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과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직접 수집된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지표 데이터와 정부에서 보고하는 사회지표와 관계를 경제적 환경, 인프라 환경, 인식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1) 경제적 환경

경제적 환경은 소득, 교육복지지원비율, 교육재정자립도, 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로 구성하였으며, 이들과 아동권리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아동권리지수와 소득, 사회복지예산비율,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상관계수는 .667로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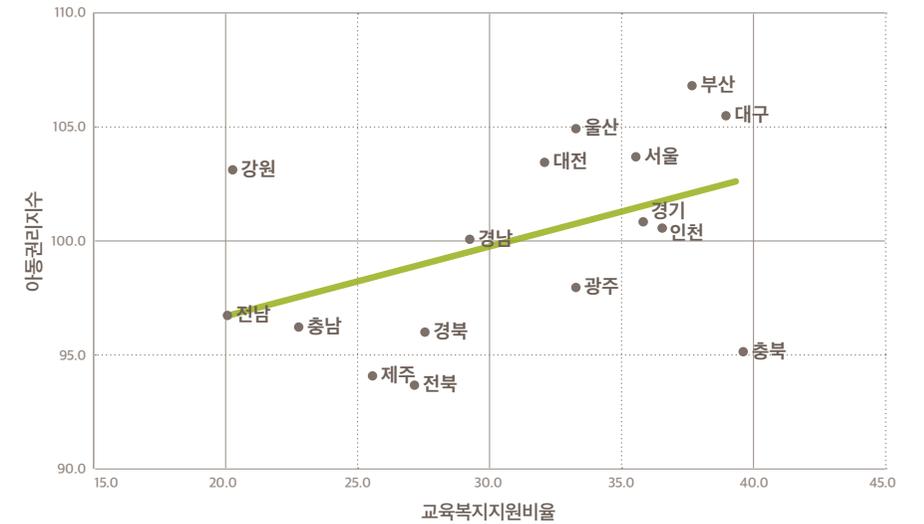
[표IV-2]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구분	소득	교육복지 지원비율	교육재정 자립도	사회복지 예산비율	지자체 재정자립도	
아동 권리 지수	상관관계	.619*	.442	.552*	.652**	.667**
	유의확률	0.011	0.087	0.027	0.006	0.005
	N	16	16	16	1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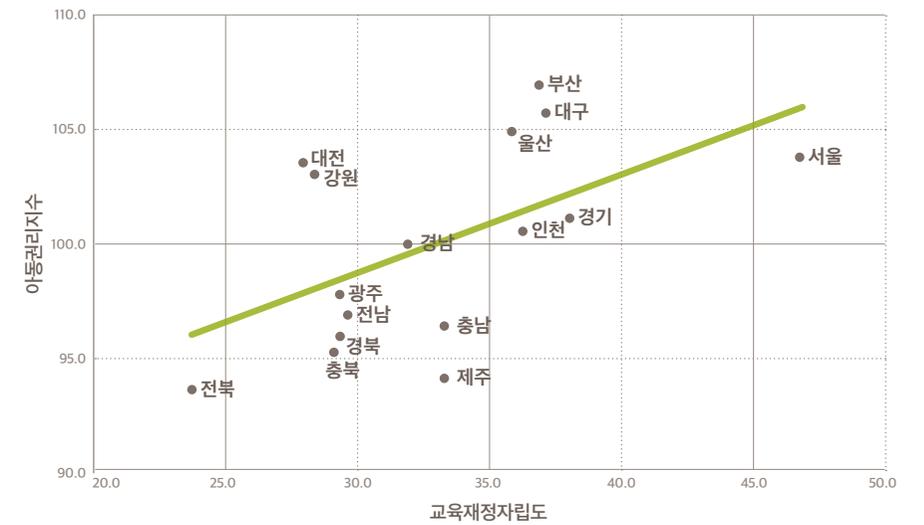
참고 한국교육개발원(2016), 행정자치부(2015)

산출근거	소득	조사 응답자의 가정소득
교육복지지원비율	교육복지지원 결산액(교육복지지원 결산액 내 고정비용 제외)/세출결산액(고정비용 제외)×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복지지원 결산액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 내 8개 단위사업(학비지원, 방과후 등 교육 지원, 급식지원, 정보화지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교육복지우선 지원, 누리과정지원, 교과서지원) 결산액 고정비용 인건비, 학교시설, 지방교육채, 반환금 및 기타
교육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수입+기타이전수입+자체수입+지방교육채 및 기타(중앙정부이전수입 제외)/세입결산액×100	

산출근거	사회복지예산비율	(사회복지분야 결산액+세출결산액)×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부분의 합계
지자체 재정자립도		(지방세+세외수입)÷자치단체 예산결산금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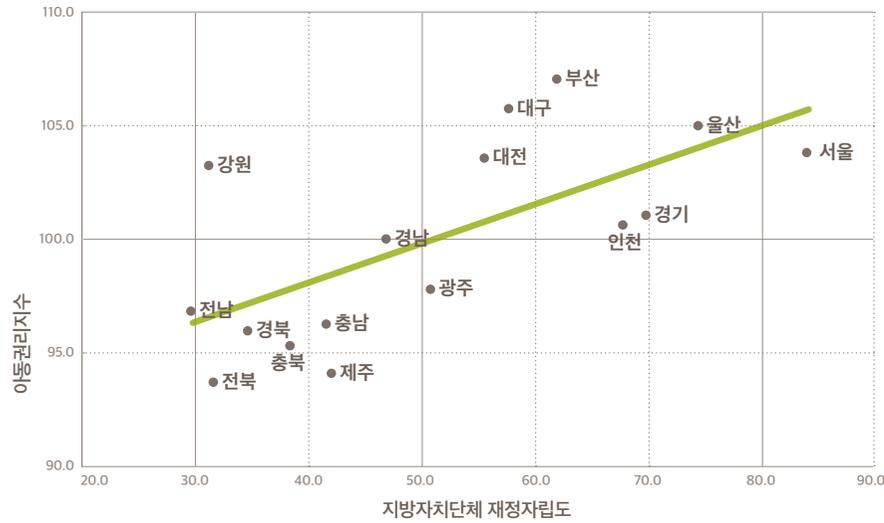
[그림 IV-1]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교육복지지원비율과의 관계



[그림 IV-2]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교육재정자립도의 관계



[그림 IV-3]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사회복지예산비율과의 관계



[그림 IV-4] 아동권리지수와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와의 관계

2) 인프라 환경

인프라 환경에는 가정내 주거시설, 학교시설, 지역사회 시설 및 기관을 포함하였다.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과 지역사회 시설 및 기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시설은 $r = .623$ ($p < .05$)로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 IV-3] 아동권리지수와 인프라 환경

구분	주거시설	학교시설	지역사회 시설 및 기관
상관관계	.281	.623*	.491
유의확률	0.289	0.010	0.054
N	16	16	16

산출근거

주거시설	주거 안정성 지표와 주거 쾌적성 지표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학교시설	등학교 편의성, 학교시설의 쾌적성, 학교운동장 이용 편의성 지표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지역사회 시설 및 기관	병원 이용 편의성, 도서관 이용 편의성, 놀이터 이용 편의성, 공원 이용 편의성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3) 인식적 환경

인식적 환경은 부모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 등으로 구성된 부모의 심리 및 정서, 학교풍토, 지역사회 학대 인식 및 권리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학교풍토($r = .810, p < .01$), 부모의 심리 및 정서($r = .632, p < .01$)와 아동권리인식($r = .517, p < .05$)이 아동권리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표IV-4] 아동권리지수와 인식적 환경

구분	부모 심리 및 정서	학교풍토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아동 권리 지수	상관관계	.632**	.810**	-.113	.517*
	유의확률	0.009	0.000	0.677	0.040
N	16	16	16	16	

산출근거	부모 심리 및 정서	학교풍토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인식
	부모의 행복감, 삶의 만족도, 양육효능감, 양육스트레스의 지표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학생의 의견 존중,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학교내 비차별 문화 지표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아동학대 신고인식 및 아동학대 인식 지표의 지표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부모(보호자)와 아동의 아동권리 협약 인지 및 아동권리 인식의 Z값을 가지고 평균 산출

V. 함의



굿네이버스에서는 16개 시·도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 생산과 지수 산출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상황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아동권리지표는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를 만들었으며, 아동권리지수는 권리경험 지표를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4대 권리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는 2017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및 권고사항을 평가하고 이를 정리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굿네이버스에서는 16개 시·도의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지표 생산과 지수 산출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 상황을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아동권리지표는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지표를 만들었으며, 아동권리지수는 권리경험 지표를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4대 권리로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지수화하였다. 지금부터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 지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의 전반적인 실태와 지역간, 학년간 격차가 큰 지표들이 확인되었다. 권리보장환경 지표의 경우 학교시설 및 지역사회 놀이터, 공원, 도서관 등의 물리적 환경의 지역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권리경험 지표에서는 영양의 불균형, 놀권리의 침해, 아동학대, 제한적인 참여활동의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지표는 지역간, 학년간 격차도 다른 지표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달결과 지표 중에서는 만성질환 유병율, 자살생각율 지표의 지역간 차이가 다른 지표에 비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권리지수의 상위권은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울산, 서울, 대전 등 대도시가 차지하였고, 하위권에는 전북, 제주, 충북, 경북, 충남과 같은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광역자치도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셋째, 아동권리지수의 학년 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아동권리지수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졌는데, 중 2학년의 경우,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으며, 특히 생존권은 89.1점으로 90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넷째, 권리경험은 권리보장환경, 발달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동권리지수와 경제적 환경, 인프라 환경, 인식적 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경제적 환경에서는 지역별 재정자립도가, 인프라 환경에서는 학교시설이, 인식적 환경에서는 학교풍토가 다른 요인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와 아동의 건강, 사회정서, 인성, 행복에 대한 관련성을 분석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발달요소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 영양불균형 문제가 거론되었다. 영양불균형은 성장기 아동의 비만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아동이 성장했을 때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한 섭취를 하지 않는 아동은 비타민 결핍 문제가 발생되며, 체내 비타민 부족은 빈혈, 발육부진, 뇌기능 저하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아동의 영양불균형 발생의 주된 원인이 가정내 양질의 식품 구입능력의 부족과 같은 경제적 차원인지, 식사시간의 부족과 같은 시간적 차원인지, 편식과 같은 개인적 차원인지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권 관련해서는 놀이권 보장 실태의 지역간, 학년간 격차가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 갈수록 놀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높았으며, 놀이터 이용에 대한 편의성에 있어서도 지역간 차이가 존재하였다. 놀 권리는 아동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다. 놀 권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놀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적절한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에게 충분한 놀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놀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동발달에 있어 교육의 가치가 높이 평가하는 반면, 놀이는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는 인간관계, 문제해결 방법 등을 익힐 수 있는 배움의 통로이자 삶의 에너지를 얻는 원천이기도 하다(전영선·류경희·심성경, 2014; 최태산·조미정, 2010; 황옥경·한유미·김정화·양효현, 2015)

또한 아동이 마음껏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뿐 아니라 공간적 측면에서 있어서도 연령과 지역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즉, 연령에 특성에 맞는 놀이공간이 확대되어야 하며, 도시, 농어촌 등 아동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충분하고 다양한 놀이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령 영국에서는 2020년을 목표로 Children's Plan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대이다(Schools and Families Great Britain: Department for Children, 2007). 이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1차 기간 동안 2억3천5백만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빈곤지역에 30개의 모험놀이터 설치기 추진되었다(황옥경, 2012; Schools and Families Great Britain: Department for Children, 2007). 우리나라 경우, 2015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놀이시간의 확보와 놀이공간의 제공,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개발 보급 등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행 할 정부 기구와 예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내 체벌의 학년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체학대에 비하여 정서학대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학교내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체벌이 허용되는 곳이 많으며, 가정에서는 부모가 물리적인 폭력보다 정서적 학대의 심각성에 둔감하고 쉽게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신체학대 보다 정서학대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리 그 정도가 가볍고 훈육을 위한 무시, 창피, 비난 등의 비신체적 체벌이라 할지라도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또한 가벼운 학대는 이후 심각한 아동학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과 훈육의 탈을 쓴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훈육상황에서 학대가 아닌 적절한 방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알려주어 아동학대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7년을 기준으로 아동 1인당 '아동보호' 예산은 2,722원이며 이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30원이다.⁸⁾ 이마저도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는 비중 보다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복권기금에서 충당하는 비중이 높다. 또한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같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사업이 현재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담당하는 범부처 통합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여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 참여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유익한 정보에의 접근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 조사결과 동아리와 캠페인과 같은 참여활동에 비하여 아동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본 참여경험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을 의사결정 과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노르웨이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정책이

8) 우리나라 2017년 아동학대예방 사업의 국비 예산은 23,599백만원(범죄피해자보호기금 18,297백만원, 복권기금 4,168백만원, 일반회계 1,134백만원)이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 및 인건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을 포함하는 예산이며, 순수하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134백만원이다. 각 예산을 2017년 아동 추정인구 867만명으로 나누어 아동 1인당 '아동보호' 예산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예산을 산출하였다.

나 제도 수립시 아동에게 적극적인 의견청취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동을 초청하여 자신의 아이디어와 제안 사항을 내놓을 수 있는 워크숍, 공청회 등의 참여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주한노르웨이대사관 홈페이지, 2017. 3.19 검색.}

다섯째, 아동 권리경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방도시에 대한 아동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경험의 지역간 격차가 발생 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및 사회복지예산비율이 지목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아질수록 아동권리지수는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의 관점으로 재원을 배정하고, 이를 위하여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예산비율이 낮으면 아동예산으로 투입할 여력이 적어진다. 더구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 이양화 되면서 지역간의 아동복지예산의 불균형 발생될 소지가 높다. 아동예산 만큼은 아동투자적 관점에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투입하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아동관련 예산만큼은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동예산의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중앙정부 주도의 아동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전체 아동예산 규모가 늘어나야 한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2.14%(2013년 기준)⁹⁾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가족복지 지출이 1.13%로 33개 국가 중 30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시 국내 노인예산과 비교하면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격히 낮음을 더욱 실감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중 보육예산을 제외한 아동분야 예산은 1.10%인 것에 비하여 노인분야 예산은 16.5%를 차지하고 있다.^{참여연대, 2016.}

국내 총 예산에서 아동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문제는 예산 사용의 편중을 가져온다. 우리나라의 아동가족복지 지출은 보육예산을 제외하면 0.2% 수준이며^{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보육예산을 제외한 아동예산의 대부분은 요보호 아동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예산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

9) OECD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 2017년 3월 19일 검색

편적 아동복지 예산 배정이 소외되어 왔다. 가령, 모든 아동에게 중요한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 예산 투입이 미비한 점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보편적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 교육예산의 문제를 함께 거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지방교육자치제도 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건전성에는 차이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아동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라는 명목 하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하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기획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영출·김민희, 2014.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 발달권 격차 원인 중 하나로 등학교 접근성, 학교시설의 쾌적성, 학교운동장 이용 편의성과 같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거론되었다. 아동의 발달권 보장을 위해 학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지만, 지역별로 한정된 예산 총량 안에서 학교환경개선사업예산은 다른 예산 사용에 밀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진성, 2015. 각 지역별로 교육예산의 충분성이 담보 할 수 있는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학생 시기의 새로운 시각과 권리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1989년부터 2007년까지 3-30세의 피험자 뇌를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분석한 제이 기드 박사의 연구팀 Giedd, 2008은 청소년기의 뇌는 신경세포 사이 시냅스의 가지치기를 통해 뇌가 성숙해지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합리적인 상황 판단, 타인의 감정 이해 등 고차원적인 뇌 발달을 위해서는 이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올바른 권리경험을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우리사회는 중 2학년은 ‘중 2병’이라는 대명사로 대표되며, 그저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버려진 시기였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만 주목했으나, 정작 이들이 왜 이러한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 2학년의 부정적 발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권리보장 경험의 박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불균형한 영양공급, 충분하지 못한 수면시간, 빼앗긴 놀 권리 등 초등학생에 비해 현저히 결핍된 권리보장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를 우리의 교육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입시를 최대목표로 하는 현재의 교육체계에서는 아동의 권리가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이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권리를 보장 해주는 것이 결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이제는 우리사회가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아동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가 아동의 권리경험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에게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의 심리·정서적 환경 뿐 아니라 학교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 지역사회가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이 아동권리지수와 상관성이 있음을 발견되었다. 따라서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사회의 문화, 제도 속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강상·유수정(2014). 유아교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 145-165.

강희경·김영미·이은주(2009). 이웃환경 무질서와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 일상생활스트레스와 부정적 가족사건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10), 179-204.

권대봉·허선주·김재현(2013). 학교문화의 교육적효과: H 자율교고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연구, 8(4), 201-226.

김경준·김희진·이민희·김윤나(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광혁(2010).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족소득의 수준별 영향의 차이: 아동 발달단계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1(2), 35-65.

김기량·김미경(2009). 식품 보장 측정의 개발과 타당도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42(4), 374-385.

김미숙·전진아·하태정·김효진·오미애·정은희·최은진·이봉주·김선숙(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선숙·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김영미(201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이웃사회자본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0(1), 235-261.

김영지·김희진·이민희·박선영(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재연·정윤경(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요인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 5-28. 김지영·이형실, 2010;

김정겸·강영식(2015). 유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 관련 유아의 문제행동 변화 연구 추이 및 유형에 대한 종단적 탐색 연구: 1970~2015년까지의 연대별 문제행동 범주와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0), 6722-6742.

김지영·이형실(2010).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요인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1), 21-32.

김진희·이상록(2011). 빈곤, 주거환경, 이웃환경과 청소년발달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18(5), 385-411.

김현숙(2013). 지속된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신체발달, 사회정서발달,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5(2), 121-143.

김혜영·윤우석(2015). 무질서 인식이 청소년들의 부정적 감정 및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한국공인행정학회보, 24, 9-43.

박성혜·윤종희(2013). 초중등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4(3), 147-169.

변호순·최정균(2016). 빈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상, 양육스트레스,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의 사회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3, 1-23.

서문희·안현애·이삼식(2003). 아동권리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정(2006). 또래괴롭힘 완화요인의 탐색: 주변또래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석민현·오원옥(2002). 청소년의 건강상태 설명요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3), 493-502.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2.

신광우·김동일·정여주·이주영·이유희·김명찬·강은비·김창민·남지은(2011). 인터넷중독 진단척도 고도화(3차)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아동권리학회 아동지표개발팀(1999). 한국의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 아동권리연구, 3(1), 5-19.

안우환(2006).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19(1), 217-235.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영·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안진상·김희정(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안철린·김좌진·신병환·금종수(2003). 겨울철 학교 교실의 온열환경 특성 및 쾌적성 평가 연구. 한국생활환경학회지, 10(4), 251-256.

염유식·김경미·이은주·이승원(2015).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결과보고서. 재단법인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우채영·박아청·정현희(2010). 성별 및 학교 급별에 따른 청소년의 인간관계, 스트레스,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1), 19-38.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보고서와 권고문 I.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보고서와 권고문 II.

유진성(2015).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지출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KERI Insight, 15-16, 1-34.

윤명숙·조혜정(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95-329.

윤용한·박승환·김원태·김정호(2014). 학교 운동장과 녹지공간의 UTCI, PMV, WBGT 비교분석. 한국환경생태학회지, 28(1), 80-89.

이광욱·윤희상(2001).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2(3), 1-11.

이미경·김성희(2011). 초등학생 부모-자녀 관계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2(3), 997-1017.

이봉주(2012). 가정환경과 아동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6-13.

이봉주·김선숙·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단일호), 107-141.

이용교·황옥경·김영지·김형욱·이중섭·박경희(2005). 한국의 아동·청소년 권리. 인간과 복지.

이인재·박동준·박균열·김향인·전종희·손경원·송선영(2014). 현대 한국 청소년 윤리의식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자형·이기혜(2015).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영향요인 분석: 주관적 건강상태와 비만여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2), 217-243.

이재연·안동현·황옥경(2007). 아동과 권리. 창지사.

이재연·홍승애(2014).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18(2), 303-330.

이혜승·이순형(2003). 부모효능감 및 부모역할수행이 아동의 문제행동과 내면적 증세에 미치는 영향 : 이혼가정과 양부모가정의 학령기 아동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0(1), 37-55.

임세희·이봉주(2009). 최저기준 미달 주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0(3), 243-265.

전경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전영선·류경희·심성경(2014). 창의적 전통놀이가 만 5세 유아의 창의성과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학연구, 18(1), 141-163.

정익중·박현선·최은영(2016). 아동권리지표개발 연구보고서. 초록유산어린이재단.

정익중·임진영·황매향(2011). 초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개발. 초등교육연구, 24(3), 169-194.

정창우·손경원·김남준·신호재·한혜민(2013). 학교급별 인성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교육부 보고서.

참고문헌

Reference



정창우·손경원·신원영(2015). 인터넷 사용자 인성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인터넷*.

조윤정·신혜령(201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 경험과 인식에 관한 차이 및 신고행동의 영향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4(단일호), 213-237.

지은림·도승아·이운선(2013). 인성지수 개발 연구. *교육부 보고서*.

천세영·김광준·성기욱·정일화·김수아(2011). 인성교육 비전 수립 및 실천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최영출·김민희(2014). 지방교육재정의 주요쟁점과 향후 정책방안. *한국지방행정학보*, 11(2), 173-214.

최정미·우희정(2004). 초·중학교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2), 73-84.

최창용·이주연·신유미(2015). 중학생의 또래소외감과 이원적 자아존중감 간의 상호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6(3), 247-276.

최태산·조미정(2010). 초등학교의 놀이성과 정서지능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3(2), 31-45.

한국아동관리학회(2001). *한국의 아동지표*. 학지사.

현주 외(2014). 초중등 학생 표준화 인성검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현주·이혜영·한미영·서덕희·류덕엽 (2013).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 인성교육 진단 및 발전 과제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홍순옥·이옥경(2010). 초중등 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9(3), 75-90.

황옥경(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I: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옥경·한유미·김정화·양효현(2015).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755-774.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Bonnefoy, X. (2007). Inadequate housing and health: an overview. *Int. J. Environment and Pollution*, 30, 411-429.

Brim, O. G. (1975). Macro-Structural Influences on Child Development and the Need for Childhood Social Indicator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4), 516-524.

Brown, B., & Corbett, T. (2003). Social indicators and public policy in the age of devolution. In R. Weissberg, L. Weiss, O. Reyes, & H. Walberg (Eds.), *Trends in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youth*.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Press.

Calvert, W. J. (2002). Neighborhood disorder, individual protective factors, and the risk of adolescent delinquency. *ABNF journal*, 13(6), 127.

Cohen, J., McCabe, E. M., Michelli, N. M., & Pickeral, T. (2009). School climate: Research, policy, teacher education and practice. *Teachers College Record*, 111(1), 180-213.

Evans, G. W. (2006). Child developmen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423-451.

Fantuzzo, J., Sekino, Y., & Cohen, H. L. (2004). An examination of the contributions of interactive peer play to salient classroom competencies for urban head start children. *Psychology in the Schools*, 41(3), 323-336.

Giedd, J. N. (2008). The teen brain: insights from neuroimag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2(4), 335-343.

Gmitrová, V., & Gmitrov, J. (2004). The primacy of child-directed pretend play on cognitive competence in a mixed-age environment: possible interpretation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74(3), 267-279.

Gomez-Jacinto L., Hornbrados-Mendietam I. (2002). Multiple effects of community and household crow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3), 223-246.

Hagerty, M.R., Land, K.C. (2007). Constructing Summary Indices of Quality of Life: A Model for the Effect of Heterogeneous Importance Weight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35(4), 455-496.

Harker, L. (2006). *Chance of A Lifetime: The Impact of Bad Housing on Children's Lives*. Shelter.

Khang, Y. H., & Lynch, J. W. (2011). Exploring determinants of secular decreases in childhood blood pressure and hypertension. *Circulation*, CIRCULATIONAHA-110.

Lee, V. E., Smith, J. B., & Croninger, R. G. (1997). How high school organization influences the equitable distribution of learning in mathematics and science. *Sociology of education*, 70(2), 128-150.

Lerner, R. M. 1991. Changing organism-context relations as the basic process of development: A developmental-contextu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27-32.

Lerner, R. M. 1995. *America's youth in crisis*. Thousand Oaks: Sage.

Lerner, R. M., & Kauffman, M. B. (1985). The concept of development in contextualism. *Developmental review*, 5(4), 309-333.

Lippman, L. H. (2007).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 well-being: A brief American hist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3(1), 39-53.

Lurie, J. (2003). The Tension Between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General Theory and Consequences as Related to Rights of Children, Including Working Children. *I.U.C. Journal of Social Work Theory and Practic*, 7.

Maggino, F., & Ruvigliani, E. (2011). Obtaining weights: from objective to subjective approaches in view of more participative methods in the construction of composite indicators.

Moore, K.A., Theokas, C., Lippman, L, Bloch, M. Vandivere, S, and O'Hare, W. (2008). A microdata child well-being index: conceptualization, creation, and findings. *Child Indicators Research*, 1(1), 17-50.

OECD(1976). *Measuring social well-being: a progress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Parker, G. (1979). Reported parental characteristics of agoraphobics and social phobics.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5(6), 555-560.

Parker, G. (1990).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5(6), 281-282.

참고문헌

Reference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Richardson, R. A. (2011). *Developmental Contextualism*. New York: Springer New York.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s, C. E., & Mirowsky, J. (1999). Disorder and Decay: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Perceived Neighborhood Disorder. *Urban Affairs Review* 34(3), 412-32.

Sampson, R. J., Morenoff, J. D., & Earls, F. (1999). Beyond Social Capital: Spatial Dynamics of Collective Efficacy for Childr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633-660.

Schools and Families Great Britain: Department for Children(2007). *The Children's Plan: Building brighter futures*.

Straus, M. A., & Mouradian, V. E. (1998). Impulsive corporal punishment by mothers and antisocial behavior and impulsiveness of children. *Behavioral sciences & the law*, 16(3), 353-374.

Vandivere, S., Hair, E. C., Theokas, C., Cleveland, K., McNamara, M., & Atienza, A. (2006). *How Housing Affects Child Well-being*. Funder's Network for Smart Growth and Livable Communities.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http://www.mohw.go.kr>

교육부(2015). 학교폭력실태조사 보도자료. <https://www.moe.go.kr>

교육부·질병관리본부·보건복지부(2014). 한국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http://yhs.cdc.go.kr>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4). 국민건강영양조사. <https://knhanes.cdc.go.kr>

참여연대(2016). 2017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보고서. <http://www.peoplepower21.org>

한국교육개발원(2016).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 <http://eduinfo.g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한국복지패널 10차 부가조사. <http://www.koweps.re.kr>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패널 5차. <http://archive.nyp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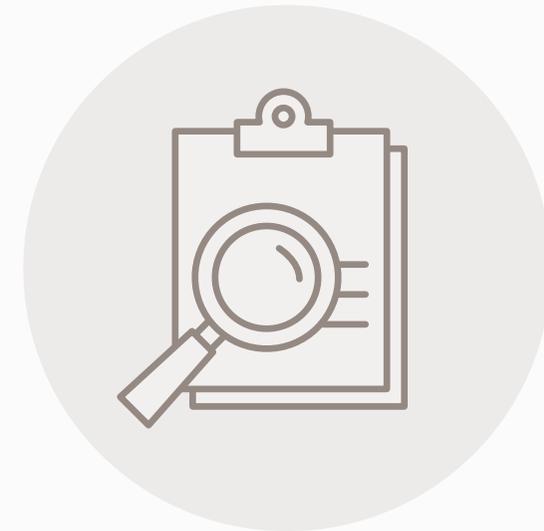
행정자치부(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https://www.moi.go.kr>

주한노르웨이대사관 홈페이지. <https://www.norway.no/en/south-korea>. 2017년 3월 19일 검색

OECD 홈페이지. <https://data.oecd.org/socialexp/family-benefits-public-spending.htm>. 2017년 3월 19일 검색

Appendix 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권리지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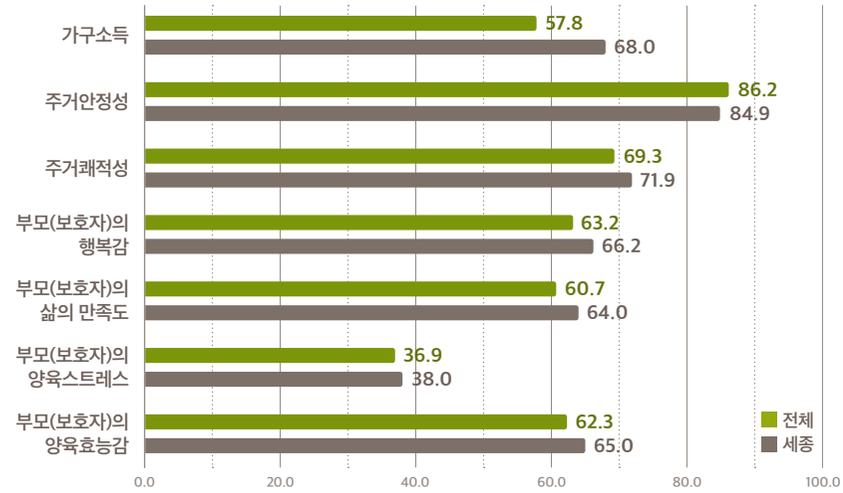


권리보장환경 | 권리경험 | 발달결과

우리나라 전국 행정구역은 17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외부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과 기존의 거주민 지역이 공존하고 있어 이 두 지역에서 수집된 표본은 서로 간에 다른 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대표하는 데이터로서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조사 분석에서는 16개 시·도의 데이터만 사용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자료는 참고를 위해 부록으로 실었다(N=45).

1. 권리보장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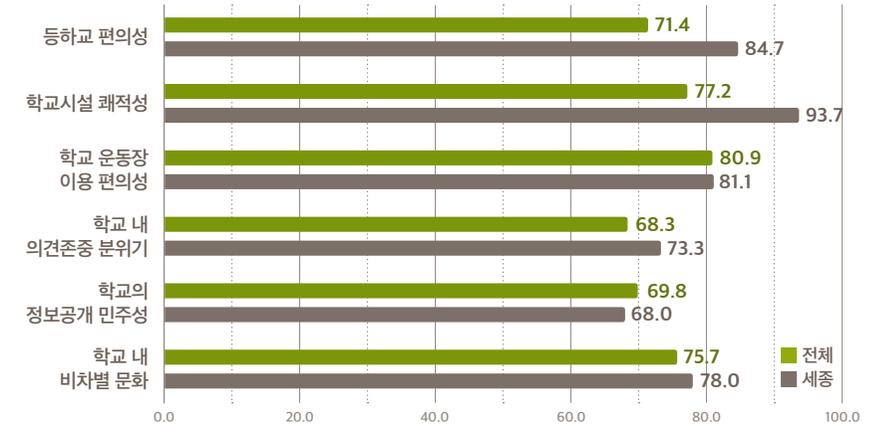
1) 가정



[그림 appendix-1] 권리보장환경: 가정

가구 소득	월 평균 가구 소득의 전국 평균은 57.8점, 세종은 68.0점으로 나타남.
주거안정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86.2%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안전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84.9%로 나타남.
주거쾌적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69.3%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쾌적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세종은 71.9%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현재 행복감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현재의 행복감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평균 63.2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66.2점으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평균적으로 60.7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64.0점으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양육스트레스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36.9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38.0점으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양육효능감	전체 조사 대상 부모(보호자)가 양육 효능감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62.3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65.0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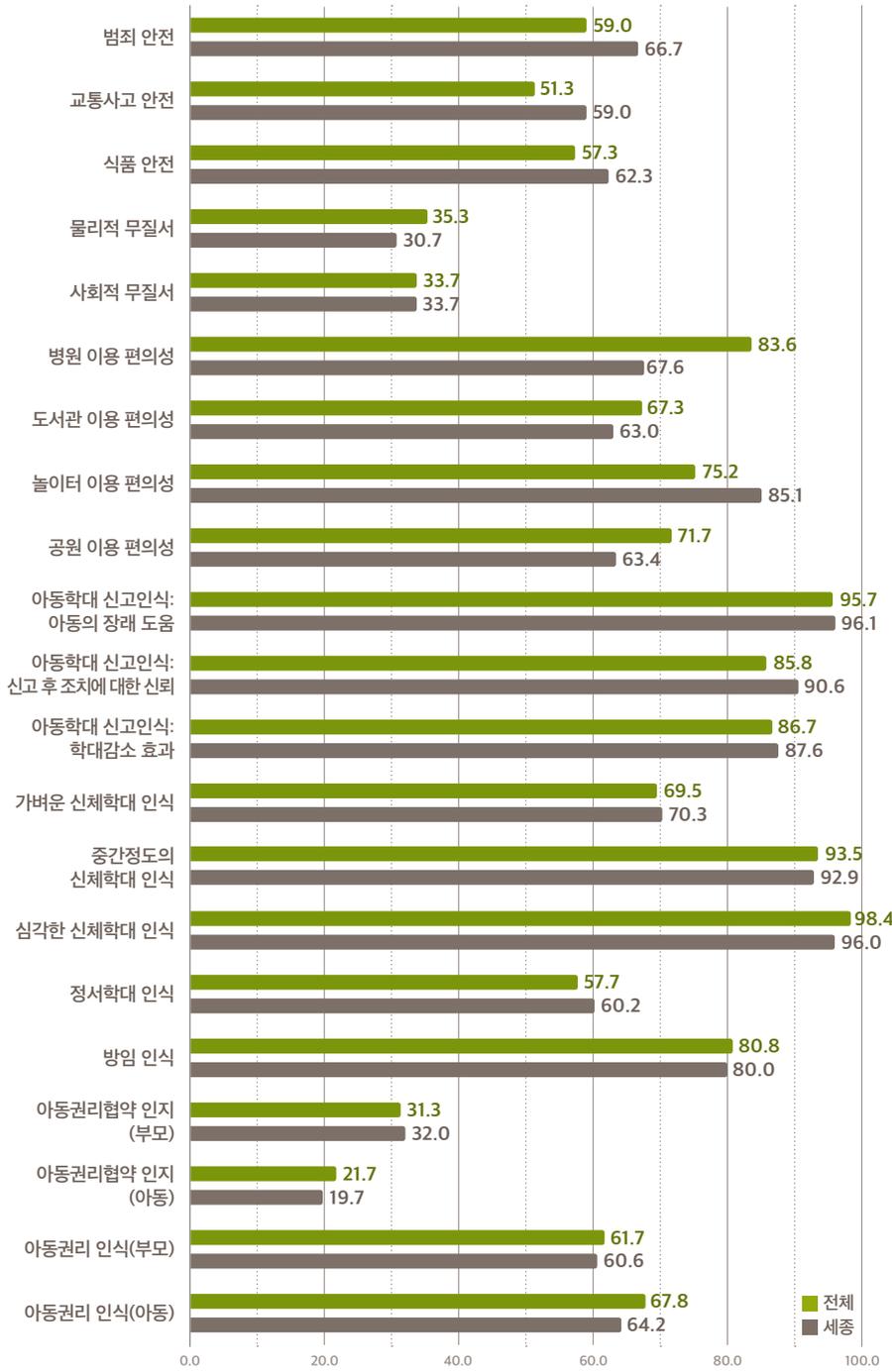
2) 학교



[그림 appendix-2] 권리보장환경: 학교

등학교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71.4%가 가정에서 학교까지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84.7%로 나타남.
학교시설 쾌적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77.2%가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이 깨끗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93.7%로 나타남.
학교 운동장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80.9%가 학교 운동장이 활동하기 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81.1%로 나타남.
학교 내 의견존중 분위기	학교에서 학생의 의견존중 정도에 대한 전국 평균은 68.3점이고, 세종은 73.3점으로 나타남.
학교의 정보공개 민주성	조사대상 아동이 학교의 정보공개에의 민주성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은 69.8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68.0점으로 나타남.
학교 내 비차별 문화	조사대상 아동이 학교의 차별 문화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은 75.7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78.0점으로 나타남.

3)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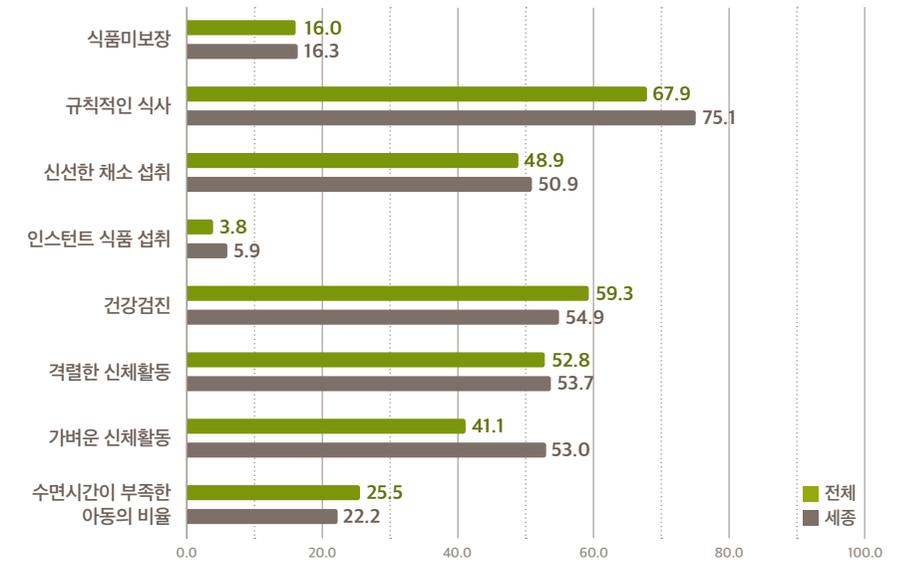
[그림 appendix-3] 권리보장환경: 지역사회

범죄 안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정도는 전체 평균 59.0점, 세종은 66.7점으로 나타남.
교통사고 안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 51.3점, 세종은 59.0점으로 나타남.
식품 안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 57.3점, 세종은 62.3점으로 나타남.
물리적 무질서	부모(보호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물리적 무질서 정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은 35.3점, 세종은 30.7점으로 나타남.
사회적 무질서	부모(보호자)가 거주지역의 사회적 무질서에 대해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과 세종의 평균이 33.7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병원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83.6%가 거주 지역 내 병원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67.6%로 나타남.
도서관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67.3%가 거주 지역 내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63.0%로 나타남.
놀이터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75.2%가 동네의 놀이터가 아이들이 놀기에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85.1%로 나타남.
공원 이용 편의성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71.7%가 동네에 공원이 가까워서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63.4%로 나타남.
아동학대 신고인식: 아동의 장래 도움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95.7%가 아동학대 신고가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96.1%로 나타남.
아동학대 신고인식: 신고 후 조치에 대한 신뢰	전체 부모(보호자) 중 85.8%가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90.6%로 나타남.
아동학대 신고인식: 학대감소 효과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86.7%가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감소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87.6%로 나타남.
가벼운 신체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69.5%가 '꼬집기',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과 같은 가벼운 신체학대를 실제 학대라고 인식하였고, 세종은 70.3%로 나타남.
중간정도의 신체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등에 대하여 93.5%가 신체 학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92.9%로 나타남.
심각한 신체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98.4%가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것', '두들겨 패는 것'에 대하여 신체 학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96.0%로 나타남.
정서학대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 중 57.7% 정도만이 '아이를 말로 위협하거나 바보와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등을 정서 학대로 인식하였고, 세종은 60.2%로 나타남.
방임 인식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의 80.8%가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아이를 혼자 집에 두는 상황' 등에 대하여 방임을 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80.0%로 나타남.

아동권리협약 인지(부모)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전체 평균은 31.3점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름만 들어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32.0점으로 나타남.
아동권리협약 인지(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전체 평균은 21.7점으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나 이름만 들어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종은 19.7점으로 나타남.
아동권리 인식 (부모)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인식한 정도는 전체 평균 61.7점, 세종은 60.6점으로 나타남.
아동권리 인식 (아동)	조사대상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은 67.8점, 세종은 64.2점으로 나타남.

2. 권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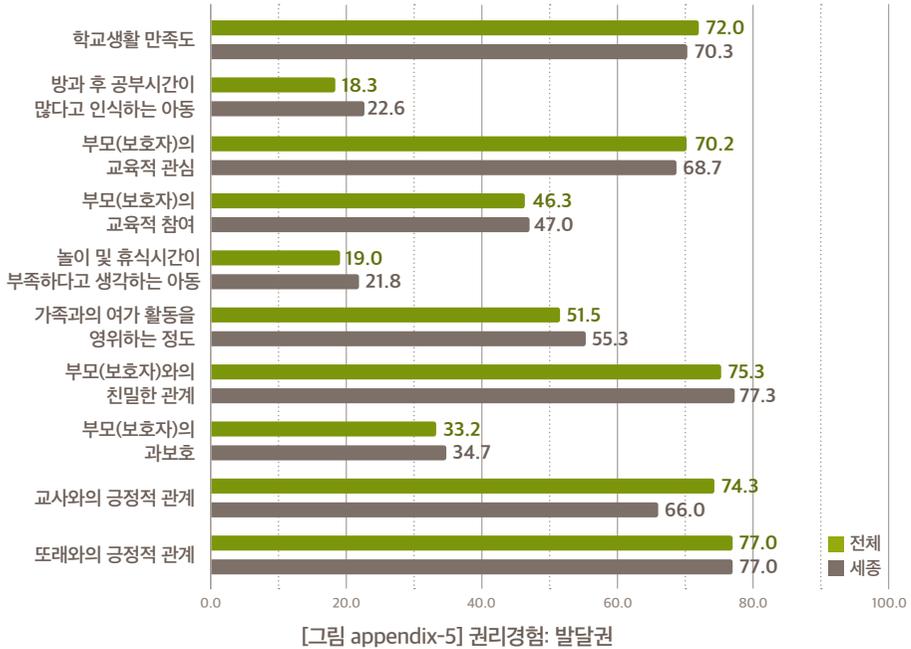
1) 생존권



[그림 appendix-4] 권리경험: 생존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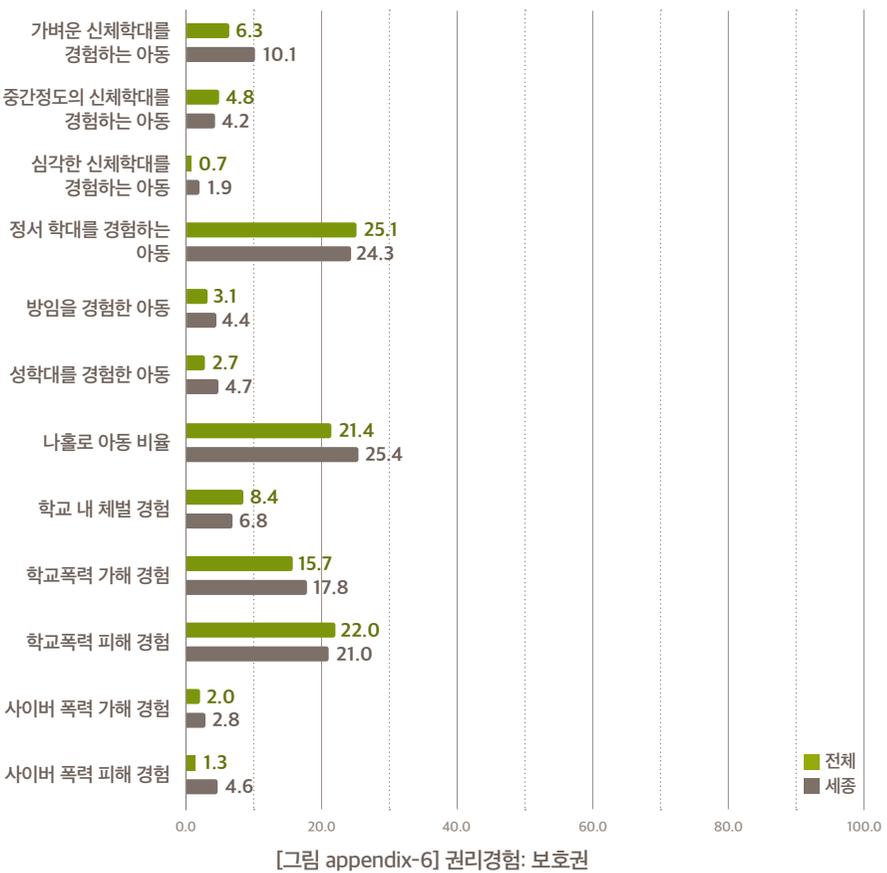
식품미보장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는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양질의 식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16.3점)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규칙적인 식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67.9%가 일주일에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75.1%로 나타남.
신선한 채소 섭취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48.9%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신선한 채소를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50.9%로 나타남.
인스턴트 식품 섭취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3.8%가 일주일에 5일 이상 인스턴트 음식을 섭취한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5.9%로 나타남.
건강검진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 간 건강검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은 59.3%로 나타났고, 세종은 54.9%로 나타남.
격렬한 신체활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일주일에 3일 이상, 20분 이상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한 아동의 비율은 52.8%로 나타났고, 세종은 53.7%로 나타남.
가벼운 신체활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일주일에 3일 이상, 1시간 이상의 가벼운 신체활동을 한 아동의 비율은 41.1%로 나타났고, 세종은 53.0%로 나타남.
수면시간이 부족한 아동의 비율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25.5%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22.2%로 나타남.

2) 발달권



학교생활 만족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72.0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70.3점으로 나타남.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방과 후 공부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8.3%로 나타났고, 세종은 22.6%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관심	부모(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 지표의 전국 평균은 70.2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68.7점으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조사대상 부모(보호자)의 교육적 참여 지표의 전체 평균 46.3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47.0점으로 나타남.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놀이 및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아동의 비율은 19.0%로 나타났고, 세종은 21.8%로 나타남.
가족과의 여가 활동을 영위하는 정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한 정도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반적으로 1년에 1회~2회 정도 가족과 함께 여가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51.5점, 세종은 55.3점으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부모(보호자)와의 친밀한 관계 지표의 전체 아동 평균은 75.3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77.3점으로 나타남.
부모(보호자)의 과보호	조사대상 아동이 부모(보호자)가 자녀를 과보호하고 있는지 정도에 응답한 결과 전체 평균 33.2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34.7점으로 나타남.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지표의 전체 아동 평균은 74.3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66.0점으로 나타남.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의 평균은 77.0점으로 전체 평균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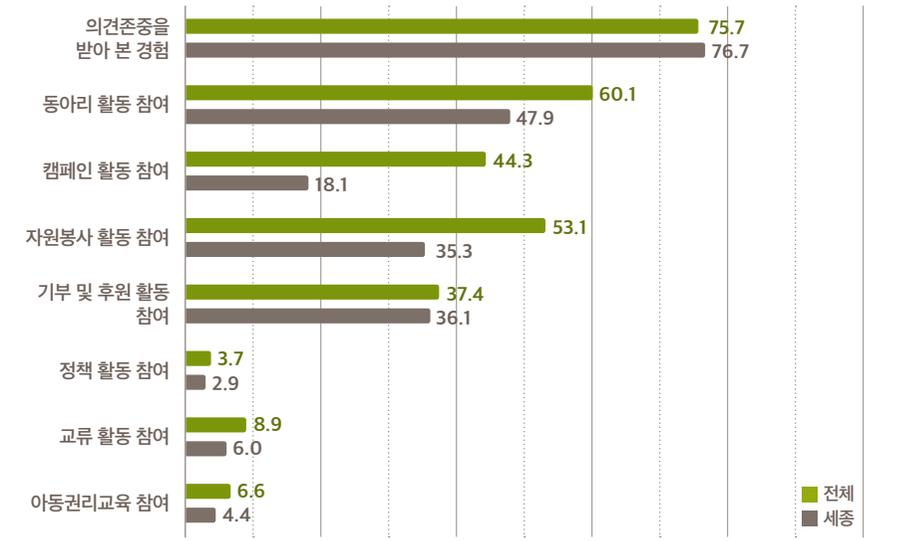
3) 보호권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 아동의 6.3%는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가벼운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종은 10.1%로 나타남.
중간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4.8%가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중간정도의 신체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4.2%로 나타남.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심각한 신체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0.7%이고, 세종은 1.9%로 나타남.
정서학대를 경험하는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정서 학대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아동은 25.1%로 나타났고, 세종은 24.3%로 나타남.
방임을 경험한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3.1%로 나타났고, 세종은 4.4%로 나타남.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평균 2.7%가 지난 1년간 성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4.7%로 나타남.

나홀로 아동 비율	전체 조사대상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결과 평일 방과 후 아동이 돌봐주는 성인 없이 3일 이상 있게 되는 아동의 비율은 21.4%로 나타났고, 세종은 25.4%로 나타남.
학교 내 체벌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8.4%가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6.8%로 나타남.
학교폭력 가해 경험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의 15.7%가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지속적으로 또래를 괴롭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17.8%로 나타남.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지표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은 22.0%로 나타났고, 세종은 21.0%로 나타남.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간 한 달 평균 1회 이상 사이버 폭력 가해를 행한 아동은 2.0%이며, 세종은 2.8%로 나타남.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1.3%로 나타났고, 세종은 4.6%로 나타남.

4) 참여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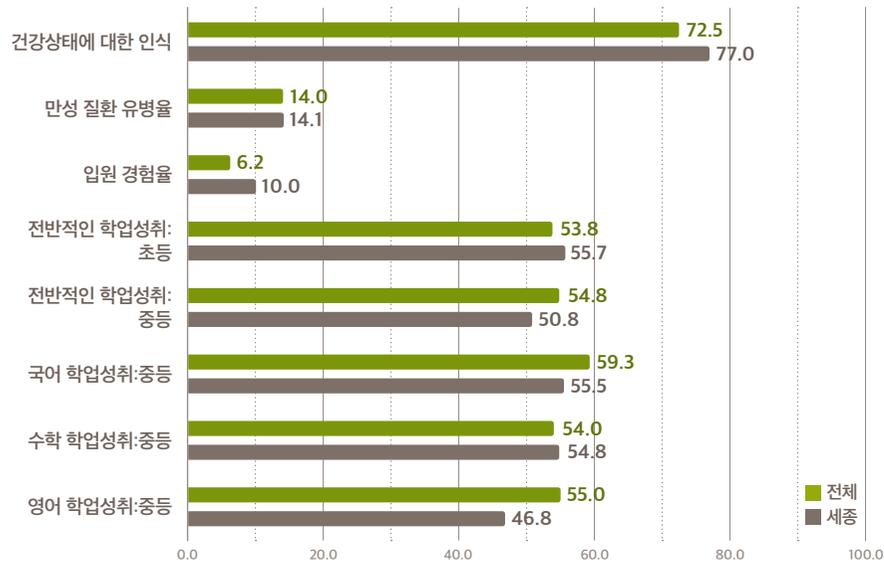


[그림 appendix-7] 권리경험: 참여권

의견존중을 받아 본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중요한 집안일, 학업, 진로 문화여가취미 생활과 관련하여 부모(보호자)로부터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존중의 전체 아동 평균은 75.7점이며, 세종은 76.7점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60.1%가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에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47.9%로 나타났다.
캠페인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44.3%가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18.1%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53.1%가 지난 1년간 학교 및 학교 밖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35.3%로 나타났다.
기부 및 후원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37.4%가 지난 1년간 기부 및 후원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36.1%로 나타났다.
정책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3.7%가 지난 1년간 정책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2.9%로 나타났다.
교류 활동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8.9%가 지난 1년간 교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6.0%로 나타났다.
아동권리교육 참여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6.6%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세종은 4.4%로 나타났다.

3. 발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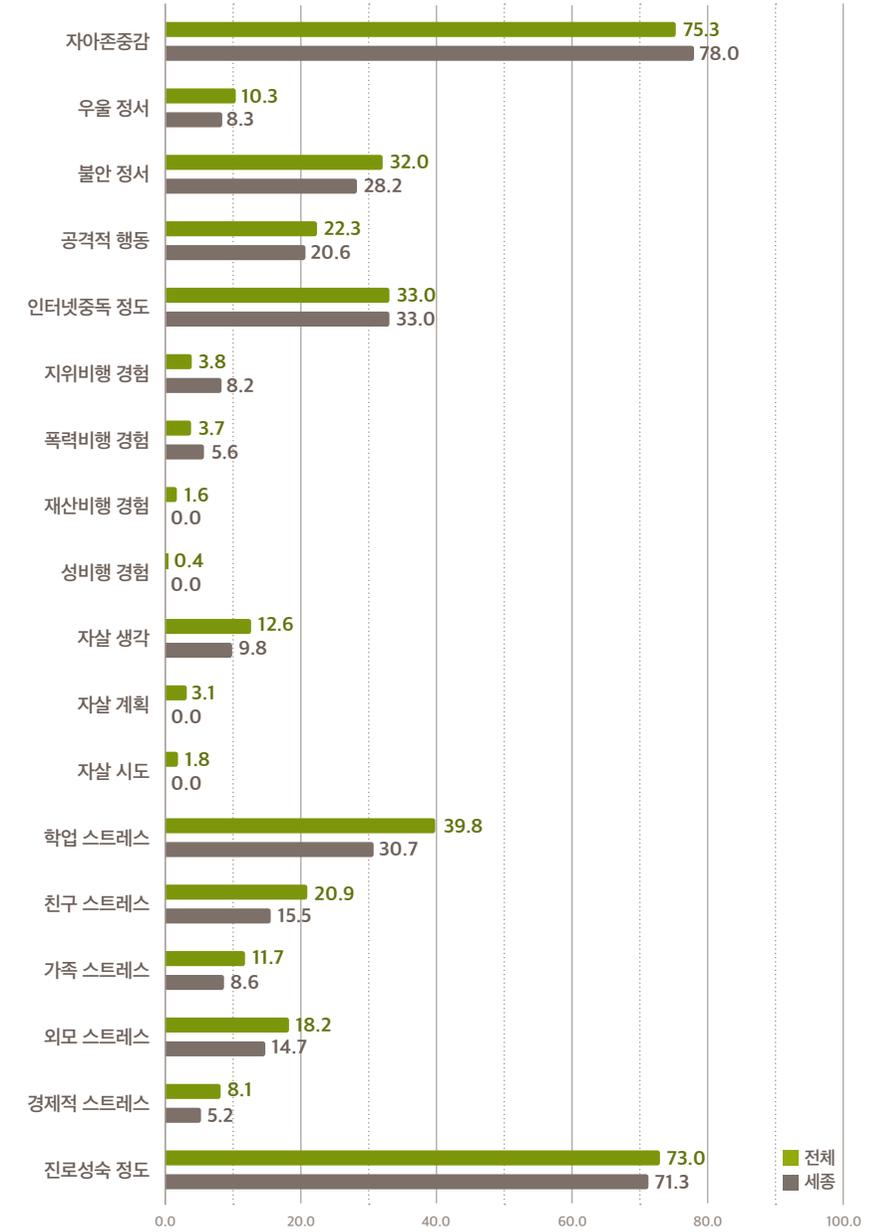
1) 건강 및 인지



[그림 appendix-8] 발달결과: 건강 및 인지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건강상태에 대한 전체 평균은 72.5점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은 77.0점으로 나타남.
만성 질환 유병율	아동에게 천식, 아토피와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전체 아동 중 14.0%가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14.1%로 나타남.
입원 경험율	지난 1년 간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부모(보호자)가 응답한 결과 전체 아동 중 6.2%가 입원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10.0%로 나타남.
전반적인 학업성취: 초등	전체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의 평균은 53.8점이고, 세종은 55.7점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의 평균은 54.8점이고, 세종은 50.8점으로 나타남.
국어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국어 학업성취 평균은 59.3점이고, 세종은 55.5점으로 나타남.
수학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수학 학업성취 평균은 54.0점이고, 세종은 54.8점으로 나타남.
영어 학업성취: 중등	전체 중학생의 영어 학업성취 평균은 55.0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46.8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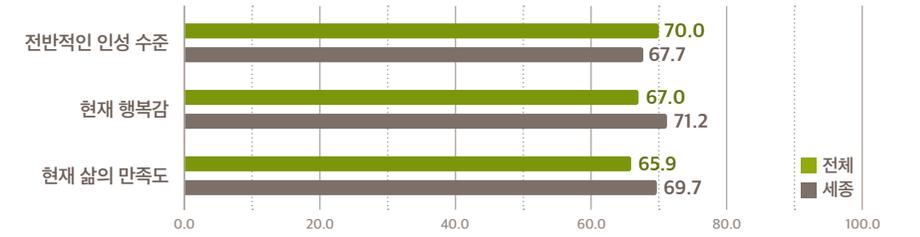
2) 사회정서



[그림 appendix-9] 발달결과: 사회정서

자아존중감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의 전체 평균은 75.3점, 세종은 78.0점으로 나타남.
우울 정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우울 수준은 10.3점으로 우울 수준이 높지 않았고, 세종은 평균 수준보다 낮은 8.3점으로 나타남.
불안 정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불안 수준은 평균 32.0점으로 '그렇지 않다'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28.2점으로 나타남.
공격적 행동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평균 22.3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20.6점으로 나타남.
인터넷중독 정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평균 33.0점으로 확인되었고, 세종은 평균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지위비행 경험	전체 조사대상 아동 중 지난 1년 간 지위비행 경험율은 3.8%로 나타났고, 세종은 8.2%로 나타남.
폭력비행 경험	초등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의 지난 1년 간 폭력비행 경험율은 3.7%로 나타났고, 세종은 5.6%로 나타남.
재산비행 경험	초등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의 지난 1년 간 재산비행 경험율은 1.6%로 나타났고, 세종은 0.0%로 나타남.
성비행 경험	초등 6학년과 중 2학년 아동의 지난 1년 간 성비행 경험율은 0.4%로 나타났고, 세종은 0.0%로 나타남.
자살 생각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12.6%가 지난 1년 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9.8%로 나타남.
자살 계획	전체 조사대상 중학생 중 3.1%가 지난 1년 간 진지하게 자살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본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0.0%로 나타남.
자살 시도	전체 조사대상 중학생 중 1.8%가 지난 1년 간 자살을 시도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0.0%로 나타남.
학업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보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업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39.8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30.7점으로 나타남.
친구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친구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20.9점으로 나타남. 세종은 15.5점으로 나타남.
가족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가족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11.7점, 세종은 8.6점으로 나타남.
외모 스트레스	전체 조사대상 아동은 전반적으로 외모 스트레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모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18.2점, 세종은 14.7점으로 나타남.
경제적 스트레스	조사대상 아동은 경제적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은 8.1점으로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 스트레스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세종은 5.2점으로 나타남.
진로성숙 정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진로 성숙 정도는 평균 73.0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71.3점으로 나타남.

3) 인성 및 행복



[그림 appendix-10] 발달결과: 인성 및 행복

전반적인 인성 수준	전체 조사대상 아동의 인성은 평균 70.0점으로 조사되었고, 세종은 67.7점으로 나타남.
현재 행복감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지금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67.0점으로 나타났고, 세종은 71.2점으로 나타남.
현재 삶의 만족도	전체 조사대상 아동이 지금 현재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 평균 65.9점으로 조사되었고, 세종은 69.7점으로 나타남.

Appendix 2

설문지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

초등학교 4학년 |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2학년 | 부모(보호자)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초등학교 4학년)

ID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상황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사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리서치앤리서치(02-3484-3045)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문항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예1) 여러분의 성별에 표시해주세요. ① 여자 ② 남자

예2)

문항	정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학교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4

※ 주관식 문항은 빈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PART A. 학교환경 및 아동학대·아동권리 인식

문1)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와 월은 언제인가요? ()년 ()월

문2) 여러분의 성별에 표시해 주세요. ① 여자 ② 남자

문3) 여러분의 공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내용	매우 못하는 편이다 ←					보통					→ 매우 잘하는 편이다				
공부수준	0	1	2	3	4	5	6	7	8	9	10				

문4) 여러분의 학교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4-1. 학교가 가까이 있어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	1	2
4-2. 학교 시설은 깨끗하다.	1	2
4-3. 학교 운동장은 활동하기에 좋다.	1	2

문5)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1	2	3	4
5-2.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1	2	3	4
5-3.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	2	3	4
5-4. 학급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만약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1	2	3	4
5-5. 우리 학교는 학교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5-6. 가정환경(예: 경제적 형편, 다문화 가정 등)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5-7. 외모나 신체적 조건(예: 장애, 비만 등)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문6)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이 아동을 때리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아동학대)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① 예 ▶ 문6-1 ② 아니오 ▶ 문7

문6-1) 아이가 맞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는 것을 보고 다른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였나요?
① 예 ▶ 문7 ② 아니오 ▶ 문6-2

문6-2)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 신고하면 아이를 때린 어른이 나에게 복수할 것 같아서
- ③ 부모(성인)가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 ④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⑤ 기타()

문7)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경찰서(112) ③ 지역사회복지관 ④ 아동관련 상담소
- ⑤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⑥ 종교단체 ⑦ 기타()

문8)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9)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잘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아동은 0-18세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아동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어리숙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9-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9-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PART B. 식습관 및 건강행동

문10) 여러분의 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0-1.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1	2	3	4
10-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을 자주 먹는다.	1	2	3	4
10-3. 인스턴트 음식(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자주 먹는다.	1	2	3	4

문11) 여러분의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하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1-1. <u>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u> 예) 달리기, 등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1	2	3	4
11-2. <u>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u> 예)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12) 지난 1년 동안 학교 신체검사 이외에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문13) 하루 평균 밤에 몇 시간 자나요(수면시간)? ()시간 ()분

문14) 밤에 잘 자는 시간(수면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PART C. 학교 생활 및 방과후 생활

문15)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5-1. 학교 수업은 나에게 유익하다.	1	2	3	4
15-2.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	1	2	3	4
15-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 여러분의 방과후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과후 생활은 학교 수업이 마친 후의 모든 생활을 의미함

문16-1) 방과후 공부시간은 평균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16-2) 방과후 공부시간은 어떤 편인가요?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문16-3) 방과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고 있나요?

- ① 예 ▶ 문16-4, 문16-5 ② 아니오 ▶ 문17-1

문16-4) 다니는 학원 및 과외수업은 몇 개입니까? ()개

문16-5)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 주세요 *한개 이상 표시가능

- ① 선행학습 ② 학교수업 보충 ③ 재능개발 ④ 취미
⑤ 부모님이 시켜서 ⑥ 꿈을 위해서 ⑦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의 놀이 및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1) 하루 평균 놀이시간 및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 ()분

문17-2) 놀이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17-3) 놀이 및 휴식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활동 '한 개' 만 응답해주세요.

- ①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기
②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SNS(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하기
③ TV 시청
④ 운동
⑤ 독서
⑥ 취미 및 문화생활(영화·음악감상, 바둑, 체스, 프라모델 만들기 등)
⑦ 기타()

문17-4) 다음의 활동을 주중과 주말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주중과 주말에 1분 이상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시간을 활동 시간을 작성하여 주세요.

활동내용	주중(월~금)	주말(토~일)
① 놀이터에서 놀기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② 컴퓨터/스마트폰 하기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③ TV 시청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④ 운동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⑤ 독서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⑥ 취미 및 문화생활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⑦ 기타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다음 페이지 계속 ▶

PART D. 부모, 가족, 선생님, 친구 관계

문18)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해주신다.	1	2	3	4
18-2.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하신다.	1	2	3	4
18-3.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18-4.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준다.	1	2	3	4
18-5.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편이다.	1	2	3	4
18-6. 내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1	2	3	4
18-7. 내가 속상해 있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1	2	3	4
18-8.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주신다.	1	2	3	4
18-9. 나를 과잉보호하신다.	1	2	3	4
18-10. 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문19) 다음은 여러분의 선생님과 친구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1. 담임 선생님이 좋다.	1	2	3	4
19-2.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19-3.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19-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1	2	3	4
19-5.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19-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문20)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이 나의 신체(가슴, 성기 등)를 만진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1)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이 그 사람의 신체(가슴, 성기 등)를 만지도록 시킨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2)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3)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손으로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4) 지난 1년간 부모님 또는 가족이 나를 혼내실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나요?

부모님(가족)이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4-1. 나를 꼬집으셨다.	1	2	3	4	5
24-2.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셨다.	1	2	3	4	5
24-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셨다.	1	2	3	4	5
24-4.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1	2	3	4	5
24-5.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1	2	3	4	5
24-6.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	1	2	3	4	5
24-7.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1	2	3	4	5
24-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1	2	3	4	5
24-9.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 하셨지만,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으셨다.	1	2	3	4	5
24-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1	2	3	4	5
24-11.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1	2	3	4	5
24-12.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1	2	3	4	5
24-13.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4.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5.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살펴보시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6. 두들겨 패셨다.	1	2	3	4	5

문2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다른 아이(내가 한 경우)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5-1.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25-2. 다른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5-3. 다른 아이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25-4.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1	2	3	4	5
25-5. 다른 아이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	2	3	4	5
25-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다른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	2	3	4	5
25-7.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	2	3	4	5
25-8.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 폰)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25-9.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 폰)에서 누군가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5

다음 페이지 계속 ▶

문34)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고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지난 1주일 동안 나는...	전혀 없다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거의 매일
34-1.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어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1	2	3	4
34-2. 기분이 우울했다.	1	2	3	4
34-3.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4.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1	2	3	4
34-5.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34-6. 평상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곤 했다.	1	2	3	4
34-7. 슬픈 기분이 들었다.	1	2	3	4

문35)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1.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35-2.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1	2	3	4
35-3. 평소예에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1	2	3	4
35-4.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35-5.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1	2	3	4
35-6.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	1	2	3	4

문36)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1	2	3	4
36-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1	2	3	4
36-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1	2	3	4
36-4.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1	2	3	4
36-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36-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1	2	3	4

문37)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 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세요. *본 문항의 답변은 학교 내 벌점과 관련이 없으며, 선생님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시) 담배 피우기: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 본 경우→“지난 1년 동안 ()회”에, 습관적으로 매일 피우는 경우→“하루에 ()회”에 해당 횟수를 써주세요.
 예시) 술 마시기: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셔 본 경우→“지난 1년 동안 ()회”에, 주기적으로 자주 마시는 경우→ “한 달 평균 ()회에 해당 횟수를 써 주세요.

활동내용	참여 여부		경험횟수 “예”라고 응답한 학생만
	예	아니오	
37-1. 담배 피우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또는 하루에 ()회
37-2. 술 마시기 (제사나 종교 행사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 제외)	1	2	지난 1년 동안 ()회 또는 한달에 ()회
37-3.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4. 가출 (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	1	2	지난 1년 동안 ()회

문38) 다음은 여러분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1. 컴퓨터(스마트폰)를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38-2. 컴퓨터(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안절부절못하고 초초해 진다.	1	2	3	4
38-3. 컴퓨터(스마트폰)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38-4. 컴퓨터(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컴퓨터(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4
38-5. 컴퓨터(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1	2	3	4
38-6.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다.	1	2	3	4
38-7.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	2	3	4
38-8. 주위 사람들은 내가 컴퓨터(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문39) 다음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내용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보통			→ 스트레스를 받는다			
39-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9-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9-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9-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39-5. 경제적 어려움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계속 ▶

PART H. 마음과 행동

문40)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1. 부모님과 약속한 게임시간이나 TV 시청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40-2.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잘 낸다.	1	2	3	4
40-3. 나는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40-4. 공부하기 싫을 때 맞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40-5.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문41)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1-1. 계획한 것을 잘 지킨다.	1	2	3	4
41-2. 과제를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껏 한다.	1	2	3	4
41-3.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	1	2	3	4
41-4.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1-5. 부지런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문42)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2-1. 친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친구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1	2	3	4
42-2.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웃지 않는다.	1	2	3	4
42-3.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1	2	3	4
42-4.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인정한다.	1	2	3	4
42-5.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문43)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1. 학교에서 내가 하기 싫은 역할이 주어져도 책임을 다한다.	1	2	3	4
43-2. 실수한 것에 대하여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	2	3	4
43-3.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1	2	3	4
43-4.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3-5.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1	2	3	4

문44)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1. 나는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1	2	3	4
44-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행동을 잘 한다.	1	2	3	4
44-3.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를 위해 나의 준비물을 기꺼이 빌려준다.	1	2	3	4
44-4.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 있으면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1	2	3	4
44-5.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줄 것이다.	1	2	3	4
44-6.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1	2	3	4

문45)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1.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편이다.	1	2	3	4
45-2. 분위기나 대화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	1	2	3	4
45-3.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1	2	3	4
45-4.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잘 한다.	1	2	3	4
45-5.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해주는 편이다.	1	2	3	4
45-6.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1	2	3	4
45-7. 친한 친구일지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1	2	3	4

문46)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1. 조별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협동심을 발휘한다.	1	2	3	4
46-2. 체육대회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친구들과 협력한다.	1	2	3	4
46-3. 협력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한다.	1	2	3	4
46-4. 공동체가 발전할 때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46-5.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문47)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1.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가정 형편, 성적,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1	2	3	4
47-2.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를 공평하게 대한다.	1	2	3	4
47-3. 나는 외적인 조건(가정 형편, 성적, 외모 등)으로 다른 사람을 놀리지 않는다.	1	2	3	4
47-4. 세상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1	2	3	4
47-5.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이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PART A. 학교환경 및 아동학대·아동권리 인식

문1)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와 월은 언제인가요? ()년 ()월

문2) 여러분의 성별에 표시해 주세요. ① 여자 ② 남자

문3) 여러분의 공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내용	매우 못하는 편이다 ←					보통					→ 매우 잘하는 편이다						
공부수준	0	1	2	3	4	5	6	7	8	9	10						

문4) 여러분의 학교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4-1. 학교가 가까이 있어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	1	2
4-2. 학교 시설은 깨끗하다.	1	2
4-3. 학교 운동장은 활동하기에 좋다.	1	2

문5)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1	2	3	4
5-2.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1	2	3	4
5-3.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	2	3	4
5-4. 학급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만약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1	2	3	4
5-5. 우리 학교는 학교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5-6. 가정환경(예: 경제적 형편, 다문화 가정 등)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5-7. 외모나 신체적 조건(예: 장애, 비만 등)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문6)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이 아동을 때리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아동학대)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① 예 ▶ 문6-1 ② 아니오 ▶ 문7

문6-1) 아이가 맞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는 것을 보고 다른 어른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였나요?
 ① 예 ▶ 문7 ② 아니오 ▶ 문6-2

문6-2)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 신고하면 아이를 때린 어른이 나에게 복수할 것 같아서
 ③ 부모(성인)가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④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⑤ 기타()

문7)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경찰서(112) ③ 지역사회복지관 ④ 아동관련 상담소
 ⑤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⑥ 종교단체 ⑦ 기타()

문8)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9)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잘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아동은 0-18세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아동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어리숙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9-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9-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PART B. 식습관 및 건강행동

문10) 여러분의 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0-1.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1	2	3	4
10-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을 자주 먹는다.	1	2	3	4
10-3. 인스턴트 음식(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자주 먹는다.	1	2	3	4

문11) 여러분의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하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1-1.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달리기, 등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1	2	3	4
11-2.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약간 가쁘고 정도의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12) 지난 1년 동안 학교 신체검사 이외에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문13) 하루 평균 밤에 몇 시간 자나요(수면시간)? ()시간 ()분

문14) 밤에 잠 자는 시간(수면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PART C. 학교 생활 및 방과후 생활

문15)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15-1. 학교 수업은 나에게 유익하다.	1	2	3	4
15-2. 나는 학교 공부가 재밌었다.	1	2	3	4
15-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 여러분의 방과후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과후 생활은 학교 수업이 마친 후의 모든 생활을 의미함

문16-1) 방과후 공부시간은 평균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16-2) 방과후 공부시간은 어떤 편인가요?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문16-3) 방과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고 있나요?

- ① 예 ▶ 문16-4, 문16-5 ② 아니오 ▶ 문17-1

문16-4) 다니는 학원 및 과외수업은 몇 개입니까? ()개

문16-5)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 주세요 *한개 이상 표시가능

- ① 선행학습 ② 학교수업 보충 ③ 재능개발 ④ 취미
⑤ 부모님이 시켜서 ⑥ 꿈을 위해서 ⑦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의 놀이 및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1) 하루 평균 놀이시간 및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 ()분

문17-2) 놀이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문17-3) 놀이 및 휴식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활동 '한 개' 만 응답해주세요.

- ①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기
②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SNS(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하기
③ TV 시청
④ 운동
⑤ 독서
⑥ 취미 및 문화생활(영화·음악감상, 바둑, 체스, 프라모델 만들기 등)
⑦ 기타()

문17-4) 다음의 활동을 주중과 주말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주중과 주말에 1분 이상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시간을 활동 시간을 작성하여 주세요.

활동내용	주중(월~금)	주말(토~일)
① 놀이터에서 놀기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② 컴퓨터/스마트폰 하기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③ TV 시청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④ 운동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⑤ 독서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⑥ 취미 및 문화생활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⑦ 기타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시간()분 ② 없음

PART D. 부모, 가족, 선생님, 친구 관계

문18)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해주신다.	1	2	3	4
18-2.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하신다.	1	2	3	4
18-3.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18-4.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준다.	1	2	3	4
18-5.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편이다.	1	2	3	4
18-6. 내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1	2	3	4
18-7. 내가 속상해 있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1	2	3	4
18-8.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주신다.	1	2	3	4
18-9. 나를 과잉보호하신다.	1	2	3	4
18-10. 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문19) 다음은 여러분의 선생님과 친구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1. 담임 선생님이 좋다.	1	2	3	4
19-2.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19-3.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19-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1	2	3	4
19-5.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19-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문20)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이 나의 신체(가슴, 성기 등)를 만진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1)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이 그 사람의 신체(가슴, 성기 등)를 만지도록 시킨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2)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3)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손으로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4) 지난 1년간 부모님 또는 가족이 나를 혼내실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나요?

부모님(가족)이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4-1. 나를 꼬집으셨다.	1	2	3	4	5
24-2.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셨다.	1	2	3	4	5
24-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셨다.	1	2	3	4	5
24-4.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셨다.	1	2	3	4	5
24-5.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1	2	3	4	5
24-6.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	1	2	3	4	5
24-7.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1	2	3	4	5
24-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1	2	3	4	5
24-9.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 하셨지만,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으셨다.	1	2	3	4	5
24-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1	2	3	4	5
24-11.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1	2	3	4	5
24-12.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1	2	3	4	5
24-13.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4.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5.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6. 두들겨 패셨다.	1	2	3	4	5

문2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다른 아이(내가 한 경우)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5-1.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25-2. 다른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5-3. 다른 아이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25-4.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1	2	3	4	5
25-5. 다른 아이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	2	3	4	5
25-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다른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	2	3	4	5
25-7.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	2	3	4	5
25-8.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 폰)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25-9.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 폰)에서 누군가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5

다음 페이지 계속 ▶

문26)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아이→나(내가 당한 경우)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6-1.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26-2. 나의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6-3. 나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26-4. 나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1	2	3	4	5
26-5. 나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	2	3	4	5
26-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	2	3	4	5
26-7. 나에게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	2	3	4	5
26-8.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 폰)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보거나 악플을 시달린 적이 있다.	1	2	3	4	5
26-9.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 폰)에서 누군가가 나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5

문27) 다음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1. 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2. 상급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3.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4. 부모님은 학원 선택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5. 부모님은 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과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존중해줍니다.	1	2	3	4

PART E. 참여 활동

문28) 지난 1년 동안 아래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횟수를 함께 응답해 주세요.

활동내용	참여 여부		참여횟수 (1년간)
	예	아니오	
28-1. 학교 동아리 활동(연극, 댄싱 동아리 등)	1	2	회
28-2. 학교에서 하는 캠페인 활동(학교폭력예방캠페인, 친구사랑 캠페인 등)	1	2	회
28-3.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1	2	회
28-4. 학교밖 동아리 활동 (학교가 아닌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경험)	1	2	회
28-5. 학교밖 캠페인 활동 (학교가 아닌 단체에서 언어폭력예방캠페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을 해본 경험)	1	2	회
28-6. 학교밖 자원봉사 활동	1	2	회
28-7. 기부, 후원활동	1	2	회
28-8. 정책참여 활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자치위원회, 아동권리 옹부즈맨 등, 자신의 의견을 국가 기관에 전달해본 경험)	1	2	회
28-9. 교류활동(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지역 청소년 등과 만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	1	2	회

문29) 지난 1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PART F. 건강상태

※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0-1) 평소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문30-2) 여러분은 자신의 체형(몸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말랐다 ② 말랐다 ③ 보통이다 ④ 뚱뚱하다 ⑤ 매우 뚱뚱하다

문30-3) 여러분은 자신의 체형(몸매)에 만족하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하다 ② 만족하지 못하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30-4) 최근에 측정한 키와 몸무게는? 키 ()cm 몸무게 ()kg

*만약 키와 몸무게를 모르는 경우 응답하지 말아 주세요.

PART G. 정서 및 스트레스

문31) 여러분은 현재 삶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2) 여러분은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3) 다음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1.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33-2. 나에게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33-3.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1	2	3	4
33-4.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33-5.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33-6.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33-7.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33-8.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34)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고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지난 1주일 동안 나는...	전혀 없다	1주일 1~2일	1주일 3~4일	거의 매일
34-1.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어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1	2	3	4
34-2. 기분이 우울했다.	1	2	3	4
34-3.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4.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1	2	3	4
34-5.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34-6. 평상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곤 했다.	1	2	3	4
34-7. 슬픈 기분이 들었다.	1	2	3	4

문35)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1.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35-2.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1	2	3	4
35-3. 평소에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1	2	3	4
35-4.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35-5.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1	2	3	4
35-6.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	1	2	3	4

문36)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1	2	3	4
36-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1	2	3	4
36-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1	2	3	4
36-4.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1	2	3	4
36-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36-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1	2	3	4

문37)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 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세요. *본 문항의 답변은 학교 내 벌점과 관련이 없으며, 선생님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시) 담배 피우기: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 본 경우→“지난 1년 동안 ()회”에,
습관적으로 매일 피우는 경우→“하루에 ()회”에 해당 횟수를 써주세요.
예시) 술 마시기: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셔 본 경우→“지난 1년 동안 ()회”에,
주기적으로 자주 마시는 경우→“한 달 평균 ()회에 해당 횟수를 써 주세요.

활동내용	참여 여부		경험횟수 “예”라고 응답한 학생만
	예	아니오	
37-1. 담배 피우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또는 하루에 ()회
37-2. 술 마시기 (제사나 종교 행사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 제외)	1	2	지난 1년 동안 ()회 또는 한달에 ()회
37-3.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4. 가출 (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6. 다른 사람 따돌림 시키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7.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8. 다른 사람 협박하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9. 패싸움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2. 성관계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3. 성폭행이나 성희롱(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4. 돈을 걸고 도박게임	1	2	지난 1년 동안 ()회

문38) 다음은 여러분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1. 컴퓨터(스마트폰)를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38-2. 컴퓨터(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안절부절못하고 초초해 진다.	1	2	3	4
38-3. 컴퓨터(스마트폰)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38-4. 컴퓨터(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컴퓨터(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4
38-5. 컴퓨터(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1	2	3	4
38-6.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다.	1	2	3	4
38-7.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	2	3	4
38-8. 주위 사람들은 내가 컴퓨터(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39)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0)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1)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2) 다음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내용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보통					→ 스트레스를 받는다				
42-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5. 경제적 어려움	0	1	2	3	4	5	6	7	8	9	10				

문43)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계획이나 진로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1.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42-2.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43-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학교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	1	2	3	4
43-4.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43-5.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43-6.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43-7.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다.	1	2	3	4
43-8.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1	2	3	4
43-9.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43-10.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43-11.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43-12.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이 더 잘 아신다.	1	2	3	4
43-13.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43-14.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1	2	3	4

PART H. 마음과 행동

문44)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1. 부모님과 약속한 게임시간이나 TV 시청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44-2.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잘 낸다.	1	2	3	4
44-3. 나는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44-4. 공부하기 싫을 때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44-5.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문45)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1. 계획한 것을 잘 지킨다.	1	2	3	4
45-2. 과제를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성껏 한다.	1	2	3	4
45-3.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	1	2	3	4
45-4.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5-5. 부지런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문46)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1. 친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친구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1	2	3	4
46-2.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웃지 않는다.	1	2	3	4
46-3.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1	2	3	4
46-4.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인정한다.	1	2	3	4
46-5.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문47)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1. 학교에서 내가 하기 싫은 역할이 주어져도 책임을 다한다.	1	2	3	4
47-2. 실수한 것에 대하여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	2	3	4
47-3.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1	2	3	4
47-4.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7-5.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중학교 2학년)

ID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설문지는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응답한 내용은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합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느꼈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상황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사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리서치앤리서치(02-3484-3045)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

※ 설문문항을 읽어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예1) 여러분의 성별에 표시해주세요. ① 여자 ② 남자

예2)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우리 학교는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1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4

※ 주관식 문항은 빈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PART A. 학교환경 및 아동학대·아동권리 인식

문1) 여러분이 태어난 연도와 월은 언제인가요? ()년 ()월

문2) 여러분의 성별에 표시해 주세요. ① 여자 ② 남자

문3) 여러분의 공부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과목	매우 못함	못함	보통	잘함	매우 잘함
전체	1	2	3	4	5
국어	1	2	3	4	5
수학	1	2	3	4	5
영어	1	2	3	4	5

문4) 여러분의 여러분의 학교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예	아니오
4-1. 학교가 가까이 있어 등·하교 하기가 편하다.	1	2
4-2. 학교 시설은 깨끗하다.	1	2
4-3. 학교 운동장은 활동하기에 좋다.	1	2

문5)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 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1	2	3	4
5-2.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한다.	1	2	3	4
5-3.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1	2	3	4
5-4. 학급 규칙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만약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1	2	3	4
5-5. 우리 학교는 학교성적으로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5-6. 가정환경(예: 경제적 형편, 다문화 가정 등)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5-7. 외모나 신체적 조건(예: 장애, 비만 등)을 가지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1	2	3	4

문6)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이 아동을 때리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아동학대)을 목격한 경험이 있나요? ① 예 ▶ 문6-1 ② 아니오 ▶ 문7

문6-1) 아이가 맞거나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듣는 것을 보고 다른 어른에게 알려거나 신고하였나요?

① 예 ▶ 문7 ② 아니오 ▶ 문6-2

다음 페이지 계속 ▶

문6-2)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 신고하면 아이를 때린 어른이 나에게 복수할 것 같아서
 ③ 부모(성인)가 아이를 야단치는 것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④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⑤ 기타()

문7)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경찰서(112) ③ 지역사회복지관 ④ 아동관련 상담소
 ⑤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⑥ 종교단체 ⑦ 기타()

문8) 여러분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9)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잘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여기서 아동은 0-18세 연령에 해당함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아동은 아직 어려서 생각이 어리숙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9-2. 아동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9-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PART B. 식습관 및 건강행동

문10) 여러분의 식습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먹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0-1.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1	2	3	4
10-2. 신선한 채소(김치 제외)와 과일을 자주 먹는다.	1	2	3	4
10-3. 인스턴트 음식(라면, 삼각김밥, 햄버거 등)을 자주 먹는다.	1	2	3	4

문11) 여러분의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하지 않음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5일 이상
11-1.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날은 며칠입니까? 예) 달리기, 등산, 빠른 수영, 축구, 농구, 줄넘기	1	2	3	4
11-2. 최근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약간 가쁜 정도의 신체활동을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예) 배구, 배드민턴, 탁구, 가벼운 물건 나르기	1	2	3	4

문12) 지난 1년 동안 학교 신체검사 이외에 건강검진(치과검진 제외)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문13) 하루 평균 밤에 몇 시간 자나요(수면시간)? ()시간 ()분

문14) 밤에 잠 자는 시간(수면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PART C. 학교 생활 및 방과후 생활

문15)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5-1. 학교 수업은 나에게 유익하다.	1	2	3	4
15-2. 나는 학교 공부가 재미있다.	1	2	3	4
15-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 여러분의 방과후 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방과후 생활은 학교 수업이 마친 후의 모든 생활을 의미함

문16-1) 방과후 공부시간은 평균 몇 시간인가요? ()시간 ()분

문16-2) 방과후 공부시간은 어떤 편인가요?

- ① 매우 적다 ② 적다 ③ 보통이다 ④ 많다 ⑤ 매우 많다

문16-3) 방과후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하고 있나요?

- ① 예 ▶ 문16-4, 문16-5 ② 아니오 ▶ 문17-1

문16-4) 다니는 학원 및 과외수업은 몇 개입니까? ()개

문16-5)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한개 이상 표시가능

- ① 선행학습 ② 학교수업 보충 ③ 재능개발 ④ 취미
 ⑤ 부모님이 시켜서 ⑥ 꿈을 위해서 ⑦ 기타()

※ 다음은 여러분의 놀이 및 휴식시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1) 하루 평균 놀이시간 및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간 ()분

문17-2) 놀이 및 휴식시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다음 페이지 계속 ▶

문17-3) 놀이 및 휴식시간에 주로 무엇을 합니까? *가장 많이 하는 활동 '한 개' 만 응답해주세요.

- ①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기
- ②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게임, SNS(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하기
- ③ TV 시청
- ④ 운동
- ⑤ 독서
- ⑥ 취미 및 문화생활(영화·음악감상, 바둑, 체스, 프라모델 만들기 등)
- ⑦ 기타()

문17-4) 다음의 활동을 주중과 주말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주중과 주말에 1분 이상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시간을 활동 시간을 작성하여 주세요.

활동내용	주중(월~금)		주말(토~일)	
① 놀이터에서 놀기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② 컴퓨터/스마트폰 하기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③ TV 시청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④ 운동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⑤ 독서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⑥ 취미 및 문화생활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⑦ 기타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① 있음 ()시간()분	② 없음

PART D. 부모, 가족, 선생님, 친구 관계

문18) 다음은 부모님(보호자)께서 여러분을 대하는 행동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8-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해주신다.	1	2	3	4
18-2.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하신다.	1	2	3	4
18-3. 내가 스스로 나의 일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18-4.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준다.	1	2	3	4
18-5. 나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편이다.	1	2	3	4
18-6. 내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신다.	1	2	3	4
18-7. 내가 속상해 있을 때 기분을 풀어주신다.	1	2	3	4
18-8.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자유를 주신다.	1	2	3	4
18-9. 나를 과잉보호하신다.	1	2	3	4
18-10. 나를 칭찬해 주신다.	1	2	3	4

문19) 다음은 여러분의 선생님과 친구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9-1. 담임 선생님이 좋다.	1	2	3	4
19-2. 담임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1	2	3	4
19-3.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친절하시다.	1	2	3	4
19-4.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1	2	3	4
19-5.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19-6.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문20)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이 나의 신체(가슴, 성기 등)를 만진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1)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이 그 사람의 신체(가슴, 성기 등)를 만지도록 시킨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2) 지난 1년간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친구, 선후배, 가족, 가족 이외 어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문23)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체벌(손으로 때리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는 것)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다음 페이지 계속 ▶

문24) 지난 1년간 부모님 또는 가족이 나를 혼내실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였나요?

부모님(가족)이 나에게~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4-1. 나를 꼬집으셨다.	1	2	3	4	5
24-2.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셨다.	1	2	3	4	5
24-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셨다.	1	2	3	4	5
24-4.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울 치셨다.	1	2	3	4	5
24-5.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셨다.	1	2	3	4	5
24-6. 나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셨다.	1	2	3	4	5
24-7. 나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셨다.	1	2	3	4	5
24-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셨다.	1	2	3	4	5
24-9.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 하셨지만, 실제로 때리시지는 않으셨다.	1	2	3	4	5
24-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셨다.	1	2	3	4	5
24-11. 나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셨다.	1	2	3	4	5
24-12. 나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나를 혼자 집에 두셨다.	1	2	3	4	5
24-13.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시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4.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5. 술에 취해 계시거나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을 하시느라 나를 잘 돌보시지 않으셨다.	1	2	3	4	5
24-16. 두들겨 패셨다.	1	2	3	4	5

문2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내가→다른 아이(내가 한 경우)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5-1.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25-2. 다른 아이의 기분을 나쁘게 하기 위해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5-3. 다른 아이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25-4.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1	2	3	4	5
25-5. 다른 아이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	2	3	4	5
25-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다른 아이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	2	3	4	5
25-7.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	2	3	4	5
25-8.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하거나 악플을 달아본 적이 있다.	1	2	3	4	5
25-9.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누군가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5

문26)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당한 적이 있나요?

다른 아이→나(내가 당한 경우)	전혀 없다	1년에 1~2번	2~3개월에 1~2번	한달에 1~2번	1주일에 1~2번
26-1.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1	2	3	4	5
26-2. 나의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5
26-3. 나의 신체 장애나 외모를 가지고 놀린 적이 있다.	1	2	3	4	5
26-4. 나의 돈 또는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적이 있다.	1	2	3	4	5
26-5. 나에게 괜히 시비를 건 적이 있다.	1	2	3	4	5
26-6. 여럿이 놀 때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던 적이 있다.	1	2	3	4	5
26-7.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든 적이 있다.	1	2	3	4	5
26-8.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보거나 악플에 시달린 적이 있다.	1	2	3	4	5
26-9. 인터넷 공간(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누군가가 나를 왕따 시킨 적이 있다.	1	2	3	4	5

문27) 다음은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1. 부모님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2. 상급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진학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3. 장래희망과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4. 부모님은 학원 선택을 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줍니다.	1	2	3	4
27-5. 부모님은 나의 문화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과 관련하여 나의 생각을 존중해줍니다.	1	2	3	4

PART E. 참여 활동

문28) 지난 1년 동안 아래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요? 참여한 적이 있다면, 참여횟수를 함께 응답해 주세요.

활동내용	참여 여부		참여횟수 (1년간)
	예	아니오	
28-1. 학교 동아리 활동(연극, 댄싱 동아리 등)	1	2	회
28-2. 학교에서 하는 캠페인 활동(학교폭력예방캠페인, 친구사랑 캠페인 등)	1	2	회
28-3. 학교에서 하는 자원봉사 활동	1	2	회
28-4. 학교밖 동아리 활동 (학교가 아닌 단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해본 경험)	1	2	회
28-5. 학교밖 캠페인 활동 (학교가 아닌 단체에서 언어폭력예방캠페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등을 해본 경험)	1	2	회
28-6. 학교밖 자원봉사 활동	1	2	회
28-7. 기부, 후원활동	1	2	회
28-8. 정책참여 활동(청소년 참여위원회, 학생 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 자치위원회, 아동권리 옴부즈맨 등, 자신의 의견을 국가 기관에 전달해본 경험)	1	2	회
28-9. 교류활동(국내 또는 외국에서 다른 지역 청소년 등과 만나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것)	1	2	회

다음 페이지 계속 ▶

문29) 지난 1년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PART F. 건강상태

※ 다음은 여러분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30-1) 평소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쁘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다 ⑤ 매우 건강하다

문30-2) 여러분은 자신의 체형(몸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① 매우 말랐다 ② 말랐다 ③ 보통이다 ④ 뚱뚱하다 ⑤ 매우 뚱뚱하다

문30-3) 여러분은 자신의 체형(몸매)에 만족하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② 만족하지 못한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한다 ⑤ 매우 만족한다

문30-4) 최근에 측정한 키와 몸무게는? 키 ()cm 몸무게 ()kg

*만약 키와 몸무게를 모르는 경우 응답하지 않아 주세요.

PART G. 정서 및 스트레스

문31) 여러분은 현재 삶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2) 여러분은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감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33) 다음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1.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33-2. 나에게서 좋은 장점이 많이 있다고 느낀다.	1	2	3	4
33-3. 나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1	2	3	4
33-4. 나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33-5.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1	2	3	4
33-6. 나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33-7. 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1	2	3	4
33-8. 내 자신이 잘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34)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고 지난 1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있었나요?

지난 1주일 동안 나는...	전혀 없다	1주일에 1~2일	1주일에 3~4일	거의 매일
34-1. 가족이나 친구들이 도와주어도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1	2	3	4
34-2. 기분이 우울했다.	1	2	3	4
34-3. 내 인생은 실패라는 생각이 들었다.	1	2	3	4
34-4. 두려운 기분이 들었다.	1	2	3	4
34-5. 외로움을 느꼈다.	1	2	3	4
34-6. 평상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곤 했다.	1	2	3	4
34-7. 슬픈 기분이 들었다.	1	2	3	4

문35) 아래의 질문을 읽어보고, 자신의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5-1.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한다.	1	2	3	4
35-2. 혹시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다.	1	2	3	4
35-3. 평소에 예민하고 불안을 많이 느낀다.	1	2	3	4
35-4.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많다.	1	2	3	4
35-5. 가끔 손에 땀이 나고 긴장이 된다.	1	2	3	4
35-6. 가끔 심장이 두근거린다.	1	2	3	4

문36) 다음은 여러분의 평소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6-1.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을 때가 있다.	1	2	3	4
36-2. 남이 하는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	1	2	3	4
36-3.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	1	2	3	4
36-4. 별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1	2	3	4
36-5.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1	2	3	4
36-6. 아무 이유 없이 울 때가 있다.	1	2	3	4

문37)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나요?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자주 경험 했는지 그 횟수를 써 주세요. *본 문항의 답변은 학교 내 별점과 관련이 없으며, 선생님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시) 담배 피우기: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 본 경우→“지난 1년 동안 ()회”에,
 습관적으로 매일 피우는 경우→“하루에 ()회”에 해당 횟수를 써주세요.
 예시) 술 마시기: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셔 본 경우→“지난 1년 동안 ()회”에,
 주기적으로 자주 마시는 경우→ “한 달 평균 ()회”에 해당 횟수를 써 주세요.

활동내용	참여 여부		경험횟수 “예”라고 응답한 학생만
	예	아니오	
37-1. 담배 피우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또는 하루에 ()회
37-2. 술 마시기 (제사나 종교 행사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 제외)	1	2	지난 1년 동안 ()회 또는 한달에 ()회
37-3.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를 가지 않은 경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4. 가출 (하룻밤 이상 보호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음)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5. 다른 사람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6. 다른 사람 따돌림 시키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7.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8. 다른 사람 헐박하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9. 패싸움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0.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1.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쳐주기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2. 성관계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3. 성폭행이나 성희롱(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행동)	1	2	지난 1년 동안 ()회
37-14. 돈을 걸고 도박게임	1	2	지난 1년 동안 ()회

문38) 다음은 여러분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경험하는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1. 컴퓨터(스마트폰)를 하지 못하면 생활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1	2	3	4
38-2. 컴퓨터(스마트폰)을 하지 못하면 생활이 안절부절못하고 초초해 진다.	1	2	3	4
38-3. 컴퓨터(스마트폰)을 하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다.	1	2	3	4
38-4. 컴퓨터(스마트폰)을 하고 있지 않을 때에 컴퓨터(스마트폰)이 생각나지 않는다.	1	2	3	4
38-5. 컴퓨터(스마트폰)을 하다가 그만두면 또 하고 싶다.	1	2	3	4
38-6.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한다.	1	2	3	4
38-7. 컴퓨터(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곤 한다.	1	2	3	4
38-8. 주위 사람들은 내가 컴퓨터(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한다고 지적한다.	1	2	3	4

문39)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0)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1)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42) 다음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점수로 표시해 주세요.

내용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		보통						→ 스트레스를 받는다		
42-1. 공부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2. 친구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3. 가족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4. 외모 문제	0	1	2	3	4	5	6	7	8	9	10
42-5. 경제적 어려움	0	1	2	3	4	5	6	7	8	9	10

문43) 다음은 여러분의 미래계획이나 진로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3-1.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본다.	1	2	3	4
43-2.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1	2	3	4
43-3.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학교공부는 열심히 하려고 한다.	1	2	3	4
43-4.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43-5.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1	2	3	4
43-6.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1	2	3	4
43-7.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다.	1	2	3	4
43-8.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1	2	3	4
43-9.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	1	2	3	4
43-10.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1	2	3	4
43-11.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1	2	3	4
43-12.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이 더 잘 아신다.	1	2	3	4
43-13.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1	2	3	4
43-14.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PART H. 마음과 행동

문44)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4-1. 부모님과 약속한 게임시간이나 TV 시청시간을 잘 지킨다.	1	2	3	4
44-2.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을 잘 낸다.	1	2	3	4
44-3. 나는 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겨도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1	2	3	4
44-4. 공부하기 싫을 때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1	2	3	4
44-5.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해결하려고 한다.	1	2	3	4

문45)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5-1. 계획한 것을 잘 지킨다.	1	2	3	4
45-2. 과제를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실하게 한다.	1	2	3	4
45-3.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한다.	1	2	3	4
45-4. 맡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5-5. 부지런히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문46)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6-1. 친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친구의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1	2	3	4
46-2. 나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비웃지 않는다.	1	2	3	4
46-3.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1	2	3	4
46-4.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인정한다.	1	2	3	4
46-5.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문47)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7-1. 학교에서 내가 하기 싫은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책임을 다한다.	1	2	3	4
47-2. 실수한 것에 대하여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1	2	3	4
47-3. 내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려고 한다.	1	2	3	4
47-4.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47-5.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1	2	3	4

문48)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8-1. 나는 친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	1	2	3	4
48-2.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행동을 잘 한다.	1	2	3	4
48-3.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은 친구를 위해 나의 준비물을 기꺼이 빌려준다.	1	2	3	4
48-4. 친구가 울고 있거나 기분이 상해 있으면 마음을 달래주려고 한다.	1	2	3	4
48-5.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줄 것이다.	1	2	3	4
48-6.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1	2	3	4

문49)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9-1. 나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해결해 주는 편이다.	1	2	3	4
49-2. 분위기나 대화상대에 따라 대화를 잘 이끌어 간다.	1	2	3	4
49-3.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1	2	3	4
49-4.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을 잘 한다.	1	2	3	4
49-5.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해주는 편이다.	1	2	3	4
49-6.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	1	2	3	4
49-7. 친한 친구일지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1	2	3	4

문50)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0-1. 조별과제를 할 때 친구들과 협동심을 발휘한다.	1	2	3	4
50-2. 체육대회나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친구들과 협력한다.	1	2	3	4
50-3. 협력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적극 참여한다.	1	2	3	4
50-4. 공동체가 발전할 때 나도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50-5.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1	2	3	4

문51)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1-1. 다른 사람을 외적인 조건(가정 형편, 성적, 외모 등)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	1	2	3	4
51-2.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친구라고 해도 그 친구를 공정하게 대한다.	1	2	3	4
51-3. 나는 외적인 조건(가정 형편, 성적, 외모 등)으로 다른 사람을 놀리지 않는다.	1	2	3	4
51-4. 세상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아야 한다.	1	2	3	4
51-5.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중한 존재이다.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52)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생각에 가장 비슷한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2-1. 나는 지구촌 문제(예: 빈곤, 환경, 인권, 전쟁, 난민 등)와 관련한 캠페인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1	2	3	4
52-2. 자선단체나 NGO(예: 굿네이버스)에 기부하기 위해 용돈을 아껴 쓸 것이다.	1	2	3	4
52-3. 시간을 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2-4.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1	2	3	4
52-5.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1	2	3	4
52-6. 지구촌에 문제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1	2	3	4

문53) 여러분은 롤 모델(본 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① 예 ▶ 문53-1 ② 아니오 ▶ 문54

문53-1)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

문54) 여러분은 이루고 싶은 장래희망이 있습니까? ① 예 ▶ 문54-1, 문54-2 ② 아니오 ▶ 문55

문54-1) 장래희망은 무엇입니까? ()

문54-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55)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① 돈 ② 좋은 직업 ③ 화목한 가정 ④ 친구관계 ⑤ 기타()

문56)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6-1. 우리 부모님은 사이가 좋다.	1	2	3	4
56-2. 우리 부모님은 행복해 보이신다.	1	2	3	4

* 오랜 시간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 하겠습니다. *

아동 생활실태 및 인식 조사 연구(부모(보호자))

ID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의 웃음꽃이 가득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의 의뢰로 우리나라 아동의 생활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됩니다.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의 삶에 대한 현 주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여, 아동복지를 위한 전문 서비스 개발과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조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하신 학부모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은 학부모님께서서는 설문지를 다시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학부모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되어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전하게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설문 도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사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리서치앤리서치(02-3484-3045)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지 작성 방법

- 본 설문지는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모님 또는 보호자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본 설문지에서 자녀 관련 응답은 설문지를 가져 온 자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설문문항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번호를 직접 기입하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예1) 현재 설문지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예2)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1	2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4. 주관식 문항은 빈칸에 직접 작성하여 주십시오.

PART A. 동네 환경 및 주거안전

문1) 동네에 대한 귀하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1-2.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1	2	3	4
1-3.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1	2	3	4
1-4.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거나 낙서가 많은 등 더러운 편이다.	1	2	3	4
1-5.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1	2	3	4
1-6.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	1	2	3	4
1-7. 술집, 노래방, 모텔 등의 유흥업소와 주택이 섞여 있다.	1	2	3	4
1-8. 할일 없이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많다.	1	2	3	4
1-9. 불량청소년의 일탈행동이나 범죄가 많다.	1	2	3	4
1-10. 술을 많이 마시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1	2	3	4
1-11. 이웃과 자주 다룬다.	1	2	3	4
1-12. 옆집에 무슨 일(예: 심한 부부싸움, 아동학대 등)이 일어나면 관심을 기울인다.	1	2	3	4

문2) 귀하가 살고계시는 동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	예	아니오
2-1. 병원이 가까워서 아플 때 진료 받는 것이 편하다.	1	2
2-2. 동네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어 이용하기 편하다.	1	2
2-3. 동네 놀이터는 깨끗하고 자녀들이 놀기에 좋다.	1	2
2-4. 동네에는 공원이 가까이에 있다.	1	2

문3) 귀하가 거주하시는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예	아니오
3-1. 건물은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다.	1	2
3-2. 우리 집은 방습이 잘 되어 있어 곰팡이 균의 문제가 없다.	1	2
3-3. 우리 집은 방습이 잘 되어 있어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된다.	1	2
3-4. 우리 집은 환기와 채광이 잘 된다.	1	2
3-5.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1	2

PART B. 아동학대 및 권리에 대한 생각

문4)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주변에서 부모 또는 성인이 아동을 학대(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예 ▶ 문4-1 ② 아니오 ▶ 문5

문4-1) 아동학대 목격 후 아동학대를 신고하였습니까? ① 예 ▶ 문5 ② 아니오 ▶ 문4-2

문4-2)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신고하는 것이 귀찮아서 ② 신고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③ 신고 후에 부과될 책임이나 역할이 부담스러워서 ④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⑤ 부모(성인)가 아동을 훈육하는 것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⑥ 기타()

문5)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② 경찰서(112) ③ 지역사회복지관 ④ 아동관련 상담소
 ⑤ 관공서(주민센터, 구·시청 등) ⑥ 종교단체 ⑦ 기타()

문6)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문항	예	아니오
6-1.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1	2
6-2. 아동학대 신고 후 신고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1	2
6-3.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감소할 것이다.	1	2

문7) 다음은 아동을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다음의 행동들이 훈육과 학대 중 어느 곳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학대이다	학대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7-1. 꼬집는 것	1	2	3
7-2.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를 때리는 것	1	2	3
7-3. 벨트, 골프채, 몽둥이 등 도구를 이용해 엉덩이 이외의 곳을 때리는 것	1	2	3
7-4.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치는 것	1	2	3
7-5.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귀를 때리는 것	1	2	3
7-6.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1	2	3
7-7. 아이를 어디로 보내거나 내쫓겠다고 하는 것	1	2	3
7-8.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꽂초 등을 이용해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는 것	1	2	3
7-9. 말로는 때리겠다고 위협 했지만, 실제로 때리지 않는 것	1	2	3
7-10.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	1	2	3
7-11. 아이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것	1	2	3
7-12.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는 경우에도 혼자 집에 두는 것	1	2	3
7-13. 아이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것	1	2	3
7-14. 아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	1	2	3
7-15. 술, 인터넷 게임, 쇼핑 등의 이유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 것	1	2	3
7-16. 두들겨 패는 것	1	2	3

다음 페이지 계속 ▶

문8) 귀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② 이름만 들어보았다
 ③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다 ④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문9) 아동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아동은 0-18세 연령에 해당함

우리 동네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아동은 아직 어려서 생각이 미숙하고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1	2	3	4
9-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	2	3	4
9-3.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	2	3	4

PART C. 자녀양육 및 교육

문10) 지난 1년 동안 자녀의 식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다.	1	2	3	4
10-2. 우리 아이들은 값싼 음식을 주로 먹었다.	1	2	3	4
10-3. 우리 아이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다.	1	2	3	4

문11) 다음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귀하의 관심을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1. 자녀와 함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1	2	3	4
11-2. 참고서, 학습지, 학원 선택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	1	2	3	4
11-3. 자녀가 공부 할 때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1	2	3	4
11-4.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물어본다.	1	2	3	4
11-5. 학급 어머니회 임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한다.	1	2	3	4
11-6. 학교 봉사활동(교통지도, 배식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11-7. 자녀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전화한다.	1	2	3	4
11-8.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문12) 귀하가 평소에 자녀를 양육하며 느끼시는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있다고 느낀다.	1	2	3	4
12-2. 자녀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고 느낀다.	1	2	3	4
12-3. 자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1	2	3	4
12-4. 자녀를 위한 나의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1	2	3	4
12-5.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괴롭다.	1	2	3	4
12-6. 부모로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12-7.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1	2	3	4
12-8. 다른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12-9.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1	2	3	4
12-10. 다른 부모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1	2	3	4
12-11. 자녀를 잘 지도할 수 있다.	1	2	3	4
12-12. 부모 역할에 잘 적응하고 있다.	1	2	3	4
12-13.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	1	2	3	4
12-14. 자녀에게 가능한 최상의 양육을 제공하여 왔다.	1	2	3	4
12-15.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1	2	3	4
12-16. 자녀를 일관성 있게 훈육할 수 있다.	1	2	3	4

문13)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하루 평균 몇 시간 입니까? ()시간 ()분

문14) 자녀와의 주된 대화주제는 무엇입니까?

- ① 학업·공부 ② 친구관계 ③ 취미생활 ④ 예의 및 생활습관
 ⑤ 외모 ⑥ 건강 ⑦ TV 프로그램/연예인 ⑧ 기타()

문15) 일주일 동안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번

문16) 귀하는 자녀와 함께 다음의 여가활동을 얼마나 자주하십니까?

나는~	전혀 하지 않음	1년 1~2회	1년 5~6회	한달 1~2회
16-1. 나들이(놀이공원 등)	1	2	3	4
16-2. 문화생활 (극장·공연관람, 미술관·박물관·과학관 견학 등)	1	2	3	4
16-3. 여행	1	2	3	4
16-4. 운동경기, 스포츠 행사 참여	1	2	3	4
16-5. 기타()	1	2	3	4

다음 페이지 계속 ▶

문17) 자녀가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이 없이 집에 혼자 또는 형제/자매 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됩니까?

- ① 거의 없다 ▶ 문18 ② 1-2일 정도 ▶ 문17-1 ③ 3-4일 정도 ▶ 문17-1 ④ 거의 매일 ▶ 문17-1

문17-1) 평일 방과 후 자녀가 혼자 또는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는 하루에 몇 시간이 됩니까?

- ① 1시간 미만 ② 1-2시간 ③ 3-4시간 ④ 4시간 이상

문18)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괄호 안에 보기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공부 ② 건강 ③ 인성 ④ 대인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문19)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얼마나 신경을 쓰시는지, 신경 쓰시는 순서대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응답해주시시오. *괄호 안에 보기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공부 ② 건강 ③ 인성 ④ 대인관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문20)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한 가지만 응답해주세요.

- ① 경제력 ② 좋은 직업 ③ 화목한 가정 ④ 좋은 인간관계 ⑤ 기타()

문21) 부모님(보호자)께서는 자녀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원하시는지 간단한 문장이나 단어로 표현하여 주십시오.

나는 우리 아이가 앞으로
()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PART D. 자녀의 건강상태 및 삶의 만족도

※ 자녀의 건강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22) 자녀가 만성질환(예: 천식, 아토피, 등)을 앓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3) 자녀가 지난 1년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23-1 ② 아니오 ▶ 문24

문23-1) 입원한 적이 있다면, 입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질병 ② 사고 ③ 기타()

문24) 현재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부모님이 느끼시는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10

문25) 현재 얼마나 행복하시나요? 부모님이 느끼시는 행복감에 대하여 점수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가장 낮은 만족도 점수는 0이며, 가장 높은 만족도 점수는 10입니다.

행복하지 않다 ← 보통 → 행복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PART E. 일반 사항

※아래의 가구 일반 문항은 통계적 해석을 위한 기본정보로만 사용됩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분석은 아니며 조사대상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응답이 함께 수치화 되어 분석됨을 알려드립니다.

문26) 현재 설문지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문27) 자녀의 주양육자는 누구십니까?

-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문28)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300~400만원 미만 ④ 400~500만원 미만 ⑤ 500~600만원 미만 ⑥ 600만원 이상

다음 페이지 계속 ▶

문29) 자녀의 부모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하시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분	연령	학력	직업
어머니	① 20대	① 무학	① 무직
	② 30대	② 초등학교졸업	② 가정주부
	③ 40대	③ 중학교졸업	③ 단순 노무직
	④ 50대	④ 고등학교졸업	④ 기능직
	⑤ 60대 이상	⑤ 전문대학졸업	⑤ 판매서비스직
		⑥ 대학교졸업	⑥ 자영업
		⑦ 대학원 이상	⑦ 기술직 및 사무직
			⑧ 전문직
			⑨ 경영 관리직
아버지	① 20대	① 무학	① 무직
	② 30대	② 초등학교졸업	② 가정주부
	③ 40대	③ 중학교졸업	③ 단순 노무직
	④ 50대	④ 고등학교졸업	④ 기능직
	⑤ 60대 이상	⑤ 전문대학졸업	⑤ 판매서비스직
		⑥ 대학교졸업	⑥ 자영업
		⑦ 대학원 이상	⑦ 기술직 및 사무직
		⑧ 전문직	
		⑨ 경영 관리직	

문30) 여러분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을 의미함

문31) 귀댁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양부모 가정 ② 한부모 가정 ③ 조손가정 ④ 기타()

* 오랜 시간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 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Korea Children's Rights Index

발 행 2017년 7월 1일

발 행 인 양진옥

편 집 인 이순기

발 행 처 굿네이버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 화 02-6424-1692

이 메 일 crrt@gni.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I S B N 979-11-85356-16-7
